

제사장 나라와 고대 제국

: 탈식민주의와 “통”(通)으로 다니엘 1-6장 읽기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전광성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3년 5월

Copyright © 2023 Kwangsong Jeon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THE KINGDOM OF PRIESTS AND ANCIENT EMPIRES : A POSTCOLONIAL AND “TONG” READING OF DANIEL 1-6

Kwangsong Jeon

HaKnesiah Presbyterian Church, New York

This thesis mainly concerns the practical and theological issues of resistance, specifically examining resistance as subversion or opposition and resistance as reconciliation, which is embedded in Daniel 1-6 with a postcolonial and “tong” perspective.

As a strategy of anti-colonialism, the text of Daniel 1-6 seeks to expose the imperfections of colonial systems, thus revealing the limitations of colonizers and colonial knowledge. A postcolonial reading of Daniel 1-6 explicitly helps us to dismantle colonial strategy such as dehumanization, as well as debunk colonial ideology such as ethnic supremacy.

While postcolonial biblical criticism is built on the concept of resistance as opposition or subversion against colonial powers, this project seeks to analyze the transform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lonizers and the colonized. My work also aims to reveal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in terms of harmony and symbiosis between self and others, in the light of “tong” methodology.

This study delves deeply into the text of Daniel 1-6 as “one story” based on the core values of the kingdom of priests: (1) sharing and serving, (2) forgiveness and peace, and

(3) salvation and mission. In this regard, the text of Daniel 1-6 is a tale about how Daniel and his three colleagues would apply the holy values of the kingdom of priests in ancient empires such as Babylon and Persia.

This thesis suggests, from a postcolonial and “tong” perspective, that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provide a significant challenge to open right relations between the colonizers and the colonized, or between self and others. From a postcolonial and “tong” perspective, resistance as reconciliation is an attempt to overcome the dehumanization of the colonized that was perpetrated by those in positions of colonial power.

This thesis concludes that resistance as reconciliation essentially seeks to restore broken relationships by offering and accepting forgiveness and ultimately establishing a priestly kingdom ruled by YHWH, the king of the kingdom of priests in ancient empires.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paper will contribute to the concept of reconciliation as coexistence transcending the space of confrontation among different groups culturally, politically, and religiously.

국문초록

제사장 나라와 고대 제국

: 탈식민주의와 “통”(通)으로 다니엘 1-6장 읽기

전광성

하크네시야 교회, 뉴욕

본 논문은 탈식민주의와 “통”(通) 방법론으로, 특히 다니엘 1-6장 안에 내재한 저항으로서의 화해와 전복 혹은 반대로서의 저항을 연구하는 실천적이고 신학적인 저항의 이슈에 관심을 가진다.

반식민주의 전략으로서, 다니엘 1-6장은 식민지 지배자들의 한계와 지식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식민주의 제도의 불완전성을 노출한다. 다니엘 1-6장을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읽는다는 것은 비인간화라는 식민주의 전략과 민족우월주의라는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탈식민주의 성서해석 비평은 식민주의에 맞서는 반대 혹은 전복으로서의 저항의 개념 위에 기반하고 있지만, 이 연구는 지배자들과 피지배자들 간의 관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또한 나의 연구는 “통”(通) 방법론이 추구하는 자아와 타자들 사이의 상생과 조화의 관점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다니엘 1-6장을 (1) 섬김과 나눔 (2) 용서와 평화 (3) 구원과 선교라는 제사장 나라의 핵심 가치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상세히 다룬다. 이 점에서, 다니엘 1-6장은 다니엘과 그의 세 동료인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같은 고대

제국에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가치들을 어떻게 적용해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본 논문은, 탈식민주의와 “통”(通)의 관점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식민지배자들과 피식민지배자들 혹은 자아와 타자 사이에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도전을 제공해 준다고 제안한다. 탈식민주의와 “통”(通)의 시각에서, 화해로서의 저항은 식민 권력자들에 의해 자행된 피식민지 지배자들의 비인간화를 극복하는 시도이다.

본 논문은 결론적으로 저항으로서의 화해의 목표는 본질적으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으며, 궁극적으로 고대 제국에 제사장 나라의 왕이신 여호와에 의해 다스려지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서로 다른 그룹들 사이에 대립의 공간을 초월하는 공존으로서의 화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 차

감사의 글.....	ix
제 1 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9
제 2 장 제국의 식민주의 정책과 목적: 고대 제국	17
2.1 제국의 식민주의 전략: 민족말살정책.....	17
2.2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19
2.3 바벨론 제국: 벨사살 왕.....	25
2.4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	26
2.5 요약.....	28
제 3 장 탈식민주의 정책과 목적: 제사장 나라	31
3.1 제사장 나라의 탈식민주의 전략: 전복과 반대로서의 저항.....	31
3.2 여호와 하나님과 제국의 신들 비교.....	35
3.3 제사장 나라의 일꾼들과 제국의 수호자들.....	54
3.4 요약.....	91
제 4 장 신(新)탈식민주의 해석과 제사장 나라의 실천신학: 화해로서의 저항 ..	96
4.1 탈식민주의 해석의 새 방향: 제사장 나라의 가치.....	96
4.2 나눔과 섬김.....	99
4.3 용서와 평화.....	111
4.4 구원과 선교.....	125
4.5 요약.....	143
제 5 장 결론	152

참고문헌 166

ACKNOWLEDGEMENTS

Drew University has provided an ideal environment in which to develop my thoughts on the subject of the kingdom of priests. It is a great pleasure to thank the various people whose intellectual support made it possible for this dissertation to be completed. Looking back on the evolution of this dissertation, I have greatly benefited from the guidance and contributions of my dissertation committee.

My committee consists of advisors Leonard Sweet, Byoungcho Zoh, and Younglae Kim. The contributions from their various backgrounds remarkably have enriched my work. I have been very strongly influenced by Dr. Byoungcho Zoh's methodological premise that a postcolonial and "tong" reading of Daniel 1-6 is invaluable in bringing my research to completion.

Dr. Younglae Kim's suggestions and support have pushed me to move into many fruitful new directions. I am grateful for the helpful suggestions and inspiration of Dr. Leonard Sweet. They have all also raised many questions that will always continue to motivate me to further inquiry.

Among the few I have dedicated this work to is my wife, Seonghye Baek, to whom I cannot adequately express my love and appreciation. Her crucial words have offered me encouragement every step of the way. My mother Jeomshun Im has been an unparalleled source of moral support and I would like to express to her that a good mother is forever. My three sons, Daniel, Joseph, and Paul have been my pride and joy. More importantly, I thank my God for His grace and faithfulness in sustaining me.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논문의 저자가 사역하고 있는 하크네시아 교회(HaKnesiah Presbyterian Church)는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Horace Grant Underwood)를 조선에 파송한 미국장로교단(The Presbyterian Church, U.S.A.)에 속해 있다. 1885년 동교단으로부터 파송받았던 언더우드는 지금의 새문안 교회(舊, 정동교회)와 연세대학교(舊,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하였다.¹ 그는 성경 번역 작업에 공헌하는 등 초기 한국 개신교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듯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장로교를 뿌리내리게 했던 미국 장로교단이 지난 1970년대 이후부터 장로교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었던 동성 간의 결혼의 문제 등이 교단의 신학적 쟁점으로 부상해 왔다. 2011년 개최된 219차 총회에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가 되려면 남자와 여자 간 결합인 결혼을 했거나 독신일 경우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교단 헌법 규정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것은 동성애자도 미국장로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거의 40년의 치열한 논쟁 끝에 교단의 결혼 정의가 수정되었다. 지난 2014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미국장로교 제 221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¹ 이회갑, 『언더우드』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0), 99-121.

결의했다. 즉 결혼을 두 사람 사이의 서약(commitment between people)이라고 명명했다. 결혼 정의에 관한 위 수정은 보다 많은 다양한 계층을 포괄한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졌다.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장로교가 오랜 전통과 성경에 기반해 고수해 왔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문구를 “두 사람의, 전통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새로운 표현으로 결혼을 재정의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교단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는 최근 수년 사이에 결혼 정의와 동성애 문제가 큰 반향이 이루어졌다.

매사추세츠 주가 2003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201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워싱턴주, 메인주, 매릴랜드주 등 총 19개의 주에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영향 아래, 동성결혼이라는 사회적 이슈는 미국 내 한인교회들은 물론이고 특정 교단 문제의 차원이 아닌 모든 신앙인에게 있어 법적, 사회적 환경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논문 진행을 위해 2022년 9월 2일 오전 10시에 미국장로교 총회 사무국(Office of General Assembly, the Presbyterian Church, U.S.A)을 대표하는 박희준 목사(Manager of Korean Speaking Council Support)와 화상 미팅(Zoom)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그가 공개한 자료들 중에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미국장로 교단에서 탈퇴한 교회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11년 219차 교단총회에서 동성애자도 안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2012년부터 교단 탈퇴의 수가 전년도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교단탈퇴 개교회의 수가 5배나 증가했다.

연수	교단 탈퇴 교회 수	연수	교단 탈퇴 교회 수
2010	25	2016	99
2011	22	2017	45
2012	110	2018	34
2013	149	2019	24
2014	101	2020	7
2015	104	2021	5

미국장로교 연별 교단 탈퇴 개교회 현황

2014년 221차 총회에서 성경적 결혼 정의가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두 사람으로 수정되었을 때, 104개의 교회가 미국장로교단을 떠났다. 또한 2010-2011년의 교단 탈퇴 개교회들의 숫자가 각각 25개 교회, 22개 교회였다. 그런데 2012년에 110개의 교회가 미국장로교단을 떠난 것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교단 탈퇴 행렬이 2017년에 45 교회들이 교단을 떠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대략 2-5 배 정도의 교회들이 2010년과 2011년 교단을 떠난 개교회의 숫자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2012년부터 2017년 6년 동안 총 608개의 교회가 미국장로교단을 떠났다는 통계를 얻을 수 있었다.

교단 총회 사무국 박희준 목사는 최근까지 교단을 떠났던 교회들의 이유에 관한 조사 연구 자료가 교단 내에는 없지만, 동 교단은 2011년 219차 총회와 2014년 221차 총회에서 결정한 동성연애자 안수 문제와 비성경적인 결혼 정의로의 수정 문제가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며 괄목한 성과를 이루어 왔던 미국교회들도 교단에 상관없이 세속화의 흐름 가운데

술집이나 공연장으로 팔려 나가는 유럽 교회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이는 미국장로교 총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동의할 수 없는 동성애자를 안수받게 하고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복음주의 신앙을 고수해 온 미국장로교 내 한인교회들은 큰 실망감과 당혹감 및 위기감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뉴욕시에서 목회하며 동성애자를 안수하도록 허용하는 교단에 속한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다. 뉴욕시에 속한 퀸즈지역은 한인들이 가장 밀집되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다. 본 논문의 저자는 2014년 11월부터 2023년 현재까지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다.

2002년 미국 테네시주 내쉬빌에 있는 밴더빌트 대학에 유학생의 신분으로 도미한 이후 본 연구자는 미국의 여러 지역, 특히 뉴욕, 보스턴과 뉴저지 등에서 학업과 목회 사역을 병행해 왔다. 본 연구자는 다양한 교단 배경 아래의 미국 이민교회에서 지금까지 20년 이상 전도사와 부목사 및 담임목사로 사역해 왔다.

말하자면 전도와 선교의 측면에서 본 연구자는 동성애자들에게 안수의 길을 열어놓은 미국장로 교단에서 사역하고 있다. 교회 안팎의 비판과 정죄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이 시대적 현실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 위에 토대 위에 세워진 미국이 급속히 세속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미국인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 교단도 성경의 말씀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세상의 가치관에 기초한 인본적인 해석을 내놓고 세상과 거리낌 없이 타협하고 있다. 이것이 연구자가 목회하는 미국 장로교단의 뼈아픈 현실이며 동시에 시대적 아픔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구자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신앙을 지켜 갈 수 있을지 2014년 이후

뉴욕시 퀸즈에 있는 하크네시아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섬기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고민해 왔다. 특히 본 논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만들어낸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 바벨론 포로기 예언의 성취로 인한 징계의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맺은 언약을 기록하고 있는 제사장 나라의 법인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말았다.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제사장 나라를 설명한다.

제사장 나라는 제사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다섯 가지 제사 곧 번제, 화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나라의 경영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 하면 출애굽기 19-40 장, 레위기 전체, 민수기 1-10 장까지를 일단 머릿속에 그립니다.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의 법 율법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다섯 가지 제사이며, 다섯 가지 제사로 나라 경영이 가능합니다. 다섯 가지 제사로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 간의 평화 이렇게 세 가지 효과가 나옵니다. 무슨 허물이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장 나라입니다.”²

본 연구는 이스라엘 징계의 하나로 진행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했던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시작하여 페르시아 시대에 이르기까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바벨론 제국이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레미야 70년 포로징계에 관한 예언은 다음과 같이 다니엘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이 받게 되는 징계에 기반”을 둔다.³ 다니엘 1-6 장의 내용은 ‘제사장 나라의 교과서’에 해당하는 핵심 구절 레위기 26 장 14-39 절에 기인하고 있는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로 이해할 수 있다.⁴

²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94-95.

³ 조병호, 『와우! 예레미야 70년: 징계 70, 교육 70, 안식 70, 제국 수명 70, 새 언약 예고』 (서울: 통독원, 2018), 38;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은 26:14-39을 참조하라.

⁴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93.

제사장 나라의 언약 백성이 경험한 바벨론 포로기는 모세의 율법, 즉 제사장 나라의 법을 깨뜨린 결과로 이루어진 징계의 성격이었다. 그런데도 다니엘 1-6 장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놀랍게도 제사장 나라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새로운 구원의 희망으로 반전시키고 있다.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례는 하루가 다르게 세속화되고 반성경적 가르침을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적 모델과 대안이 될 수 있다.⁵

본 논문은 주전 7세기 자신의 조국을 떠나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사장 나라에 기초한 여호와 신앙을 어떤 방식으로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지켜내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등 많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했다. 하지만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다.⁶ 이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는 바벨론 제국의 남유다의 침공으로 이어졌다. 그로 인하여 바벨론 제국의 3차에 걸친 남유다 침략으로 주전 586/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고 말았다.

다니엘 1장의 기록에 따르면, 주전 605년 바벨론 제국의 제1차 남유다 침공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민 신세가 되어 바벨론 제국에 충성하도록 식민지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제사장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냈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들의 삶 터전인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은 제사장 나라 교육의 연장

⁵ 마 10:16.

⁶ William L. Holladay, *Jeremiah 1: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Chapters 1-25*, ed. Paul D. Hans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668; 램 25:3-4.

선상에 있었다. 제사장 나라는 민족과 민족을 동등하게 대하지만 제국은 민족을 계급화한다.⁷ 하나님의 징계 아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있어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은 그들이 실천해야 할 제사장 나라의 목회 현장이 된다.

본 논문은 남유다 포로민을 대표하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고대 제국들의 박해에 저항하며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신앙 사건에 관심을 가진다.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히어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대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지만 지혜롭게 그들에게 저항하며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면서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통치자들 사이에서 큰 명성을 얻었다. 그들은 제국의 식민주의 정책에 반대하면서도, (1) 나눔과 섬김 (2) 평화와 용서 (3) 구원과 선교라는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굳건히 실천했다.

본 논문은 제사장 나라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국의 교육과 문화와 종교 등 식민주의 동화정책에 맞서서 어떤 탈식민주의 전략으로 바벨론 및 페르시아 제국에 저항해 나아갔는지 고찰할 것이다. 또한 제사장 나라의 궁극적 가치인 구원과 선교적 관점에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법과 하나님 여호와를 고대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어떻게 전략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전파해 갔는지 조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는 고대 제국의 식민지화 전략들을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은 고대 제국들은 공성전의 침략방식과 민족 우월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약소민족들의 문화와 정체성과 그들의 인간 존엄성을 말살하려 했던 전략을 해체하고 폭로할 것이다.

⁷ 조병호, 『성경과 5대 제국: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서울: 통독원, 2011), 28.

또한 고대 제국이 노예화라는 비인간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열등한 존재로 전락시키려 했던 만행도 고발할 것이다.⁸ 본 연구는 피지배 민족을 자신의 제국에 충성하도록 만들고자 했던 식민지화 전략, 즉 제국의 식민지 동화정책을 고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첫째, 다니엘 1-6 장에서 찾을 수 있는 공성전을 통한 착취와 파괴는 물론이고 약자의 노예화라는 제국의 비인간화 식민주의 정책과는 상반된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추구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사장 나라의 가치란 바로 모세의 율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1) 나눔과 섬김 (2) 평화와 용서 (3) 구원과 선교이다. 본 논문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국의 한복판에서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추구했는지, 그 과정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다.

둘째, 본 연구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탈식민주의 전략과 통(通) 방법론을 기초로 해서 다니엘 1-6 장을 해석할 것이다. 이로써 본 논문은 제사장 나라의 일꾼들이 고대 제국에 저항할 때, 탈식민주의 방법론에서 추구해 왔던 단순히 무폭력 저항의 형태인 반대 혹은 체제의 전복으로서의 저항의 개념이 아닌 화해(和解)로서의 공존(共存)과 상생(相生)의 개념을 추구하는 새로운 해석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니엘 1-6 장에 반영된 화해(和解)로의 저항정신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제사장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이 강조된다. 더불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국 내의

⁸ Davina C. Lopez, "Visualizing Significant Otherness: Reimagining Paul (line Studies) through Hybrid Lenses," in *the Colonized Apostle: Paul Through Postcolonial Ey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1), 75.

모든 민족과 나라와 함께 화해(和解)와 조화(調和) 및 공생과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다니엘 1-6 장은 모든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꿈, 즉 구원과 선교의 비전을 내재하고 있다. 둘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일을 수행했다. 이것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다는 의미이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다니엘 1-6 장이다. 이 연구는 두 가지 방법론을 사용한다. 첫째, 탈식민주의 성서해석이다. 이 방법론은 피지배자들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 및 민족과 신앙적 정체성을 훼손하고 말살하려는 제국의 식민주의 전략을 폭로하는데 유익한다.

또한 본 연구는 종래의 탈식민주의 해석방법론을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말하자면 본 논문은 반대와 전복으로서의 저항을 기초로 하는 이전의 탈식민주의 해석 방법을 극복한다. 즉 본 연구는 화해(和解)로서의 저항에 기초하여 극단 사이의 공존과 상호협력을 추구하는 신(新)탈식민주의 해석 모델을 제안한다.

탈식민주의 해석으로 다니엘 1-6 장을 연구할 때, 흔히 등장하는 단어가 민족주의와 제국과 제국주의에 대한 개념이다. 본 연구를 위해 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국주의’ (Imperialism)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지배하려고 시도하거나 실제로 지배하는 상태.... 결국 제국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제국’은 임페리움(Imperium)의 속어적 개념입니다. 임페리움은 로마 공화정 말기와 제정 초기에 로마법의 권위가 통용되는 공간 영역을 의미했습니다.⁹

조병호는 구종서의 글을 인용하면서 민족주의를 이렇게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민족주의’란 통일, 독립, 발전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이자 그 운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민주주의도 넓은 의미에서는 일종의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족을 넘은 ‘민족주의’의 강도가 너무 과해지면 그때부터 부정적인 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¹⁰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다니엘 1-6장에 등장하는 고대 제국 (바벨론 및 페르시아) 안에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 징계 70년의 과정 가운데 경험한 벌어진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도 구약성경에서 히브리 민족과 가장 먼저 관련이 있는 제국은 이집트다.¹¹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히브리 민족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신다.¹²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정과 민족과 나라와 제국이란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¹³ 특히 출애굽기 19장 5-6절은 제사장 나라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꿈을 제시하고 있다. 시내산 계약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심을 보여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⁹ 조병호, 『성경과 5대 제국: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24-25.

¹⁰ Ibid., 23; cf. 구종서, 『민족과 세계: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주의의 항정』 (서울: 나남신서, 1988).

¹¹ Ibid., 창 46:3-4.

¹²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 12:2).

¹³ 조병호, 『성경과 5대 제국: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22-23.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¹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니엘 1-6 장의 무대 배경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다. 제국주의의 무대 배경이 되는 왕궁의 이야기를 다루는 다니엘 1-6 장은 탈식민주의 해석의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식민주의 해석학은 비인간화에 기반한 제국의 식민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 담론이다. 제국에서 일어나는 비인간화 작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킨다. 이것은 지배자 자신들을 문명 전파의 사도로 합리화하고, 피지배인들을 미개인들 혹은 야만인들로 분류함으로써,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할 뿐이다.¹⁵

탈식민주의 해석학은 식민주의가 자국민에 대해서는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주지만 피제국주의자들에게는 패배의 굴욕감을 안겨다 주고 열등감과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본다. 따라서 탈식민주의는 이같은 지배담론에 저항한다. 다니엘 1-6 장은 제국의 중심부 왕궁에서 일어난 일련의 제국의 식민주의 정책에 대한 신앙적이고 민족주의적 저항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탈식민주의 해석학은 제국의 식민주의 통치방식과 전략의 결함을 폭로함으로써 제국주의자의 우매함과 그 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 회의감과 불신감과 패배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유다 백성은 제 1 차, 2 차, 3 차에 걸친 바벨론 제국의 침략과 압제 아래, 정치적 주권의 상실, 경제적 수탈과 착취, 언어와 문화와 전통의 상실이라는 위기에 직면했다.¹⁶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의 압제와

¹⁴ Ibid., 28.

¹⁵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과주: 살림, 2008), 14.

¹⁶ Ibid., 4-5.

통치 아래 고유언어와 문화 및 신앙 전통을 고수하며 ‘문명화 사명’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식민주의 정책의 부당성을 폭로한다.¹⁷

셋째, 탈식민주의 해석학은 피지배 민족의 고유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회복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탈식민주의 해석학은 감추어지고 무시되어 온 피지배 민족의 고유 전통과 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가진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역할은 유다 민족의 고유 문화와 모세의 율법 등 민족의 정체성과 여호와 신앙 전통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제국에 속한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파하는 선교사적 사명이다.

넷째, 본 연구는 호미 바바(Homi Bhabha)가 2004년 출간된 『문화의 위치』(The Location of Culture, 2004)에서 주장했던 세 가지 개념에 주목한다: 양가성(Ambivalence), 잡종성(hybridity), 흉내내기(mimicry)이다. 본 연구는 그의 세 가지 탈식민주의 개념을 다니엘 1-6장에 적용하여 제국이 표방하는 식민주의 전략을 해체하는 일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또한 다니엘 1-6장을 통(通)으로 읽는다. 본 연구는 통(通)의 방법론의 주창자인 조병호의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조병호는 통(通)의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통(通)은 대상의 속성을 하나부터 열까지 꿰뚫어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관계와 계약, 공시와 통시, 이성과 감성, 지식과 실천, 부분과 전체 등의 서로 다른 영역을 동시에 봄으로써 조화와 균형, 공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한다.”¹⁸

본 연구는 통(通) 방법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공존(共存)과 상생(相生)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통(通)의 방법론을 본 논문에서

¹⁷ Ibid., 13.

¹⁸ 조병호, 『통이다: Let's 通』(서울: 통독원, 2009), 85.

사용한다는 것은 고대 제국이 사용했던 포로민에 대한 식민지 통치방식과 이에 반하는 식민지 해체방식을 부분과 전체, 즉 총체적으로 꿰뚫어 이해한다는 말이다.

특히, 다니엘을 통(通)으로 읽는다는 것은 다니엘 1-6 장 전체를 (1) 나눔과 섬김 (2) 용서와 평화 (3) 구원과 선교라는 제사장 나라의 가치들로 꿰뚫어 이해한다는 말이다. 본 연구에서 피제국주의를 대표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 및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왕과 지혜자들은 서로 간에 상생(相生)과 공존(共存)의 길을 함께 지향해 가야 할 주요 인물들이다. 추가적으로 다니엘 1-6 장을 통(通)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다니엘 1-6 장은 바벨론 제국의 왕궁을 배경으로 남유다 포로민 출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펼쳐가는 제사장 나라 법에 기초한 여호와 경외의 삶을 묘사한다. 다니엘 7-12 장은 다니엘 개인이 체험했던 환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관점에서, 다니엘 1-6 장은 디아스포라 궁중 이야기이며, 7-12 장은 종말론적 환상 이야기이다.¹⁹ 즉 다니엘 7-12 장은 종말론적 묵시문학 장르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다니엘 7-12 장에는 난해한 초월적인 이미지들과 숫자들과 동물상징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²⁰

둘째, 콜린스(John J. Collins)에 따르면, 다니엘 1-6 장의 왕궁 이야기는 마카비 시대 이전의 산물이라는 것이 성서학계 주류의 견해이다.²¹ 그렇기 때문에 1-6 장의 내용은 다니엘 7-12 장보다 오래된 저작물이다. 다니엘 7-12 장은 주전 167-164년 안티오쿠스 4 세에 대항해 일어났던 유대인 봉기 사건과 밀접한 관련을

¹⁹ W. Sibley Towner, *Daniel: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2), 21-90, 91-182.

²⁰ Stephen L. Cook, *The Apocalyptic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26-28.

²¹ John J. Collins, *Danie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47.

맺는다.²² 이처럼 대부분의 현대 성서학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전 2세기 시리아 셀류쿠스 왕조의 유대 통치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이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신앙 영웅들의 모험담이 담긴 이전 기록(다니엘 1-6 장의 궁정 이야기)을 가져왔다고 보았다.²³ 따라서 본 연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들로 구성된 1-6 장의 내용을 통(通)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통(通)과 탈식민주의 해석방법을 가지고 다니엘 1-6 장을 읽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이전 지배자들이 현재의 피지배자들이 되고, 이전 피지배자들이 현재의 지배자들이 되는 끊임없는 반목과 대립의 순환 역사를 극복하고자 한다. 다니엘 1-6 장을 통(通)과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본 연구는 제사장 나라는 제국에 대한 전복과 반대로서의 저항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화해(和解)로서의 저항을 추구한다. 이것이 통(通) 방법론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신(新) 탈식민주의 해석방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혹은 문명인과 야만인의 대립구조를 포기하고, 극단 사이의 상생(相生)과 상호존중의 가치와 필요성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제국의 공성전으로 시작된 비인간화와 노예화 전략을 해체하고 극복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이해한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 1-6 장 전체를 통(通)으로 읽는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섬김과 나눔, 용서와 평화 및 구원과 선교의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제국 안에서 실현해 가는 과정에 관심을 가진다.²⁴

²² Marvin A. Sweeney, *TANAK: A Theological and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Jewish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450.

²³ Stephen R. Miller, *Daniel: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4), 24.

²⁴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20), 47-48.

탈식민주의 해석과 통(通) 방법론이 다니엘 1-6 장을 연구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또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즉 제사장 나라의 일꾼들은 다니엘 9 장 2 절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70 년의 징계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²⁵ 다니엘서의 이 구절은 다니엘서만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다니엘이 예레미야 25 장 11-13 절을 인용했기 때문이다.²⁶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기라는 징계의 상황에 그들이 살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제국의 식민주의 정책에서 대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극렬하게 저항할 필요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70 년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남유다를 멸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 예레미야 25 장 9 절은 그를 제사장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된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²⁷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한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금 은혜의 언약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조병호는 예레미야 70 년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바벨론 포로 70 년’ 이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이자, 제사장 나라의 재교육이고, 예루살렘 땅이 안식하는 것이며, 동시에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라고 예언했습니다.²⁸

²⁵ 단 9:2.

²⁶ 렘 25:11-13.

²⁷ 렘 25:9.

²⁸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298.

예레미야 29 장 7 절의 말씀에 따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제국의 평안을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²⁹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의 식민주의 정책에 대해, 그들과 동일한 폭력적 방식으로 저항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논자가 제안한 화해(和解)로서의 저항이라는 탈식민주의 해석방법과 양자 간의 조화(調和)와 상생을 추구하는 통(通) 방법론은 추구하는 목표 자체가 서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두 방법론을 적절하게 다니엘 1-6 연구에 적용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사장 나라의 여호와 신앙에 기초한 무폭력주의 평화로운 저항정신으로 제국의 폭력과 비인간화 전략을 상대했던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렇듯 본 다니엘 1-6 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제사장 나라를 제국 안에서 세워서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을 만들어 가려 했는지 고찰할 것이다.

²⁹ 렘 29:7.

제 2 장 제국의 식민주의 정책과 목적: 고대 제국

2.1 제국의 식민주의 전략: 민족말살정책

본 논문의 제 2 장은 제사장 나라 백성의 죄악에 대한 징계 70 년 포로기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국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데 보여주고 있다. 레위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조병호가 잘 지적했던 바와 같이 1 단계의 징계는 흉년이요, 2 단계의 징계는 수탈이요, 마지막 3 단계의 징계는 포로이다.³⁰ 제사장 나라는 남유다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바벨론 제국으로 확대된다.

다니엘 1-6 장을 통(通)으로 읽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지막 단계인 포로징계의 상황에 있었다. 본 논문 2 장은 징계 70 년의 포로기 가운데 고대 제국에서 시행된 식민지 정책의 구체적인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 다니엘 1 장은 바벨론 제국에서 제국의 식민지 교육정책의 목적으로 진행된 식민지화의 진행 과정을 두드러게 묘사해 준다.³¹ 다니엘 1-6 장 전체를 통(通)으로 읽을 때, 다니엘 1 장을 시작과 함께 나머지 2-6 장들 속에서 전개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했던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다니엘 1-6 장을 “하나의 이야기” 로 이해했을 때, 다니엘 1 장 1-7 절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레미야 70 년의 징계는 포로기를

³⁰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300; 조병호는 1 단계 징계를 흉년(레 26:19-20)으로, 2 단계 징계를 수탈로 (레 26:16, 25), 3 단계 징계를 포로(레 26:34-35)로 설명한다.

³¹ Philip Chia, “On Naming The Subject: Postcolonial Reading of Daniel 1,” in *The Postcolonial Biblical Reader*, ed. R. S. Sugirtharajah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6), 171-185.

상황으로 남유다 출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경험해야 하는 고통이었다. 공성전을 통한 약탈과 파괴 및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는 과정과 식민지 교육과정은 바벨론 포로기의 삶의 시작을 의미했다. 조병호는 예레미야 70년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바벨론 포로징계 사건을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

바벨론은 3번에 걸쳐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1차 포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즉, 4명의 천재 소년들을 잡아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에스겔과 예루살렘의 소위 고위 연봉자들, 머리 좋은 우수인력 1만 명을 끌어간 것을 말합니다. 1차 포로들은 느부갓네살의 ‘인질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였고, 2차 포로는 바벨론 성을 세계 제1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고 기술자들을 끌어간 것입니다. 3차 포로는 예루살렘에 포도 농사나 지을 최소 인력만 남기고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하급 단순노동에 투입되었습니다.³²

둘째, 다니엘 2장과 4장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의 문제를 논의한다. 두 장에서 나타나는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비인간적인 폭력성과 잔인한 성격을 소유자이다.³³

셋째, 다니엘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게 했던 사건을 다룬다. 다니엘 3장의 사례는 제사장 나라의 법, 즉 모세의 율법을 훼손시키는 우상숭배를 강요함으로써,³⁴ 유다 민족의 여호와 신앙을 멸절시키려 했다.

넷째, 다니엘 5장에서 바벨론 제국 벨사살 왕은 그의 선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온 성물들을 가져오게 하였고, 그는 이것들을 제국의 우상들이 준비한 잔칫상 위에 술잔으로 사용했다. 즉 다니엘 5장은 성물을 가지고 바벨론의 우상들을 찬양했던 사건을 다룬다. 이는 유다 민족 고유의 여호와 신앙과 그들의

³² 조병호, 『성경과 5대 제국: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135.

³³ Joyce G. Baldwin, *Daniel: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9), 99, 126-127.

³⁴ Carol A. Newsom, *Daniel: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4), 100-124.

고유문화를 파괴하려 했던 신성모독 사건이다.³⁵ 다니엘 6 장은 포로민 출신 다니엘에 대한 제국 수호자들의 시기와 질투가 만들어낸 제국의 폭력성을 드러낸다.

2.2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본 연구는 공성전을 승리로 이끈 느부갓네살왕이 유다 포로민을 바벨론 제국으로 강제 이주시킨 후에 시행했던 포로민을 대상으로 한 식민지화 전략을 폭로하고 있다. 조병호는 고대 제국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제국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제국은 인간들이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힘을 길러 공성전과 노예제도 (민족 우월주의), 그리고 물질주의를 추구하며 세운 것이다.”³⁶

제국의 민족 우월주의는 인간을 문명인과 야만인으로 구분하게 했다.³⁷ 또한 제국은 피식민 주의자들을 미개인들로 분류된 사람들로 간주하고 그들을 노예화 시킴으로써 양자간에 화합할 수 없는 갈등 계층으로 이해한다. 이와 관련하여 박종성은 식민지배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피식민지인을 감시, 훈육, 통제, 차별함으로써 자신의 명령과 권위에 순응시키려 한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식민지인의 후진성과 야만성을 부각시킨다.”³⁸

제국은 문명화 사명이라는 명목 아래 자기 책무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착취와 수탈과 식민지 교육을 정당화했다.³⁹ 또한 정치조직, 제도, 문화, 종교 및 언어 등 제국의 산물들을 피지배자들에게 이식했다.⁴⁰

³⁵ Miller, *Daniel: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153.

³⁶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78.

³⁷ Yoichi Komori, 『포스트콜로니얼: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인식』 송태욱 역 (서울: 삼인, 2007), 33-36.

³⁸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53.

³⁹ Ibid., 21.

⁴⁰ Ibid.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 전략에 관한 증거 자료들은 앞으로 향후 상세하게 다루게 될 다니엘 1-4 장 부분에 나타나 있다.⁴¹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왕은 유다를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성물을 시날 땅 바벨론의 신전에 가져다 놓았다. 다른 포로민들과 함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주전 605 년에 강제로 이주하게 된다.⁴² 이것이 식민지화의 첫 번째 단계였다.

제국의 환관장 아스부나스는 바벨론 왕의 명령을 받아 유다 포로민들 중 가장 뛰어난 자들을 착출했다.⁴³ 이렇게 선정된 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이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 교육과정을 거쳐 제국에 충성할 수 있도록 선택된 것이다. 이것이 식민지화 정책의 두 번째 단계이다.

제국이 원하는 식민지 교육의 최종 목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유다 사람이 아닌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제국의 목적에 맞게 그들을 사용하는 데 있다. 제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종으로 훈련하기 위해 3년의 식민지 교육과정을 거치게 한다.⁴⁴

제국에 의해 식민지 교육 대상에 선택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고 심지어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을 먹어야 했다.⁴⁵ 제국의 식민주의 정책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유다 민족의 음식문화까지 포기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일종의 제사장 나라의 법에 기초한 유다 민족의 고유 음식문화를 포기하라는 뜻이다. 이것은 유다 민족이 가지는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제국의 식민주의 정책의 한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

⁴¹ 단 1:1-7; 2:1-13; 3:1-23; 4:1-9.

⁴² Chia, "On Naming The Subject: Postcolonial Reading of Daniel 1," 174-175; 단 1:1-2.

⁴³ 단 1:4.

⁴⁴ 단 1:5.

⁴⁵ 단 1:4.

제국주의자들은 제국의 학문과 언어교육을 통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려 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유대식 이름들도 바벨론식으로 개명되어야 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유 이름들 안에 포함된 히브리적 의미와 제국에 충성하도록 부여받은 새로운 이름들은 서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여준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 라는 의미이다.⁴⁶ 다니엘은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의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 메삭은 ‘누가 아쿠 신인가?,’ 아벳느고는 ‘느고(느보)의 종’ 이라는 의미이다.⁴⁷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새로운 바벨론의 새 이름들이 주어진다.⁴⁸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고유한 그들의 이름들은 강제적으로 개명되었다. 이는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 살지 말라는 의미이다. 제국의 식민주의 교육목표는 포로민들이 바벨론인으로서 동화되어 살아가도록 만드는 데 있다. 피제국주의자들은 제국의 도구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실례들이 포로민들을 제국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식민주의 전략들이다. 이것이 바로 민족말살정책의 사례들이다.

말하자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식민지 교육이 시행되었다. 즉 이 교육의 목적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 제국에 충성하는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골딩케이(John Goldingay)는 이 목표를

⁴⁶ Collins, *Danie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140-141; Ernest C. Lucas, *Daniel: Apollos Old Testament Commentary*, ed. David W. Baker and Gordon J. Wenham, vol. 20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2), 53; 성주진, “다니엘의 대응 전략: 다니엘 1장 주해와 적용,”

『다니엘: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편집부 편, 제 28 권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153-154.

⁴⁷ Miller, *Daniel: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64-65.

⁴⁸ 단 1:6-7.

위해, “강제로 데려와서, 교육하고, 필요한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개명하는 일들을 했으며, 포로민들이 제국에 충성하도록 강요했다” 라고 주장한다.⁴⁹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부르면 언제든지 그가 주는 과제를 해결하도록 훈련받는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가 아닌 제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도구가 되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제국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왕궁을 출입하는 상층한 신분을 가진 것 같지만, 제국이 요구하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하여 그 누구든 죽음의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다니엘 2 장 1-13 절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 제국이 시행한 제국주의 전략의 목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해 제국의 식민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니엘 2 장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한다.⁵⁰ 이 때 처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린 사람들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이었다.⁵¹ 그러나 그들은 왕이 꾸는 꿈의 내용과 해석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왕은 분노하게 된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함께 죽게 될 위기에 처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⁵²

⁴⁹ John Goldingay, *Daniel: Word Biblical Commentary*, ed. Bruce M. Metzger, vol. 30 (Nashville: Thomas Nelson, 1996), 22.

⁵⁰ Ernest C. Lucas, *Daniel: Apollos Old Testament Commentary*, ed. David W. Baker and Gordon J. Wenham, vol. 20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2), 65.

⁵¹ 단 2:2.

⁵² 단 2:12-13.

식민지교육을 받았던 포로민들이 제국에 충성하지 못하고 부여된 일에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할 때 그들은 죽음의 형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제국의 잔혹성이다. 다니엘의 간청으로 그들은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 제국 안에서 다니엘은 갈대아인처럼 벨드사살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불렸다는 사실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꾸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⁵³ 이것은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바벨론 제국의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다른 사례는 다니엘 3 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는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 신앙에 대한 종교말살정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십계명에 따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에게 절할 수 없었다.⁵⁴ 다니엘 3 장에서 다니엘은 이 사건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메삭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도록 강요받았다.⁵⁵ 그들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에 처하게 되었다.

그의 동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다.⁵⁶ 이것은 바벨론의 식민지교육이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일과 관련된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명령이었던 금 신상에 절하지

⁵³ 단 2:26.

⁵⁴ Sidney Greidanus, *Preaching Christ from Daniel: Foundations for Expository Sermons* (Grand Rapids: Eerdmans, 2012), 84-112.

⁵⁵ 단 3:1-5.

⁵⁶ Tremper Longman III, *Daniel: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9), 50-51.

아니하였다는 고발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다. 이는 제국 안에 내재한 잔인함의 특성이 밖으로 표출된 행위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비인간화 작업의 발로(發露)이다.⁵⁷

제국의 옹호자들은 그들에게 이용 가치가 없고 자신들에게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무엇이든, 혹은 누구이든지 오는 상관없이 폐기의 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제국의 잔혹성과 비인간화의 단면이다.

다니엘 4 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2 장에 이어 또 한번 꿈의 문제로 번민한 사건을 기록한다. 다만 다니엘 4 장은 2 장은 그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다. 다니엘 2 장에서 왕은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지혜자들에게 꿈과 그 해석을 요구했다. 반면에 다니엘 4 장에서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을 말해 주었다.⁵⁸ 왕이 자신이 꾸는 꿈의 내용을 알려주었음에도 불행하게도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꿈을 해석해 내지 못했다.

그 이후에 다른 방도가 없었던 왕은 벨드사살이라는 불리는 다니엘을 부르게 되었다. 그는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왕의 꿈을 해석해 내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의 왕궁에서 바벨론 제국과 왕의 꿈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제국의 옹호자로 간주할 수 있는가? 왜 그들은 제국의 왕을 도왔는가?

이에 대한 답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는 예레미야의 두 예언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⁵⁹

⁵⁷ Cf. Simone G. Nogueira, “Ideology of White Racial Supremacy: Colonization and De-colonization Process,” *Psicologia & Sociada* 25 (2013): 23-32.

⁵⁸ Andrew E. Steinmann, *Daniel: Concordia Commentary*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08), 231-232.

⁵⁹ 렘 29:7.

둘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예레미야 25 장 12 절의 구절에서 증언하고 있듯이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 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 틀림없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칠십 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더 나아가 이 질문에 대한 더 구체적인 논의와 그 답은 제 3 장의 핵심 주제가 되는 제사장 나라의 반제국주의의 해체전략과 향후 제 4 장에서 다루게 될 화해(和解)로서의 저항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2.3 바벨론 제국: 벨사살 왕

다니엘 5 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이후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릴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다. 그는 귀족 천 명을 초대하고 술잔치를 열었다.⁶⁰ 그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과 은 잔들을 가져오게 했고, 벨사살 왕은 귀족들과 왕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잔들에 술을 담아 마시게 했다.⁶¹

즉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해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전의 기물을 바벨론의 이방 신들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이것은 벨사살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성을 모독했다는 말이다.⁶² 이를 두고 스프링클 (Joe M. Sprinkle)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전 기물은 거룩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도록 봉헌된 것이기에 또한 거룩한 것이며, 그것들을 불경하게

⁶⁰ 단 5:1.

⁶¹ 단 5:2.

⁶² Miller, *Daniel: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152-153.

취급하게 되면 레위기 5장 14-16 절에 기록된 모세의 법을 어긴 죄가 되는 것이다.”⁶³ 이같은 행위는 유다 백성의 고유전통, 특히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신앙을 말살하고자 하는 제국의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니엘 5장 3-4 절의 기록이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우상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는 제사 도구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제국의 왕 벨사살은 결과적으로 제사장 나라에 근간이 되는 여호와 신앙을 훼손시키려 했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유다 민족의 고유 정체성과 전통문화를 말살시키는 제국의 식민지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2.4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

다니엘 6장은 다니엘 1-5 장 전체를 통(通)으로 읽을 때, 다니엘 1-5 장과 같이 제국의 이름이 다를 뿐, 사건의 중심 무대가 또 다른 페르시아 제국이다.⁶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니엘 3장은 제국의 관료들의 고발과 고소로 인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의 명령으로 만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이다. 지금의 다니엘 6장은 제국의 잔혹성과 비인간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처형 방법의 실례(實例)를 보여준다.

⁶³ Joe M. Sprinkle, *Daniel: Evangelical Biblical Theology Commentary* (Bellingham: Lexham Press, 2020), 138.

⁶⁴ Donald E. Gowan, *Daniel: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94-95.

다니엘 3 장은 풀무불이요, 다니엘 6 장은 사자 굴로 제국의 모습을 정형화했다. 이와 관련하여 스프링클(Joe M. Sprinkle)은 다음과 같이 두 사건을 지적한다: “다니엘 3 장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금지한 우상숭배를 거절하였고, 다니엘 6 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규칙적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⁶⁵

다니엘 6 장 3-4 절에 따르면, 다니엘은 제국의 다른 관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의 신뢰와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⁶⁶ 그는 제국의 삼대 총리 중의 한 사람이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던라.”⁶⁷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인정할 만큼 여러 가지로 능력 면에서 다니엘을 뛰어넘을 수 없었던 제국의 관료들은 그를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 내리기 위한 전략을 구상했다.⁶⁸ 그들이 유일하게 다니엘과 왕 사이를 이간시켜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를 죽일 방법은 다니엘이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법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있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⁶⁹

⁶⁵ Sprinkle, *Daniel: Evangelical Biblical Theology Commentary*, 154.

⁶⁶ John F. Walvoord, *Daniel: The John Walvoord Prophecy Commentaries* (Chicago: Moody Publishers, 2012), 167-168.

⁶⁷ 단 6:3-4.

⁶⁸ Bryan Chapell, *The Gospel According to Daniel: A Christ-Centered Approach* (Grand Rapids: Baker Books, 2014), 110.

⁶⁹ 단 6:5.

다니엘을 시기한 제국의 관료들은 다니엘이 향후 삼십 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든지 사자 굴에 던져 넣는다” 라는 왕의 명령을 지키는지를 주의 깊게 감시했을 것이다. 그들은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금령(禁令)과 어인(御印)이 찍혀 있더라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⁷⁰ 결국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여호와께 기도한 것이 왕에게 보고 되었고, 제국의 형벌 규정인 메대와 바사의 규례대로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다.⁷¹

이 사건은 이후 논문에서 다루게 될 나눔과 섬김 그리고 평화와 용서를 지향하는 제사장 나라와는 차이가 나는 제국의 잔혹성과 비인간적 모습을 보여준다. 다니엘 6장은 유다 민족의 고유 정체성에 기반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기초한 제사장 나라에 충성하는 다니엘과 충돌하는 제국주의자들 사이의 긴장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자신의 민족 고유 정체성을 지켰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제국의 전략에 저항했다.

2.5 요약

본 논문의 제 2 장은 예레미야 징계 70 년 동안 바벨론 제국과 심지어 페르시아 제국의 영역까지 어떤 일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기 상황 가운데 왕실에서 경험했는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본 연구는 다니엘 1-6 장의 각 장에서 묘사된 사례들을 집중해서 살펴보았다.

⁷⁰ 단 6:10.

⁷¹ 단 6:13, 16.

지금까지 논의한 제국주의 식민지화 전략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민족의 정체성과 여호와 신앙을 멸살(滅殺)하고자 했다. 즉 제국은 포로민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 삼 년의 식민주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의 목적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의 문화와 법 가운데 동화시킴으로써 제국에 충성하는 꼭두각시로 만드는 데 있다.

제국이 사용했던 식민주의 전략 네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다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를 격리라고 부른다. 둘째, 유다 민족의 정체성의 근간인 히브리어 사용을 금지시켰다.

그 예로서,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히브리식 이름들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셋째, 제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히브리 음식문화 (다니엘 1 장)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 (다니엘 6 장)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⁷² 이와 관련된 더욱 심층적인 논의는 논문의 제 3 장에서 다룰 것이다.

넷째, 바벨론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가 만든 금 신상 앞에 절하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전략을 사용했다. 다니엘 1-6 장을 통(通)으로 이해할 때, 고대 제국은 식민주의 전략의 일환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이상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하고 바벨론 제국의 문화에 동화되도록 강요했다.

⁷² Joyce G. Baldwin, *Daniel: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y*, vol. 23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9), 91; 레 3:17; 11:1-47.

결과적으로 다니엘 1-6 장을 통(通)으로 읽고 동시에 탈식민주의 독법(讀法)을 적용해 볼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식민지 교육정책에 따라 제국의 왕에게 충성하도록 교육받았다. 즉 그들은 제국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를 따르도록 강요받았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민족 고유의 언어와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유대 음식문화와 여호와 신앙까지 박멸될 위험에 노출되었다. 제국은 공성전을 통해 약소민족들을 점령하고 우월민족주의라는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피제국주의자들의 노동력과 자원을 착취했다.

제국의 식민주의 정책은 고유한 민족성을 파괴하는 일이고 전통문화를 말살시키는 일이다. 제국은 일련의 식민지 교육과정을 통해 피지배 민족을 노예화하는 비인간화를 추구한다. 이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피지배인들을 제국의 하수인으로서 제국에 영원히 복종하고 충성하며 살도록 강요하는 일이다.

제 3 장 탈식민주의 정책과 목적: 제사장 나라

3.1 제사장 나라의 탈식민주의 전략: 전복과 반대로서의 저항

본 논문 제 3 장은 유다 포로민 출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국의 식민지 정책에 대해 무폭력으로 저항한 사례에 관심을 기울인다.⁷³ 즉 다니엘 1-6 장은 제국에 무폭력적이고 불순종의 형태로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그들이 제국의 식민주의 정책에 효율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탈식민주의 전략을 쓰고 있었다고 전제한다. 그들은 제국 안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제사장 나라를 추구한 일들을 고찰 할 것이다. 또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제사장 나라가 제국보다 지혜와 능력에 있어 더 강력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징계 70 년의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에서도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용하여 포로민과 제국의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우수성을 드러냈다.⁷⁴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바벨론 교육 70 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께서는 70 년 교육 프로그램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시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1 차 포로들)을 위한 즉 0.1%를 위한 특혜 교육 해당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실에서

⁷³ Daniel L. Smith-Christopher, "The Book of Daniel: Introduction, Commentary, and Reflections," in *Esther, Additions to Esther, Tobit, Judith, 1 & 2 Maccabees, Book of Wisdom, Sirach, Introduction to Apocalyptic Literature, Daniel, Additions to Daniel: The New Interpreter's Bible Commentary*, ed. Leander E. Keck, vol. 6 (Nashville: Abingdon Press, 2015), 715-773.

⁷⁴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298.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제국의 이데올로기 정책에 동원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은 바벨론 제국의 제국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교육이 얼마나 월등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⁷⁵

조병호의 주장에 따르면, 예레미야 70 년은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서 다시 탄생하기 위한 재교육의 기간이다. 또한 그는 포로기 70 년은 “하나님의 명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는 사실을 깨닫는데 있다고 말한다.⁷⁶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본 연구는 다니엘 1-6 장 전체를 통(通)과 탈식민주의 전략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다니엘 1-6 장은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문헌이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역할은 제국의 궁극적 이념의 기반이 되는 민족 우월주의를 해체하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 반면에 제국은 공성전에 기반한 침략방식으로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약소민족을 노예화하는 민족말살정책을 추구한다.

제국은 포로민들을 그들의 제국에 충성하게 하고 복종하게 만든다. 앞서 서론 1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⁷⁷ 이 모든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국은 피지배 민족을 야만인과 미개인으로 간주한다. 그뿐만 아니라 제국은 포로민을 개화의 대상으로 포장한다. 반면에 제국은 자신들을 가리켜 문명화의 기수로 미화한다.

제국의 목표는 피지배 사람들을 교육해서 자신의 제국이 영원히 지속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제국에게 충성하도록 만드는 데 있었다. 본 논문 3 장에서 다니엘 1-6 장 전체를 탈식민주의 전략으로 읽는 것은 제국이 추구하는 비인간화의 목표를 해체하고 무력화하는 작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들의 목표를 해체하기 위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주의자들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폭로한다.

⁷⁵ 조병호, 『와우! 예레미야 70 년: 징계 70, 교육 70, 안식 70, 제국 수명 70, 새 언약 예고』, 106-107.

⁷⁶ Ibid., 113.

⁷⁷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13-14.

본 장의 연구를 통해 독자는 제국의 흥망성쇠(興亡盛衰)가 전적으로 유다 포로민 출신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여호와 하나님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도움 없이는 제국의 존속과 왕위의 보존과 난제들은 해결할 수 없다. 종래의 탈식민주의가 추구해 왔던 해석방법은 전복과 반대로서의 저항이다. 이것은 제국의 무지와 무능을 극대화하고 피지배민족의 상대적 우월성과 탁월함을 부각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추구하는 탈식민주의 전략이란 제국의 우월성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일이다. 다니엘 1-6 장은 제국의 수호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철저히 드러낸다. 반대로 본 연구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를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우월성을 증명한다.

따라서 유다 포로민을 대표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미개한 사람들로써 문명화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문명화의 사도들이다. 그들은 미개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제국의 관료들과 지혜자들을 재교육하는 책임을 가지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들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도움 없이는 제국의 왕과 그의 수호자들은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들과 제국의 현안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든 탈식민화 전략의 중심에서 일하고 계심을 증명한다. 여호와와는 패배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여전히 여호와와는 제국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나라들과 열방들의 최고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과 제국의 왕들과 지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를 해결하신다. 그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배후에서 항상 도우시고 그들을 높은 관직에 세운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은 제국의 왕들로부터 찬양받고 높임을 받으신다. 이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탈식민화 전략화 과정에서 일어난다.

본 장은 탈식민화 전략의 목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두 최고 통치자 느부갓네살 및 그의 아들 벨사살과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증명한다. 동시에 탈식민주의 전략은 제국의 왕을 수호하는 지혜자들과 관료들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노출한다.

예를 들면, 탈식민주의 독법은 다음과 같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의 식민지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국에 공헌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갖추게 된 것이 아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명성과 업적과 탁월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제사장 나라의 법에 기반한다. 다니엘 1-6 장은 유다 민족의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제사장 나라의 법의 뛰어남을 증명한다.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제국 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탈식민주의 전략은 여호와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무폭력 저항운동에 기초한다. 그들은 식민주의 전략에 불복종하고 때로는 순교의 신앙 정신으로 제국과 통치자에게 저항한다.⁷⁸ 본 연구는 탈식민주의 이론가로 널리 알려진 호미 바바의 세 가지 핵심 이론, 즉 양가성(ambivalence), 잡종성(hybridity), 흉내 내기(mimicry)의 개념을 가지고,⁷⁹ 다니엘 1-6 장 전체를 통(通)으로 읽고 식민지화 전략의 한계와 무능과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여기서 바바가 말하는 양가성이란 지배 민족은 피지배 민족 앞에서 지배 욕망과 더불어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는 이론이다.⁸⁰ 고모리 요이치(Yoichi Komori)는 양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상반되고 모순된 힘이 동시에 하나의 사상(事象)이나 행위에 작용하는 상태를 굳이 계속해서 찾아냄으로써 확고한

⁷⁸ Smith-Christopher, “The Book of Daniel,” 751-752.

⁷⁹ David Huddart, *Homi K. Bhabha* (Abingdon: Routledge, 2006), 36-43, 57-76, 78-79, 111-121,

⁸⁰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57.

이항 대립 주의의 틀을 구축한 제국주의적 담론을 전복하고 교란할 수 있게 한다.”⁸¹

다음으로 잡종성이란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교육해 문명인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결코 자신들과 똑같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따라 하기와 구별 짓기라는 양가적 욕망이 작동함으로써 피지배자가 잡종이 되어 제국에 유익하지 않다는 개념이다.⁸² 결과적으로 잡종성은 지배 민족의 순수성과 통일성에 해를 가함으로써, 제국의 기반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바는 피지배자들이 식민지배자들을 모방함으로써 제국주의의 견고함을 손상할 수 있다고 본다.⁸³ 흉내 내기는 제국의 질서를 위태롭게 만들고 해체하는 반식민지 전략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 아래 연구에서 다니엘 1-6 장의 탈식민주의 다양한 전략들과 그 사례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3.2 여호와 하나님과 제국의 신들 비교

제사장 나라의 법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전통적으로 고국에서 지켜왔던 제사장 나라의 왕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었던 모세의 율법을 가리킨다.⁸⁴ 다니엘 1-6 장은 바벨론 제국의 법보다 제사장 나라의 법이 얼마나

⁸¹ Komori, 『포스트콜로니얼: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 14.

⁸² Huddart, *Homi K. Bhabha*, 58.

⁸³ *Ibid.*, 59.

⁸⁴ Eugene H. Merrill, *Kingdom of Priests: A History of Old Testament*, 2nd e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37-72; Joseph Blenkinsopp, *The Pentateuch: An Introduction to the First Five Books of the Bible* (New York: Doubleday, 1992), 183-228; Frank Crüsemann, *The Torah: Theology and Social History of Old Testament Law*, trans. Allan W. Mahnk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27-57.

우수한지를 드러낸다. 본 연구는 다니엘 1-6 장의 각 장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의 법이 가지는 우수성을 증명할 것이다.

다니엘 1-6 장 전체를 통(通)으로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패배한 유다 민족만의 제한된 능력을 갖춘 신이 아니라 제국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란 사실이 입증된다. 제사장 나라의 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실질적인 통치자이다. 여호와와는 각 제국의 왕과 모든 나라의 민족과 통치자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그 손에 쥐고 계신다.

첫째, 다니엘 1 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피지배자 출신의 포로민으로서 다니엘은 그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을 부각한다. 여호와와는 제국의 힘과 제국의 신들과 제국의 식민지화 전략 모두를 무력화시킨다.

다니엘 1 장 2 절은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에 침략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바벨론 신들의 신전으로 옮겼던 사건을 상기시킨다. 이 사건을 두고 피윌(Fewell)은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과 바벨론의 신이 여호야김과 예루살렘의 신을 이긴 것으로 보았다” 라고 말한다.⁸⁵ 이는 전적으로 식민지 독법(讀法)으로 나온 결과물이다.

식민주의 전략에서 보면, 다니엘 1 장 2 절은 명백히 바벨론 제국의 신들이 유다 민족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패배시킨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호와를 섬기는 신전의 그릇들이 바벨론의 신전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은 바벨론 신이 여호와

⁸⁵ Danna N. Fewell, *Circle of Sovereignty: Plotting Politics in the Book of Daniel*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14.

이스라엘의 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⁸⁶ 이처럼 식민주의 독법에 따르면,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의 군대를 패배시킨 사건은 바벨론의 신이 유다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스미스-크리스토퍼(Daniel L. Smith-Christopher)에 따르면, 유다 민족은 하나님 여호와와의 형상을 만들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데 필요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이 바벨론의 신전으로 옮겨진 사건은 여호와 신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⁸⁷

그러나 다니엘 1 장은 탈식민주의 해석방법의 적절한 예들을 보여준다. 다니엘 1 장 2 절에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패배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주도하에 바벨론 침략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드러낸다.⁸⁸

바벨론의 신들과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보다 강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이 수탈당하고 유다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다. 단지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이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⁸⁹ 말하자면 바벨론 제국이 힘이 강해서도 아니고 바벨론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에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로써, 이같은 해석은 바벨론 제국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서 있는 민족 우월주의는 심각한 손상을 받게 된다.

또한 다니엘 1 장 9 절과 17 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활동 내역을 기술하고 있다. 먼저 9 절의 기록이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⁸⁶ Thomas A. Howe, *Daniel in the Preterists' Den: A Critical Look at Preterist Interpretations of Daniel* (Eugene: Wipe & Stock, 2008), 67.

⁸⁷ Smith-Christopher, “The Book of Daniel,” 81.

⁸⁸ Chia, “On Naming The Subject,” 172-173.

⁸⁹ 단 1:2.

언게 하신지라.”⁹⁰ 여호와 하나님은 제국의 한 사람이며 왕을 섬기는 환관장으로부터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셨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실패하고 무능한 신이 아니다. 그는 제국의 중심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다니엘은 모세의 율법, 즉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바벨론 이방인 음식문화로 인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품위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한다.⁹¹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이렇게 부탁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⁹²

즉 다니엘은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불복종한다. 다니엘은 제국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무폭력적으로 저항하고 있다.⁹³ 제사장 나라의 왕 여호와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법을 따르려는 그들에게 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역할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반하지 않는 채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은 바벨론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제국의 소년들과의 비교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가지게 된다.⁹⁴

다니엘 1장 8-16 절을 탈식민주의 전략으로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 즉 제사장 나라의 법을 고수했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승리가

⁹⁰ 단 1:9.

⁹¹ Andrew E. Steinmann, *Daniel: Concordia Commentary*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08), 99-100.

⁹² 단 1:2.

⁹³ Anthea E. Portier-Young, *Apocalypse Against Empire: Theologies of Resistance in Early Judaism* (Grand Rapids: Eerdmans, 2011), 223-279.

⁹⁴ 단 1:15.

돌아가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패배자의 신이 아니라 승리자의 신이다.

다니엘 1장 17 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밀러(Stephen R. Miller)가 17 절을 근거로 잘 지적하였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⁹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환상과 꿈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든 제국의 지혜자들을 능가하게 되었다.⁹⁶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지혜와 지식의 신이다. 제사장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국에서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이고 그분의 덕분이다. 결과적으로 탈식민주의 해석방법과 함께 다니엘 1장을 통(通)으로 읽을 때 여호와와는 패배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여전히 제국의 중심 무대에서 주인의 역할을 하고 계신 승리자의 하나님이다.

둘째, 다니엘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고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 주신 분이다. 유다 포로민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꿈을 주어 번민하게 만드신 여호와이시다.⁹⁷ 제국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은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다니엘 2장에서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의 신들은 불행하게도 자신들을 섬기는 제국의 왕을 돕기 위해 아무 역할도 주어지지 않는다.

⁹⁵ Miller, *Daniel: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70.

⁹⁶ 단 1:19.

⁹⁷ 단 2:1.

제국의 지혜자들은 꿈 문제를 해결을 위해 왕 앞에 소환되지만, 왕이 내린 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에 통분한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 제국의 지혜자들을 몰살하려 한다.⁹⁸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도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수 밖에 없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때 다니엘은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왕이 시간을 주면 그 해석을 알려 주겠다고 지혜롭게 말한다.⁹⁹

다니엘은 무엇을 믿고 왕의 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대한 다니엘의 확신에 기반한다.¹⁰⁰ 다니엘 2장 18-19 절은 유다 포로민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¹⁰¹

다니엘은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지혜와 능력이 그에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 분”으로 고백한다.¹⁰² 그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찾아가 바벨론 왕이 꾸민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 주겠다고 말한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은 제국의 왕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⁹⁸ Goldingay, *Daniel: Word Biblical Commentary*, 54-55.

⁹⁹ 단 2:13-16.

¹⁰⁰ Goldingay, *Daniel*, 55.

¹⁰¹ 단 2:18-19.

¹⁰² 단 2:20-21.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¹⁰³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다 듣고 나서 놀라운 반응을 보인다. 그는 제국과 열방에 대한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통치를 인정한다.¹⁰⁴ 그렇다면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꾸는 꿈의 내용을 그에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정확히 말했고 그 해석을 주었기 때문이다.¹⁰⁵ 이로 말미암아 다니엘 2장 46 절을 보면 제국의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

또한 2장 47 절에서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기에 이른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 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은 자신이 제사장 나라 법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 거하면서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서 추앙(推仰)받게 되었다.¹⁰⁶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민 출신 다니엘 앞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 받고 무릎을 꿇었다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탈식민주의 해석방법에 비추어 볼 때, 여호와 하나님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제국의 신들과 지혜자들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사실이다.¹⁰⁷ 이는 제사장 나라의 승리를 반영한다.

¹⁰³ 단 2:27-28a.

¹⁰⁴ Goldingay, *Daniel*, 61.

¹⁰⁵ 단 2:31-45.

¹⁰⁶ 단 2:48-49; Gowan, *Daniel: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ies*, 59.

¹⁰⁷ Longman III, *Daniel: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77-84.

이렇듯 다니엘 2 장에 대한 탈식민주의 독법은 유다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제국의 민족 우월주의와 바벨론의 신들의 능력을 무력화 하였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종국적으로 유다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그들의 민족의 고유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제사장 나라를 바벨론 제국 내에서 견고히 하였다.

셋째, 다니엘 3 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유다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교적 신앙으로 나아갔던 무폭력적 순교 신앙을 반영하고 있다.¹⁰⁸ 갈대아 사람들이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왕에게 참소한다. 이렇게 다니엘 3 장은 제국은 평소보다 칠 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졌던 사건을 기록한다.

그들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모세의 율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중 1 계명과 2 계명과 관련이 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¹⁰⁹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직접 그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도록 마지막까지 회유를 받았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¹⁰⁸ Smith-Christopher, “The Book of Daniel,” 745-751.

¹⁰⁹ 출 20:2-5a.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¹¹⁰

바벨론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여호와도 제국의 풀무불에서 그들을 건져 낼 수 없다고 확신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벨론 왕에게 제사장 나라의 법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방 금 신상 앞에 절하는 것보다 차라리 순교하기를 택하겠다고 말한다.¹¹¹ 설사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풀무불에서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즉 그들은 조상 때로부터 지켜온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다.¹¹² 이런 이유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할 수 없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리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¹¹³ 이것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왕의 명령과 설득으로도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다. 놀랍게도 신들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풀무불에서 죽지 않도록 보호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 몸이 전혀 상하지 않았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서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¹¹⁴ 이 신비스러운 사건을 본 바벨론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수 밖에 없었다.¹¹⁵

¹¹⁰ Smith-Christopher, “The Book of Daniel,” 748; 단 3:15.

¹¹¹ Ibid.

¹¹² Lucas, *Daniel: Apollos Old Testament Commentary*, 91.

¹¹³ 단 3:17-18.

¹¹⁴ 단 3:25-27.

¹¹⁵ 단 3:28.

흥미롭게도 제국의 왕은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 풀무불 사건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들, 즉 바벨론의 신들은 절대 나타나지 않았다. 다니엘 3 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만을 부각할 뿐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실 것” 이라는 다니엘 친구들의 고백이 현실화된다.¹¹⁶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 바벨론 제국에서 높임을 받는다. 느부갓네살은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 터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다.¹¹⁷ 제국의 힘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만다.

더 나아가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처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한다. 바벨론 신들의 권위는 다니엘 3 장의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철저히 바벨론의 신들은 이 사건에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한다. 다니엘 3 장을 통(通)으로 읽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제국의 높은 지위를 얻게 된다.¹¹⁸

결과적으로 다니엘 3 장은 제국 신들의 무가치 무능력을 폭로했다.¹¹⁹ 또한 제사장 나라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나라의 법이 얼마나 위대한 법인지를 보여주었다.

넷째, 다니엘 4 장은 다니엘 2 장에서 보여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활약상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4 장 1-3 절 서론 부분에서 그가

¹¹⁶ 단 3:17.

¹¹⁷ 단 3:29.

¹¹⁸ Miller, *Daniel: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pirit*, 125.

¹¹⁹ Howe, *Daniel in the Preterists' Den: A Critical Look at Preterist Interpretations of Daniel*, 137.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한다. 흥미롭게도 그는 바벨론의 신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를 높인다는 점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¹²⁰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바벨론 왕국의 신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제사장 나라는 영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¹²¹ 이러한 바벨론 제국 왕의 고백은 자신의 제국과 제국의 신들이 가지는 한계성을 드러내었다.

다니엘 4 장의 서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다니엘 4 장 전체를 통(通)으로 읽을 때, 4 장의 결론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고 이에 따라 큰 두려움에 빠진다.¹²²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모두 소환된다. 왕은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을 내라고 명령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왕의 꿈을 해석해 내지 못했다.¹²³ 이 때 다시 한번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로 불린다. 이는 다니엘만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확인해 준다.

¹²⁰ 단 4:2-3.

¹²¹ 단 4:3.

¹²² 단 4:5.

¹²³ 단 4:6-7.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란 바벨론의 신관에서 나온 표현이다.¹²⁴ 그러나 제사장 나라의 유다인의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란 제사장 나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다.¹²⁵ 이것은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동시에 말해준다. 하나님 여호와가 다니엘에게 꿈의 비밀을 알려 주셨기에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왕이여 이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¹²⁶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왕이신 여호와를 가리킨다.¹²⁷ 다니엘은 꿈 해석 과정 가운데 제국의 나라를 견고히 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¹²⁸

어리석게도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다니엘의 꿈 해석대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위에서 쫓겨나게 된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셨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¹²⁹

¹²⁴ J. Paul Tanner, *Daniel: Evangelical Exegetical Commentary*, ed. William D. Barrick (Bellingham: Lexham Academic, 2020), 277-279.

¹²⁵ Sprinkle, *Daniel: Evangelical Biblical Theology Commentary*, 116-117.

¹²⁶ 단 4:24.

¹²⁷ Tanner, *Daniel: Evangelical Exegetical Commentary*, 295-296.

¹²⁸ 단 4:26a.

¹²⁹ 단 4:30-31.

다니엘 4 장 2-3 절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4 장의 마지막 부분 34-37 절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¹³⁰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여호와 신이요, 제국과 그 신들과는 다르게 영원한 권세를 가지며, 그의 제사장 나라는 영원히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¹³¹ 제국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에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고 증언한다.¹³²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다스렸던 제국의 어느 신들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¹³³ 느부갓네살은 그의 찬양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분은 자신과 같이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는 분임을 고백한다..¹³⁴

그러므로 여호와와는 패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승자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한 자는 언제든지 자기 뜻대로 그 권세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시는 분이다. 두려움에 번민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해석해 내지 못했던 제국 지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의 2 장에서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의 무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¹³⁵ 이로써 제국을 다스리는 왕과 그의 신하들의 무지와 무능력이 증명된다.

따라서 제국이 내세우는 민족 우월주의는 다니엘이 추구하는 제사장 나라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해체의 수순을 따른다. 또한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¹³⁰ Kenneth O. Gangel, *Daniel: Holman Old Testament Commentary*, ed. Max Anders (Nashville: B & H Publishing Group, 2001), 93-115.

¹³¹ 단 4:34.

¹³² 단 4:35; Longman III, *Daniel: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118-125.

¹³³ 단 4:36.

¹³⁴ 단 4:37.

¹³⁵ Lehman Strauss, *The Prophecies of Daniel* (Winona Lake: BMH Books, 1969), 119.

다니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건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인정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회심의 사건으로 해석되기도 한다.¹³⁶

다섯째, 다니엘 5 장에서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들을 잔치 자리에 가지고 오게 한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 그릇들을 귀족 천명을 위한 잔치에 필요한 술을 마시는 도구로 사용하게 한다.¹³⁷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은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한다.¹³⁸ 이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진노의 징조가 나타난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친지라.”¹³⁹

벨사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물을 가지고 바벨론의 이방신들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술을 먹는 그릇으로 사용하게 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한 것이다.¹⁴⁰ 이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두려움을 나타내신다. 벨사살의 왕비는 신비한 글자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선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뛰어난 해석 능력을 갖춘 지혜자로 명성을 얻었던 다니엘을 다시 부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던 “거룩한 신들의 영” 이 있는 다니엘이 제국의 왕 벨사살 앞에 불러간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¹³⁶ Matthias Henze, *The Madness of King Nebuchadnezzar: The Ancient Near Eastern Origin and Early History of Interpretation of Daniel 4* (Leiden: Brill, 1999), 204; Walvoord, *Daniel*, 138.

¹³⁷ 단 5:1-3.

¹³⁸ 단 5:4.

¹³⁹ 단 5:5-6.

¹⁴⁰ Strauss, *The Prophecies of Daniel*, 150-153.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¹⁴¹

다니엘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고 쓰인 글자의 뜻을 해석해서 벨사살 왕에게 풀어 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¹⁴² 신비스러운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의 영” 이 다니엘에게 함께 했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그의 부친을 상기시키면서 느부갓네살이 제국의 왕이 될 수 있게 해 준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고 말한다.¹⁴³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포함하여 그 누구든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시는” 분이다.¹⁴⁴ 즉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왕위를 폐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다.¹⁴⁵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선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심지어 우상들을 찬양했다고 지적한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¹⁴¹ 단 5:11-12.

¹⁴² Steinmann, *Daniel: A Theological Exposition of Sacred Scripture*, 276-277, 285-289.

¹⁴³ Lucas, *Daniel: Apollos Old Testament Commentary*, 132; 단 5:18-19a.

¹⁴⁴ 단 5:19b.

¹⁴⁵ 단 5:20-21.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흠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¹⁴⁶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다니엘 5 장을 통(通)으로 읽을 때, 여호와와 제국의 민족 우월주의 이데올로기를 무력화하는 중심에 계신다. 다니엘은 단지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국의 왕에게 증거하고 있다. 다니엘이 해석한 글자의 뜻은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교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담고 있다.¹⁴⁷ 벨사살 왕은 자신의 제국이 몰락하여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다니엘의 불길한 해석에도 그가 다니엘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포상을 준다. 그는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 로 삼는다.¹⁴⁸ 이렇게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 덕분에 큰 권세와 명성을 얻게 된다.

다니엘 5 장 30 절에서 묘사되는 벨사살의 죽음은 제국의 흥망성쇠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¹⁴⁹ 다니엘 5 장 전체를 통(通)으로 읽을 때, 제국에 저항하는 탈식민주의 전략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벨사살의 교만함을 심판하시는 주권자로서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여섯째, 다니엘 6 장은 메대 사람 다리오를 등장시키고 있다. 그는 이전 바벨론 제국을 통치했던 벨사살의 죽음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왕이다. 그는 자기 뜻대로 고관 백이십 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다니엘은 그 제국의 세 총리 중의 가장 뛰어난 총리였다.¹⁵⁰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제사장 나라의 수호자 다니엘은 제국이 관료들의 모함과 시기와

¹⁴⁶ 단 5:22-23.

¹⁴⁷ Goldingay, *Daniel: Word Biblical Commentary*, 115-116.

¹⁴⁸ 단 5:28-29.

¹⁴⁹ Howe, *Daniel in the Preterists' Den*, 168-169.

¹⁵⁰ 단 6:2-3.

질투의 대상이었다. 다니엘은 제국의 관료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소유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에게 충성을 다했고 왕에게 인정받았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¹⁵¹

다니엘을 시기한 제국의 고관들과 관료들은 그가 왕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율법에 반하는 금령을 제정하게 만들었다. 즉 다니엘로 하여금 왕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그들은 다니엘과 왕 사이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게 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¹⁵²

다리오 왕은 어리석게도 제국의 관료들이 자신과 다니엘 사이의 관계를 불화하게 만들기 위해 금령을 제정하도록 했던 그들의 모략을 인식하지 못했다.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보면 관료들의 제안이 제국 안에서 살고 있는 그 누구든지 왕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다리오 왕은 메대와 바사의 금령을 온 제국의 사람들에게 반포한다.¹⁵³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관료들의 예상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¹⁵¹ 단 6:4.

¹⁵² 단 6:5-7.

¹⁵³ 단 6:8-9.

않는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¹⁵⁴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스미스-크리스토퍼(Daniel L. Smith-Christopher)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을 두고 제국의 정책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Civil Disobedience)의 한 예로 평가한다.¹⁵⁵

다니엘은 삼십 일 동안, 자신의 기도 소리를 숨기고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기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이다.¹⁵⁶ 다리오 왕이 그를 구원하려고 했지만, 왕 자신도 정해진 금령을 변경할 수 없었기에 다니엘은 결국 사자 굴에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죽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다.

왕의 금령을 지키는 것보다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 중시했던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무 해도 받지 않았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¹⁵⁷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제사장 나라의 법이 제국의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던 사례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제사장 나라의 법을 고수했던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이다.

¹⁵⁴ 단 6:10.

¹⁵⁵ Smith-Christopher, *The Book of Daniel*, 768; David A. Leiter, *Neglected Voices: Peace in the Old Testament* (Scottsdale: Herald Press, 1989), 41-50.

¹⁵⁶ 단 6:10-11.

¹⁵⁷ 단 6:22.

이로써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제국의 힘은 무력화되었다. 더불어 다리오 왕은 전에는 알지 못했던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¹⁵⁸

다니엘 6 장은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국의 왕 다리오는 다니엘을 죄 없이 죽이려 했던 참소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끌어다가 죽이도록 사자 굴에 던져버린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 뜨렸더라.”¹⁵⁹ 이 사례는 제국을 넘어서는 제사장 나라의 우위성(優位性)을 확인시켜 준다. 이후 다리오 왕은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언어가 서로 다른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에 조서를 내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¹⁶⁰

흥미롭게도 다리오 왕은 제사장 나라의 수호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 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¹⁶¹

¹⁵⁸ Howe, *Daniel in the Preterists' Den*, 188.

¹⁵⁹ 단 6:24.

¹⁶⁰ Tanner, *Daniel: Evangelical Exegetical Commentary*, 393-394.

¹⁶¹ 단 6:26-27.

다리오 왕의 조서 내용은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특징에 있어 뚜렷한 대조를 증명해 보인다. 제국은 유한하지만, 제사장 나라는 영원하다. 제국의 법보다 제사장 나라의 법을 중시하고 이에 순종했던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형통하였다.¹⁶² 탈식민주의 전략으로 다니엘 3 장 전체를 통(通)으로 읽는다는 것은 제국의 민족 우월주의 이데올로기를 헛된 망상으로 폭로하고 이와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제사장 나라의 위대한 가치는 크게 드러내는 것이다.

3.3 제사장 나라의 일꾼들과 제국의 수호자들

고대 제국은 약소민족들을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는 공성전과 노예화 및 일련의 식민지화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을 문명화의 사도라고 자신들을 정당화했다. 제국의 침략과 식민지 전략의 당위성은 덜 선진화된 미개인들을 계몽시키는데 두고 있다. 제국의 수호자들은 피제국주의자들을 더 좋은 환경과 조건 아래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자신의 침략을 정당화한다.¹⁶³ 그러나 고대 제국이 추구했던 식민주의 교육과 그 전략은 제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한 자원을 양성하는 데 있었다.

모든 제국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니엘 1-6 장은 제국이 추진했던 식민주의화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식민주의 교육정책의 실패와 제국 수호자들의 어리석음을 폭로한다.

¹⁶² 단 6:18.

¹⁶³ Albert J. Raboteau, *Slave Religion: The Invisible Institution in the Antebellum Sou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100; Eric Hobsbawn, *On Empire: America, War, and Global Supremacy* (New York: Pantheon, 2008), 8; C. Johnson, *Dismantling the Empire: America's Last Best Hope* (New York: Metropolitan, 2010), 89.

그뿐만 아니라 탈식민주의 전략은 제사장 나라의 수호자들을 제국의 수호자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우수한 사람들인지를 잘 드러낼 것이다.

첫째, 다니엘 1 장은 1-6 장의 전체 가운데 서론에 해당한다. 다니엘 1 장은 피지배 민족을 대상으로 벌인 제국의 식민지 교육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제국이 추진하는 식민지 교육의 목적은 포로민 중에서 인재를 선택하고 제국에 필요한 도구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다니엘 1 장 3-5 절은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화 과정을 요약해 준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삼 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¹⁶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많은 포로민들 중에 바벨론 제국 왕의 신하 아스부나스에 의해 선택받았다. 즉 그들은 식민지 교육의 대상이 된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 교육과정을 통해 왕궁에서 부여되는 일을 하도록 바벨론 제국의 하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능하고 미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국으로부터 선택받고 계몽의 대상자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니엘 1 장 4 절에 보면, 그들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많은 무리

¹⁶⁴ Chia, “On Naming the Subject,” 174-177.

중에서 선택받은 것이다.¹⁶⁵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이미 설만 소년들”이었기 때문이다.¹⁶⁶

유다 포로민 출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서 활동하려면, 유다 민족의 학문과 히브리어가 아니라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교육을 필요로 했다.¹⁶⁷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어야 할 음식조차 바벨론 왕이 명령에 따라 정해진 음식을 먹게 되어 있었다.¹⁶⁸

제국의 식민주의 전략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정체성을 바벨론의 사람들로 만드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제국의 종교와 문화와 언어를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들의 이름 또한 바벨론식으로 개명된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¹⁶⁹

호미 바바의 탈식민주의 이론(양가성, 잡종성, 흉내 내기)에 따르면 바벨론의 식민주의 전략은 바벨론 제국을 강화하는 일보다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다. 예를 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다 민족이면서 동시에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한다. 이중적인 정체성(hybrid identity)을 가진다. 유다 민족으로 살아왔던 그들이 완전히 바벨론 사람의 정체성으로 탈바꿈된다는 어려운 일이다.

바바 이론에 따르면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식민지 교육은 제국의 존재 기반을 약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어느 상황에서는 바벨론의 법을 존중하고 따라 살면서도, 또 다른 상황에서는 유다 민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 제국의 통치 속에서 그들의 법을 따라가야 하지만 여호와

¹⁶⁵ Tanner, *Daniel: Evangelical Exegetical Commentary*, 137-138.

¹⁶⁶ 단 1:4b.

¹⁶⁷ 단 1:4c.

¹⁶⁸ Tanner, *Daniel: Evangelical Exegetical Commentary*, 142-148; 단 1:5.

¹⁶⁹ Collins, *Danie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140-141; 단 1:7.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사장 나라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들의 불안정한 이중적 정체성은 제국의 정책에 반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들은 식민지 교육을 통해 갈대아 언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유다 민족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국의 언어까지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언어를 사용하면서 제국 내의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선포하며 제국의 공성전과 비인간화와 민족 우월주의에 저항할 수 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국의 식민지 교육을 받은 이후에 이 과정에서 습득한 바벨론 지식은 제국의 힘을 해체하고 위협할 수 있는 탈식민주의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이 호미 바바가 말하는 양가성(兩家性)의 개념이다.¹⁷⁰

제국의 언어는 양가적 특성을 갖는다. 먼저 언어는 피제국주의자들을 통제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의 유용한 도구가 된다. 하지만 제국의 언어를 모방하는 것, 즉 제국의 언어를 따라 하는 것은 결국 피제국주의자들이 제국주의자들에게 저항하는 데 필요한 탈식민주의 전략의 도구가 된다.¹⁷¹ 피지배자들이 제국주의자들을 흉내 내고 따라 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피제국주의자들의 경계와 구분이 모호해질 때 제국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의 법을 잘 습득하고 역으로 제국의 약점을 파악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피제국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저항하고 전복하려면 제국의 언어와 학문과 문화를 역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¹⁷⁰ John McLeod, 『탈식민주의 길잡이』 박종성 외 편역(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3), 84, 86-87, 89-91, 93, 101, 128, 130, 210-211.

¹⁷¹ Ibid., 46-47, 85-86, 90-92.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삼 년이라는 제국의 식민지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 갈대아 언어와 음식문화와 바벨론 학문을 배웠다. 자신의 이름들은 바벨론식 이름들로 개명되었다. 식민지 교육과정은 제국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탈식민주의 도구와 자료가 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호미 바바의 흉내 내기(mimicry)이론에 기초하여,¹⁷²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국의 언어와 문화 및 학문을 배웠던 삼 년의 식민지화 과정을 탈식민주의 전략의 습득과정으로 이해한다.

본 연구는 바벨론 제국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국의 식민지화 교육과정을 통하여 완전히 제국의 추종자로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음의 예들은 이것을 증명해 준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¹⁷³ 이유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사장 나라의 법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벨론의 음식문화가 유다 민족의 음식문화를 포기하게 만드는데 역부족이었다. 바벨론의 음식문화보다 유다의 음식문화가 훨씬 뛰어난 사실이 증명된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¹⁷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의 식민지 교육을 받기 이전부터 우수한 유다 민족의 인재들이었다.¹⁷⁵ 식민지 교육과정이 그들을 문명화된 사람들로 변화시킨 것이

¹⁷² Homi K. Bhabha,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나병철 역 (서울: 소명출판, 2002), 177-191.

¹⁷³ Smith-Christopher, “The Book of Daniel,” 730-732.

¹⁷⁴ 단 1:12-15.

¹⁷⁵ Towner, *Daniel: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21.

아니다. 바벨론 식민지 교육과정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과 문화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게 된 제국의 식민지 교육과정은 오히려 탈식민주의 전략의 원천이 되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왕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학문과 지혜 및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¹⁷⁶

고대 제국은 약소국의 나라와 민족을 공성전(攻城戰)¹⁷⁷ 침략과 약탈이라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제국의 수호자들은 미개한 피제국주의자들을 문명화하기 위해 공성전과 식민주의 교육을 실시한 것이 아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우에서처럼, 그들은 피제국주의자들의 신분이었지만, 제국의 수호자들보다 십 배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 아니라.”¹⁷⁸ 따라서 문명화의 대상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지혜자들이다.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효율적인 제국의 경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바벨론의 교육을 설명한다: “다니엘을 끌어오라는 명령 속에는 바벨론 제국 집중화정책과 포로 인질 교육이 들어 있었습니다. 즉 다니엘에게 바벨론식 이데올로기 교육을 해서 예루살렘을 지배하겠다는 바벨론 제국의 경영 키워드 ‘교육’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¹⁷⁹

¹⁷⁶ 단 1:17.

¹⁷⁷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78.

¹⁷⁸ 단 1:20.

¹⁷⁹ 조병호, 『성경과 고대정치: 고대 제국 왕들의 통치 조서와 명령들』(서울: 통독원, 2021), 288.

바벨론 제국의 식민주의 교육과정은 제국의 수호자들의 어리석음을 역으로 폭로하는 탈식민주의 전략의 습득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국의 수호자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지식에 비해 열등한 존재들이다. 제국의 민족 우월주의는 거짓된 주장이다. 또한 자신들을 자칭 문명화 작업의 사도로 포장했던 제국주의자들의 역할은 실현 불가능한 헛된 망상으로 전략하고 만다.

둘째, 다니엘 2 장은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두려움에 떠는 유약한 존재이며 제국을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지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어리석은 제국의 왕으로서 묘사한다.¹⁸⁰ 또한 2 장은 제국의 왕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는 제국 지혜자들의 무능함을 드러낸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은 제국의 민족 우월주의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한다. 한 예로,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꿈 해석의 도움 없이는 번민에서 벗어날 수 없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¹⁸¹

다니엘 2 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부각한다. 자신의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제국 왕의 모습이 나타난다. 자기 능력은 한계가 있어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 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국의 왕은 자신을 섬기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다 불렀지만, 그들은 꿈의 내용과 꿈을 해석해 낼 수 없었다.¹⁸²

흥미롭게도 느부갓네살은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그 해석을 내놓겠다는 제국 지혜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¹⁸⁰ Sharon Pace, *Daniel: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Smyth & Helwys, 2008), 49-53.

¹⁸¹ 단 2:1-3.

¹⁸² Newsom, *Daniel: A Commentary*, 66-68.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¹⁸³

이 같은 느부갓네살 왕의 답변은 왕 자신과 제국의 수호자들의 어리석음을 동시에 드러낸다. 왕은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꿈을 해석하라는 무모한 명령을 했다.¹⁸⁴ 또한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꿈의 내용을 왕에게서 듣게 되면 꿈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착각과 자만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섬기고 있는 바벨론 제국 지혜자들의 무능과 불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¹⁸⁵ 이 사실로부터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그 누구든 자신에게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국의 지혜자들은 왕이 꿈의 내용을 먼저 말해주면 그 해석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왕은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자신이 꾸는 꿈의 내용을 먼저 말해보라고 한다. 왕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면, 그는 지혜자들이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꾸며 낼 것이라고 믿는다.

스프링클(Joe M. Sprinkle)은 왕의 과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끝나길 바라보면서 시간을 벌려 했다고

¹⁸³ 단 2:7-8.

¹⁸⁴ Newsom, *Daniel*, 68.

¹⁸⁵ 단 2:9.

해석한다.¹⁸⁶ 왕은 이렇게 제국 지혜자들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는 지혜자들의 무능력을 폭로하고 있다.

다니엘 2 장 10-11 절은 지혜자들의 한계를 드러낸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자가 없나이다 한지라.”¹⁸⁷

제국에서 왕을 보좌하는 지혜자들의 능력과 명예는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된다. 왕이 자신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지만,¹⁸⁸ 이 또한 지혜자들의 무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이다. 이로써 느부갓네살과 지혜자들은 그들 사이에 있어야 하는 상호협력 및 의사소통의 한계를 드러낸다. 변명만 늘어놓는 지혜자들 때문에 분노한 느부갓네살은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령한다.¹⁸⁹

모든 제국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은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제국의 통치자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¹⁹⁰ 그의 판단력이 심각한 결함을 가진다. 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왕에게 충성을 다해왔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고 나면,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도움 없이 앞으로 효율적인 제국의 경영이 가능한가?

이처럼 다니엘 2 장은 느부갓네살 왕 스스로가 제국을 경영하는 능력의 부재를 증명하고 있다. 이로써 민족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왕으로서의 제국의 명예는

¹⁸⁶ Sprinkle, *Daniel: Evangelical Biblical Theology Commentary*, 73.

¹⁸⁷ 단 2:10-11.

¹⁸⁸ Gangel, *Daniel: Holman Old Testament Commentary*, 42-43.

¹⁸⁹ 단 2:12.

¹⁹⁰ Aaron B. Hebbard, *Reading Daniel as a Text in Theologica Hermeneutics* (Eugene: Pickwick, 2009), 78-79.

실추된다. 왕의 어리석음과 지혜자들의 무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등장과 그들의 활약을 예고한다: “왕의 명령이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¹⁹¹

바벨론 왕은 지혜자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분노한 나머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제국의 실패한 지혜자들과 함께 죽어야 하는 위기 상황에 놓였다.¹⁹² 그러나 다니엘은 무능한 제국의 지혜자들과 달리 지혜롭게 이러한 상황에 대처한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나라.”¹⁹³

또한 제국의 수호자들과 제사장 나라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현격한 대비를 보여준다. 다니엘은 어리석은 제국의 왕과 그의 지혜자들과 다르게 근위대장 아리옥이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가려할 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를 설득하여 마음을 돌이켜서 꿈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을 벌 수 있었다.¹⁹⁴

자신들에게 시간을 달라고 왕에게 요청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에게 거절당했지만,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다. 다니엘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된다.¹⁹⁵

¹⁹¹ 단 2:13.

¹⁹² Tanner, *Daniel: Evangelical Exegetical Commentary*, 170-171.

¹⁹³ 단 2:14-15.

¹⁹⁴ Longman III, *Daniel: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78-79.

¹⁹⁵ 단 2:18-19.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¹⁹⁶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의 꿈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죽을 위기에 처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살려낸다.”¹⁹⁷ 제국의 왕은 제국의 지혜자들을 죽이려 했지만, 포로민 출신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의 지혜자들을 살려낸다. 이로써 민족 우월주의에 기초한 제국의 강한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다니엘은 제국의 왕 앞에서 담대하게 제사장 나라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선포한다: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¹⁹⁸ 다니엘은 제사장 나라의 증언자로서 제국의 지혜자들은 결코 왕이 꾸민 꿈의 내용을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다고 증언한다.¹⁹⁹

다니엘의 역할은 왕과 지혜자들의 무능력을 부각함으로써 제국의 민족 우월주의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 과정을 통하여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다. 바벨론 제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최고의 신이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 때문이다. 즉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힘과 제국의 신들 도움으로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된 것이 아니다. 다니엘은 그가 왕의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 덕분이라고 확신한다.”²⁰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느부갓네살 왕과 그 이후에 등장하는 제국들과

¹⁹⁶ 단 2:20-23.

¹⁹⁷ Longman III, *Daniel: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79-83; 단 2:24.

¹⁹⁸ 단 2:27-28.

¹⁹⁹ Tanner, *Daniel: Evangelical Exegetical Commentary*, 185-187.

²⁰⁰ 단 2:37.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제국과는 달리 제사장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²⁰¹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명령대로 꿈의 내용과 함께 꿈을 해석해 낸다. 여기서 다니엘의 역할은 무엇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혜자들의 생명을 살려낸다. 꿈 문제를 해결 받은 왕은 다니엘 앞에 다음과 같이 경의를 표한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²⁰²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린 행위는 제국이 제사장 나라에 항복을 의미한다. 스프링클(Joe M. Sprinkle)의 주장처럼, 다니엘 앞에 보인 바벨론 왕의 행동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낸 것이다.²⁰³ 이로써 제사장 나라의 위대함과 그 가치가 드러난다. 다니엘 2 장은 제사장 나라의 지혜자들과 제국의 지혜자들 사이의 대결 구도에서 제사장 나라의 승리를 선언한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사장 나라를 바벨론 제국에 세워가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다. 그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제국 안에서 높임을 받도록 하는 일이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²⁰⁴ 뉴섬(Carol A. Newsom)은 제국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들의 신(God of gods)이라고 고백한 것은 여호와가 모든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았다.²⁰⁵

²⁰¹ 단 2:44.

²⁰² 단 2:46.

²⁰³ Sprinkle, *Daniel: Evangelical Biblical Theology Commentary*, 86.

²⁰⁴ 단 2:47.

²⁰⁵ Newsom, *Daniel: The Old Testament Library*, 84.

왕의 꿈 문제를 해결한 다니엘은 제국으로부터 큰 보상과 함께 모든 지혜자 어른의 위치에 오른다.²⁰⁶ 이 때문에 그는 제국의 왕궁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더불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관직에 오른다. 다니엘 2 장을 탈식민주의 독법과 통(通)으로 읽을 때, 다니엘은 제사장의 나라와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한다. 이로 인하여 유다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은 유지되고, 제국의 민족 우월주의가 해체된다.

셋째, 다니엘 3 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사건을 소개한다. 루카스(Ernest C. Lucas)는 비록 왕이 만들어 세우게 한 것이 확실히 어떤 우상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니엘 3 장 12 절의 갈대아 사람들의 말과 14 절의 왕의 말을 근거로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god)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았다.²⁰⁷ 페이스(Sharon Pace)는 이 신상은 바벨론의 마르дук(Marduk)신이나 느보(Nebo)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²⁰⁸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십계명에서 명시된 것처럼 어떤 신상도 만들면 안 되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⁰⁹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

다니엘 3 장에서 어떤 우상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는 제사장 나라의 법과 신상을 만들어 신상 앞에 절하는 제국의 법 사이의 대결이 펼쳐진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한 이들은 제국의 고관들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²⁰⁶ Ibid., 85.

²⁰⁷ Lucas, *Daniel: Apollos Old Testament Commentary*, 88.

²⁰⁸ Pace, *Daniel: Smyth & Helways Bible Commentary*, 90.

²⁰⁹ 김용규, 『데칼로그』 (서울: 포이에마, 2015), 57-198.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²¹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 등 모든 악기 연주가 들려질 때 낙성식에 참여해서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²¹¹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제사장 나라의 법을 포기하지 않았다.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직접 금 신상에 절하여 죽음을 피하라고 끝까지 그들을 권면하고 설득을 하지만, 제사장 나라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은 흔들림이 없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²¹²

제국의 힘을 상징하는 풀무불의 위협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과 믿음을 이기지 못했다. 다니엘 3 장은 왕의 명령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제국에 무폭력으로 저항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묘사하고 있다.²¹³ 이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그의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풀무불을 평소보다 칠 배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칠 배나 뜨겁게 하라.”²¹⁴

²¹⁰ 단 3:2.

²¹¹ 단 3:6.

²¹² 단 3:17.

²¹³ Smith-Christopher, “The Book of Daniel,” 748; Leiter, *Neglected Voices: Peace in the Old Testament*, 45.

²¹⁴ 단 3:19.

여기서 칠의 숫자를 완전한 수로 이해할 때, 스테인만(Andrew E. Steinmann)에 따르면, 이 구절의 의미는 “더 이상 뜨겁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풀무불을 뜨겁게 했다” 라는 말로 설명한다.²¹⁵ 이것은 제국이 쓸 수 있는 모든 힘의 역량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 일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분명해진다. 또한 제국의 폭력과 위압에 저항하여 얻어낸 승리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의 일꾼들은 제국 안에서 큰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앞서 다니엘 2 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도움을 받아 그의 꿈과 해석을 알게 되었다. 그는 왕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앞에 엎드렸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었던 인물이다.²¹⁶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3 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다 잊었고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으로 돌아갔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²¹⁷

이런 상황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제사장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기만 하면 부귀와 권력과 명예를 계속 누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주저 없이 선택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제사장 나라의 증언자들이요 충성된 일꾼들이다.

²¹⁵ Steinmann, *Daniel: A Theological Exposition of Sacred Scripture*, 192.

²¹⁶ 단 2:46-47.

²¹⁷ 단 3:15.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떨어졌지만 제사장 나라의 충성된 일꾼들로서 타죽지 않았다. 오히려 풀무불에 그들을 던지기 위해 잠시 붙들고 있었던 집행한 자들은 타죽고 말았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²¹⁸

이 풀무불 사건은 제사장 나라와 바벨론 고대 제국의 대결에서 제사장 나라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사장 나라의 일꾼들에게 형을 집행했던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타죽었고, 죽었어야 했던 형벌의 대상자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와 함께 풀무불 가운데 다녔다. 스테인만(Andrew E. Steinmann)은 “신들의 아들”이란 천사로 이해되기도 하고 신들의 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라고 주장했다.²¹⁹

이렇게 풀무불에서 죽지 않고 살아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제사장 나라의 승리를 상징한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²²⁰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는 제국의 힘이 제사장 나라의 힘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제사장 나라의 충성된 일꾼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위대함을 제국의 한복판에서 전파한 선교사들이다. 이로 인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포로민 출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인다.

²¹⁸ 단 3:22.

²¹⁹ Steinmann, *Daniel: A Theological Exposition of Sacred Scripture*, 190.

²²⁰ 단 3:27.

이뿐만이 아니다. 제국의 왕은 제사장 나라를 바벨론 제국 내에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조서를 내린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 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²²¹ 흥미롭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제사장 나라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모든 백성과 나라에 각 언어로 조서를 내린다. 왕의 조서는 다니엘의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에 대해 찬양하는 내용이다. 4장 전체를 통(通)으로 읽을 때, 바벨론의 어떤 신들도 거론되지 않는다.

그 조서는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고완(Donald E. Gowan)에 따르면 다니엘 4장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주권아래 자신이 제국을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²²²

다니엘 4장은 그 시작부터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대결구도에서 제사장 나라의 승리를 선언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²²³

4장의 서론에 해당하는 1-3 절의 내용은 4장 34-35 절의 결론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제사장 나라의 승리를 선포한다: “....내가

²²¹ 단 3:29.

²²² Gowan, *Daniel: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ies*, 73.

²²³ 단 4:2-3.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²²⁴

느부갓네살은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제사장 나라는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제국과는 다르다. 제사장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다. 그는 제사장 나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고 증언한다. 이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의 태도는 마치 그가 제국의 왕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일꾼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는 또한 그의 체험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²⁵ 교만하여 왕의 권좌에서 내려와 겸손해진 후에 다시 왕위에 오르는 과정속에서 느부갓네살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 것이다.

다니엘 4 장은 2 장에서와 보았던 것과 같이 느부갓네살은 다시 꿈을 꾸고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²²⁶ 그는 이번에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불러 모았다. 왕은 자신의 꿈의 내용을 지혜자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그들은 꿈의 내용을 듣게 되었음에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

이를 두고 스프링클(Joe M. Sprinkle)은 다니엘 4 장은 다니엘 2 장의 유사한 상황의 반복이라고 보았다.²²⁷ 왜냐하면 다니엘 4 장과 2 장은 왕이 자신의 꿈 내용을

²²⁴ 단 4:34-35.

²²⁵ 단 4:29-37.

²²⁶ Pace, *Daniel: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126.

²²⁷ Sprinkle, *Daniel: Evangelical Biblical Theology Commentary*, 116.

지혜자들에게 알려주었던 그렇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두 상황 속에서 꿈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연약함은 물론이고 지혜자들의 무능과 무지가 동시에 폭로된다: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지 못하였느니라.”²²⁸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내지 못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바 있었다. 다니엘 2장에서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해석을 내라고 했었다. 그러나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내용을 지혜자들에게 다 알려준 후에 그 해석을 자신에게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²²⁹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해석을 내겠다고 했던 다니엘 2장에서 보여준 바벨론 지혜자들의 당당함은 다니엘 4장에서 찾아볼 수 없다. 왕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었는데도 그들은 해결하지 못했다.

이로써 이전에 다뤘던 다니엘 2장의 상황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즉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자기 꿈의 내용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니엘 4장에서 지혜자들은 왕의 꿈 내용을 들었지만 해석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니엘 4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은 흥미롭게도 다니엘 2장과 달리 꿈 해석을 내지 못하는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지혜자들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하더라도 다니엘은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다면 다니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왕에게 있었던 이유는

²²⁸ 단 4:7.

²²⁹ 단 4:10-17.

무엇인가? 타너(J. Paul Tanner)는 제국의 왕이 다니엘 2장에서 보여주었던 다니엘과 자신 사이의 경험을 잊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해한다.²³⁰

다니엘은 왕의 꿈 내용뿐만 아니라 해석을 함께 해결한 능력자이다. 그러므로 왕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는 월등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²³¹

왕은 다니엘 4장 8절에서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들과 확실히 다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지혜자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왕은 제사장 나라를 수호하는 다니엘만큼은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이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²³²

다니엘 4장은 제국의 민족 우월주의 이데올로기를 철저히 와해(瓦解)시키고 있다. 4장 18절에서 “은밀한 것”은 제국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간주된다. 이는 단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제사장 나라의 충성된 일꾼 다니엘만이 해결하고 다룰 수 있는 영역이다.²³³ 다니엘 2장과는 다르게 다니엘 4장에서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는 왕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꿈의 해석을 내겠다고 말도 하지 않는다. 다니엘은 2장과는 다르게,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²³⁰ Tanner, *Daniel: Evangelical Exegetical Commentary*, 275.

²³¹ Walvoord, *Daniel: The John Walvoord Prophecy Commentaries*, 125; 단 4:9.

²³² 단 4:18.

²³³ 단 4:19-27.

메삭과 아벳느고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다니엘 4장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꾸는 꿈의 내용을 듣자마자 한동안 놀라서 번민했을 뿐이다.²³⁴ 이후에 바로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한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²³⁵ 지혜자들은 왕의 꿈을 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따라서 제국은 자신들을 문명의 사도들로 포장하고 반면에 피제국주의자들을 미개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

다니엘은 제사장 나라의 증인이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기 때문이다: “....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²³⁶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교만과 오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라고 조언한다.²³⁷ 제국은 지금껏 공성전을 통해 침략과 약탈 그리고 타민족의 노예화와 같은 불의를 그치고 공의를 행해야 한다. 제국은 가난한 자, 즉

²³⁴ Longman III, *Daniel: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120.

²³⁵ 단 4:19.

²³⁶ 단 4:25-27.

²³⁷ Newsom, *Daniel: A Commentary*, 145.

약한 민족과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²³⁸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체계이다. 다니엘은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제국의 왕에게 가르치고 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어리석게도 과소평가했다. 느부갓네살은 제국이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교만하여 자신을 높였다.²³⁹ 이로 인하여 그는 일정 기간 동안 왕위에 쫓겨난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²⁴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는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유배당하는 치욕과 굴욕을 경험한다. 마치 제국의 왕이었던 그가 포로민의 위치에 처한 것이다. 이로써 느부갓네살은 제사장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처럼 일곱 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²⁴¹

느부갓네살은 여호와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온 나라와 민족과 자신이 속한 제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²⁴² 그의 고백을

²³⁸ Ibid.

²³⁹ Greidanus, *Preaching Christ from Daniel: Foundations for Expository Sermons*, 139.

²⁴⁰ 단 4:30-31.

²⁴¹ 단 4:32.

²⁴² Gowan, *Daniel: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y*, 81.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의 힘과 민족 우월주의의 이념적 가치를 약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니엘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그의 말을 경청하지 못했다. 그는 제사장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 다니엘 통해 꿈의 해석을 미리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다. 또한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다. 그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자신의 왕위 자리에서 쫓겨나는 수치를 당한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²⁴³ 그는 왕위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고난을 받았다. 밀러(Stephen R. Miller)는 느부갓네살 왕이 동물처럼 변화된 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다른 인간들보다 월등하다고 스스로 자신했던 왕이 평범한 인간보다 못한 단계로 떨어져 버린 것이다.”²⁴⁴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겸손의 자리로 내려온다. 이로 인하여 자신의 왕위 자리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는 제사장 나라의 왕 여호와 하나님 덕분에 왕위가 회복되었다. 다니엘 4 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이를 감사하며 찬양한다: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그때에 내게로 돌아왔고....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²⁴³ 단 4:33.

²⁴⁴ Miller, *Daniel: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143.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자는 자를 능히 낮추심이라.”²⁴⁵ 다니엘 1-6 장을 넘어 성경 전체를 통(通)으로 읽는 경우에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주의 근원이시며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신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²⁴⁶

공성전(攻城戰)과 같은 침략을 통해 약한 자와 가난한 나라와 민족을 노예화했던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의해서 철저히 포로민과 패배자로 전락하였다. 그는 광야에서 사람 아닌 짐승과 같은 삶을 경험했다. 느부갓네살은 제사장 나라의 법에 철저히 굴복하게 된 것이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고난을 받고 회심의 기간을 거친다.²⁴⁷ 이렇듯 겸손의 자리로 내려온 그는 제사장 나라의 가치 체계를 배우게 된다. 따라서 제국의 민족 우월주의는 무력화된다.

다섯째, 다니엘 5 장은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의 무능과 바벨론 왕국의 지혜자들의 우매함을 동시에 폭로한다. 벨사살의 부친은 느부갓네살 왕이다.²⁴⁸ 벨사살은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탈취해 온 각종 그릇들을 가져오게 했다. 그는 귀족들과 왕후와 후궁들을 데리고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제국의 왕인지를 바로 보여준다.

타우너(W. Sibley Towner)는 다니엘 5 장 22 절을 근거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4 장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어리석게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²⁴⁹ 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사용되는 그릇들을 가지고 우상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술을

²⁴⁵ 단 4:34-37.

²⁴⁶ 김영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교육의 연구,” 『신학과 세계』 제 91 집(2017.9), 162.

²⁴⁷ Walvoord, *Daniel: The John Walvoord Prophecy Commentaries*, 138.

²⁴⁸ 단 5:2.

²⁴⁹ Towner, *Daniel: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74.

마시는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²⁵⁰

이렇게 함으로써, 제국의 왕 벨사살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을 모독했다.²⁵¹ 다니엘은 5장은 제국의 왕과 지혜자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묘사한다. 이는 제국의 힘과 권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친지라.”²⁵² 이로써 벨사살은 제국의 왕으로서의 강한 이미지는 상실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초라하고 유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한다.²⁵³

벨사살은 글자를 해석하기 위해 제국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는 글자를 해석하는 자에게 큰 상과 큰 벼슬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제국의 지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²⁵⁴

이처럼 탈식민주의 전략은 제국의 능력과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철저히 노출한다: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²⁵⁰ 단 5:3-4.

²⁵¹ Tanner, *Daniel: Evangelical Exegetical Commentary*, 325-326.

²⁵² 단 5:5-6.

²⁵³ Pace, *Daniel: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166-167.

²⁵⁴ Gowan, *Daniel: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ies*, 87.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 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 주지 못하는지라.”²⁵⁵

다니엘 2장과 4장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제국의 왕은 제국의 지혜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었다. 즉 벨사살은 제국의 지혜자들을 다니엘보다 먼저 불러 글자의 뜻을 해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글자를 해석하는 데 실패했다. 다니엘 5장은 제국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확연히 드러냈다. 5장은 제국의 수호자들과 제사장 나라의 일꾼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제사장 나라의 일꾼으로서 다니엘의 탁월함과 우수성을 확연히 드러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탈식민주의 전략은 제국의 통치자로서의 벨사살 왕과 그의 제국의 관료들은 제사장 나라의 도움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란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²⁵⁶

본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벨사살은 왕으로서의 위엄은 사라졌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번민하고 있었다. 제국의 지혜자들은 손가락이 나타나서 쓴 글자의 뜻을 풀어낼 수 없다: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²⁵⁷

오히려 벨사살이 아닌 그의 왕비는 다니엘을 부르며 글자를 해석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자식과

²⁵⁵ 단 5:7-8.

²⁵⁶ Chapel, *The Gospel According to Daniel: A Christ-Centered Approach*, 91; 단 5:9.

²⁵⁷ 단 5:8.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²⁵⁸

탈식민주의 전략을 가지고 다니엘 5 장을 읽을 때,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보다 어리석은 그 아들의 모습이 노출된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꿈 문제를 해결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업적과 공헌을 기억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제국의 왕으로 묘사된다.

왕비의 증언은 자연스럽게 제국의 지혜자들과 제사장 나라의 지혜자들 사이에서 서로의 능력을 비교하게 만든다. 다니엘은 제국의 지혜자들과는 달리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며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다.²⁵⁹ 다니엘은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묘사된다. 왕비는 다니엘을 신뢰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벨사살은 다니엘 앞에서 제국의 지혜자들과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한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²⁶⁰

왕은 다니엘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간청한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네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²⁶¹ 탈식민주의 전략은 제국의 왕과 그의

²⁵⁸ 단 5:12.

²⁵⁹ Lucas, *Daniel: Apollos Old Testament Commentary*, 131; 단 5:11.

²⁶⁰ 단 5:15.

²⁶¹ 단 5:16.

지혜자들이 다니엘의 도움 없이 결코 글자의 뜻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제국의 민족 우월주의 가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흥미롭게도 다니엘은 왕이 부탁한 과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약속된 상급에는 관심이 없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²⁶² 다니엘이 벨사살의 호의를 거부했던 이유에 대해 스프링클(Joe M. Sprinkle)은 독특한 해석을 주고 있다: “다니엘은 그의 제국이 곧 멸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²⁶³

그러나 본 연구는 다니엘이 신비스러운 문자를 해독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사명이 제사장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벨사살에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니엘 5 장 18 절에서 28 절까지 계속되는 다니엘의 조언은 왕의 교만과 오만함을 폭로하고 제국의 통치자로서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드러냈다. 다니엘 5 장은 벨사살이 제국을 이끌어갈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이처럼 다니엘은 제사장 나라의 선포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벨사살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 알면서도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정도가 아니었다. 벨사살은 가장 큰 죄악인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 타우너(W. Sibley Towner)는 벨사살의 악한

²⁶² 단 5:17.

²⁶³ Sprinkle, *Daniel: Evangelical Biblical Theology Commentary*, 142.

행위를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박해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 세(Antiochus IV Epiphanes)와 연결시켰다.²⁶⁴

다음은 벨사살의 만행을 폭로한 기록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²⁶⁵

벨사살은 그의 부친 왕 느부갓네살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번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어리석고 교만한 왕이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²⁶⁶

벨사살은 그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된다. 반면에 다니엘은 왕의 죽음과 제국의 멸망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으로부터 큰 상과 높은 직위를 받게 된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²⁶⁷

²⁶⁴ Towner, *Daniel: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72;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 세의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Murtaza Ali, “Antiochus IV. Epiphanes Policy towards the Jews and the Maccabean Revolt (175-163 BC),” *Gaziantep University Journal of Social Science* 21.4 (2022): 2469-2478; Philip R. Davies and John Rogerson, *The Old Testament World*, 2nd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96-108.

²⁶⁵ 단 5:22-23.

²⁶⁶ 단 5:26-30.

²⁶⁷ Gangel, *Daniel: Holman Old Testament Commentary*, 152; 단 5:29.

결과적으로 5 장은 두려움에 떨고 빈민하는 제국의 왕으로서의 연약한 모습과 왕의 무능과 그의 지혜자들의 한계를 지적한다. 반면에 제사장 나라를 대표하는 다니엘의 지혜와 그의 뛰어난 능력은 강조했다.

여섯째, 다니엘 6 장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에서 있었던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메대 사람 다리오는 제국의 통치자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등장한다.²⁶⁸ 본 연구는 제사장 나라의 지혜자 다니엘의 활약을 통하여, 자신을 죽이려 했던 제국의 관료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드러낸다.

다니엘은 제국 안에서 살았다. 하지만 제사장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다. 제국의 지배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법에 순종했다. 다리오는 자신의 제국 가운데 고관 백이십 명을 세워 전국을 다스렸다. 그는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²⁶⁹

다니엘은 지혜와 능력의 모든 측면에서 제국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과 제국의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뛰어난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하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²⁷⁰

다니엘은 제국의 식민지 교육을 잘 받은 덕분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것이 아니다. 다니엘 6 장 3-4 절은 다니엘 1 장 4 절에서 언급된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묘사를 다시 생각나게 만든다. 다니엘은 제국의 식민지 교육을 받기 이전부터 흠이

²⁶⁸ Louis F. Hartman and Alexander A. Dilella, *The Book of Dani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5), 197-198.

²⁶⁹ 단 6:1-2.

²⁷⁰ 단 6:3-4.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였다. 밀러(Stephen R. Miller)는 다리우스 왕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다른 관료들과 그 능력 면에서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²⁷¹

포로민 출신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혜자들과 고관들과 총리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는 6 장의 기록은 제국이 추구하는 민족 우월주의의 가치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있다. 다니엘의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제국의 총리들과 다른 관료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음모를 꾸몄다.²⁷²

그들은 다리오와 다니엘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 술수를 부린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니엘의 약점을 알았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²⁷³

이로 인하여 제국의 수호자들, 즉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 이 하나가 되어 제국의 왕 다리오에게 페르시아 제국의 법령에 기초한 한 금령을 세우게 만든다.²⁷⁴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결국 죽이기 위한 제국주의의 전략이다.

제국의 관료들에게 속은 어리석은 왕 다리오가 반포해야 했던 금령은 “곧 이제부터 삼 십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 이다.²⁷⁵ 타너(J. Paul Tanner)에 따르면, 페르시아

²⁷¹ Miller, *Daniel: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178.

²⁷² Ibid., 179.

²⁷³ 단 6:5.

²⁷⁴ 단 6:7a.

²⁷⁵ 단 6:7b.

제국에서 시행된 사자 굴 형벌은 아시리아와 바벨론 등에서 운동경기와 인간사냥의 형태로 고대 제국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었던 사형제도의 성격을 가진다.²⁷⁶

탈식민주의 전략으로 다니엘 6 장을 읽을 때, 제사장 나라의 법이 제국의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제국의 힘으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 굴에 떨어 뜨렸다. 다니엘이 이곳에서 살아남는다면 제사장 나라의 법의 가치를 드러내는 결과가 된다. 제사장 나라를 대표하는 다니엘은 제국의 강요와 위협 아래에서 제사장 나라의 법을 포기하지 않았다.

항상 그가 해왔던 대로,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밀러(Stephen R. Miller)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생활은 열왕기상 8 장 35-48 절의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서 기초하고 있다고 말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²⁷⁷

그는 제사장 나라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저항했다고 볼 수 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면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²⁷⁸

제국의 금령을 어기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행동은 당연히 모사꾼들에게 발각되어 왕이 알게 된다. 다리오 왕은 자신이 내린 금령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라는 사실을 알았다.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한번도 손해를 끼치게 한 적이 없던 다니엘이기에 그가 금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다리오 왕은 심히

²⁷⁶ Tanner, *Daniel: Evangelical Exegetical Commentary*, 373; J. Walton, “The Decree of Darius the Mede in Daniel 6,”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1 (1986): 279-286.

²⁷⁷ Miller, *Daniel: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182; 시 55:17.

²⁷⁸ 단 6:10.

괴로워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나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 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²⁷⁹

다리오의 다니엘을 시기한 제국의 관료들에게 속아 그를 사자 굴에 던질 수밖에 없도록 허락한 어리석은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준다.²⁸⁰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죽게 된다면, 왕과 제국에 손해가 없도록 다리오 왕을 누가 도와서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제국을 경영하고 통치해 나갈 수 있을지 제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제국 관료들의 술수를 간파하지 못했던 페르시아 왕국의 최고 통치자 다리오의 한계를 폭로하는 것이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²⁸¹ 사실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자 했다. 그의 마음을 알았던 관료들은 다리오가 메대-페르시아의 변개할 수 없는 금령의 전통을 고집한 것이다.²⁸²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놀랍게도 다리오의 다니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다리오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²⁸³

다리오의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궁으로 돌아가 밤이 새도록 금식한다.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장면은 다리오 왕이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던 사건이다. 그가 일찍이 다니엘을 향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했던 것으로 볼 때, 다리오의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께

²⁷⁹ 단 6:14.

²⁸⁰ Sprinkle, *Daniel: Evangelical Biblical Theology Commentary*, 159.

²⁸¹ 단 6:15.

²⁸² Sprinkle, *Daniel*, 160.

²⁸³ 단 6:16.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다니엘을 살려 달라고 간구했던 것이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²⁸⁴

제국의 왕은 다니엘 6장 서두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제국의 관료들과 지혜자들보다 제사장 나라의 일꾼 다니엘을 더 신뢰하고 있다. 이로써 제국이 표방하는 민족 우월주의의 가치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 셈이다.

다리오의 다른 총리들보다 다니엘을 그의 제국을 경영하는 데 꼭 필요한 인물로 생각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제국의 왕이 다니엘을 위한 마음과 걱정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 밤이 새도록 잠자기를 마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중요성을 말해준다.²⁸⁵

다리오가 왕의 신분으로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진 이후에도 새벽에 그의 생사를 알기 위해 사자 굴로 달려간 그의 행보는 다니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반영한다. 왕은 사자 굴 앞에서 제사장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애타게 부르며 찾고 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²⁸⁶

다리오의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 계신 분으로 부르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뉴섬(Carol A. Newsom)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살아 계신 하나님’ 으로 칭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²⁸⁴ 단 6:18.

²⁸⁵ Miller, *Daniel: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loration of Holy Scripture*, 186.

²⁸⁶ 단 6:19-20.

사람이 이스라엘과 이방의 힘과 우상들 사이의 긴장 관계에서 종종 고백하는 말”이다.²⁸⁷

다리오의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니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다니엘 6 장 19-20 절에서 나타나는 왕의 말과 행동은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살아 나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볼 때, 다리오의 다니엘이 살아 있기를 바라며, 그가 제국의 경영과 통치를 함께 자기를 도와 함께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즉 다니엘이 없이는 자신의 제국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니엘은 사자 굴 앞에 있는 다리오 왕에게 화답한다. 그는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²⁸⁸ 사자 굴은 제국의 힘을 상징한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증언한다. 제사장 나라의 힘이 제국의 힘을 압도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²⁸⁹ 이 사건은 마치 다리오가 금식까지 하면서 밤이 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이 일은 제사장 나라의 권세와 제국의 권세가 충돌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제사장 나라와 제국의 특성이 각각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제국은 죄가 없는 사람도 처벌한다. 이와 달리 제사장 나라는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한다.²⁹⁰ 뉴섬(Carol A. Newsom)에 따르면, “어리석은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는 있었지만,

²⁸⁷ Newsom, *Daniel: A Commentary*, 199; 수 3:10; 삼상 17:26; 왕하 19:4, 16; 렘 10:10.

²⁸⁸ 단 6:21.

²⁸⁹ 단 6:22a.

²⁹⁰ Newsom, *Daniel*, 200.

다니엘의 행동은 왕에게 전혀 해롭게 하지 않았다. 사자는 그런 다니엘을 죽이지 않았다.”²⁹¹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천사를 동원했다. 제국은 죄 없는 자를 죽이기 위해 사자를 사용한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의 천사는 그런 사자의 죽음의 힘과 권세를 무력화한다. 이로써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제국의 권세는 땅에 떨어지고, 반면에 제사장 나라의 권세는 힘을 얻는다.

다니엘 6 장을 통(通)과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보면, 제국과 제사장 나라 사이의 대결은 다음의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 다니엘은 제국의 힘을 상징하는 사자 굴에서도 살아남았다. 제사장 나라를 수호하는 천사가 제국의 권세를 상징하는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뉴섬(Carol A. Newsom)은 이 사건을 다니엘 3 장에 나온 풀무불 사건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한 일과 같은 반복된 내용으로 이해한다.²⁹²

둘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그를 참소했던 제국의 모사꾼들은 다니엘을 던져 넣었던 사자 굴에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그곳에 던져져 죽게 되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²⁹³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의 죽음을 해석할 때, 독자는 다니엘 6 장에서 제국이 내세우는 민족 우월주의 가치를 무력화했다는 것을 알 수

²⁹¹ Ibid.

²⁹² Ibid.

²⁹³ 단 6:24.

있다. 롱맨(Tremper Longman III)의 지적대로, 다니엘에게 덫을 놓았던 제국의 관료들은 자신의 놓은 덫에 자신들이 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²⁹⁴

셋째, 다니엘과 하나님 여호와와는 다리오 왕과 그 제국의 사람들로부터 크게 영광을 받는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 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²⁹⁵

위 내용은 제사장 나라와 제국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제국은 때가 되면 멸망하지만, 제사장 나라는 영원하다. 다리오 왕의 조서는 자기 힘의 한계를 인정했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의 제사장 나라의 위대함을 드러냈다.²⁹⁶

넷째, 다니엘은 시대를 뛰어넘는 제사장 나라의 지혜와 힘을 보여준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²⁹⁷ 제사장 나라의 충성된 일꾼 다니엘은 제국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인 형통의 복을 누린다.

결과적으로 다니엘 6장 전체를 통(通)과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보면, 제국이 자신을 가리켜 미개 민족을 위한 문명화 사도의 역할을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약소국에 대한 지배와 통치의 정당화 근거가 되는 제국의 민족 우월주의는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²⁹⁴ Longman III, *Daniel: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163.

²⁹⁵ 단 6:26-27.

²⁹⁶ Longman III, *Daniel*, 169.

²⁹⁷ 단 6:28.

3.4 요약

논문 제 3 장은, 제 2 장 논문에서 다루었던 제국의 민족 우월주의가 얼마나 어리석은 이념인지를 철저히 폭로하였다. 민족 우월주의는 제국의 지배와 침략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기반이었다. 또한 제국은 자신을 문명의 사도로 미화했다. 제국주의는 공성전을 통한 수탈 및 식민지화 교육이 피지배자들에게 더 좋은 삶을 제공해 준다는 명분을 앞세운다. 식민주의 전략으로 이해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에 충성하도록 강요받은 것이다.

본 장에서 논의한 탈식민주의 전략은 제사장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작업이다. 본 연구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제국의 민족 우월주의를 해체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탈식민주의 독법은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을 부각했다. 둘째, 본 연구는 다니엘 1-6 장을 통(通)으로 읽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국의 박수와 술사 및 관원 등 제국의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지를 집중해서 드러냈다. 이러한 탈식민주의 전략은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대로서의 저항에 기초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무능을 폭로하고 피지배민족의 상대적 우월성을 증명하는 데 이바지했다.

다니엘 1 장은 여호와가 패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 받으실 승자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명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릇들을 바벨론으로 옮기게 된 것은 제국의 힘이 아니었다. 즉 그것은 제사장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가능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우상 문화에 기초한 음식과 술을 단호히 거절한 셈이다.

제사장 나라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과의 음식법을 놓고 벌인 경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했다. 그들의 승리의 배후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 제사장 나라의 지혜는 제국의 지혜를 능가했다. 다니엘 1 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이 강조했다. 이로써 제국의 민족 우월주의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이 증명된다.

다니엘 2 장은 제국의 민족 우월주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무지함과 유약함과 무능력을 폭로했다. 그는 자신의 꿈 문제로 번민하는 연약한 왕에 불과했다. 제국의 지혜자들은 왕의 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신하들이다.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의 꿈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최고 통치자였지만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는 무력한 제국의 왕이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큰 상을 내린다. 이로써 제국이 지배와 침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세우는 민족 우월주의 이념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다니엘 3 장은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제국의 우상화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자신이 만든 금 신상 앞에 절하게 만들려고 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풀무불이라는 형벌 앞에 무폭력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제국의 힘에 저항한다. 그들은 오직 제사장 나라의 법에 순종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제사장 나라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낸다.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은 실패자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여전히 여호와와는 제국의 어떤 신들보다 강한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상을 내렸다. 다니엘 3 장을 통(通)으로 읽을 때, 제사장 나라의 힘은 제국의 힘을 압도했다. 이로써 제국의 민족 우월주의는 무력화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다.

다니엘 4 장은 다니엘 2 장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다니엘의 지혜로움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반면에 느부갓네살 왕과 제국의 지혜자들의 어리석음은 폭로되었다. 제국의 왕은 꿈의 문제로 번민하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다. 그의 지혜자들 역시도 왕의 꿈 문제를 풀지 못했던 무능한 신하들이다. 반면에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제국의 지혜자들을 해결하지 못했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왕에게 전달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꿈에 담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무능한 존재였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 겸손해진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독자는 제국의 민족 우월주의가 헛된 망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니엘 5 장은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을 여호와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한 인물로 묘사한다. 그는 회개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다.

벨사살은 그의 선친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 잔치를 벌였다. 또한 거룩한 그릇들을 우상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사용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잔치 중에 나타난 신비스러운 글자로 인하여 벨사살은 두려움에 떠는 유약한 존재로 전락한다.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국의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제국의 지혜자들은 암호와 같은 글자를 해독할 수 없는 무능력 존재들이다. 반면에 제사장 나라의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존재로 기억된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글자의 뜻을 해독해 낸다. 벨사살은 불길한 내용을 들었음에도 다니엘이 신비한 글자를 해석했던 것에 대한 답례로 상을 내린다. 왕은 죽게 되었고 바벨론 제국은 멸망한다. 따라서 다니엘 5 장을 통(通)과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읽는 것은 제국의 민족 우월주의를 해체하기 위한 전략이다.

다니엘 6 장은 바벨론 제국 이후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등장시킨다. 제국의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제사장 나라의 다니엘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기 위해 공모했다.

그들은 제국의 왕에게 다니엘이 지킬 수 없는 금령을 제정하게 했다. 그 규례는 삼십 일 동안 사람이나 신에게 그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했던 제국의 법이었다. 참소자들은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알았다.

그들의 예상대로 다니엘은 법을 어긴 죄로 사자 굴에 떨어진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지 않았다. 아니 죽일 수 없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 이 사건을 통해 독자는 제사장 나라의 힘이 제국의 힘을 압도했다는 깨달을 수 있다. 사자는 제국의 힘이고 천사는 제사장 나라의 힘을 상징한다. 제사장 나라의 승리는 이렇게 입증된다. 다니엘을 고발하여 사자 굴에 떨어지게 했던 제국의 수호자들은 다니엘을 죽이려던 그 사자 굴에 떨어져 죽게 된다.

다리오는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금령을 만들게 했던 관료들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속았던 무지한 왕이다. 그는 자신의 무지한 판단으로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지라고 명령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자로부터 살려 주신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대결은 제사장 나라의 승리로 마감했다.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다니엘 6 장을 통(通)으로 읽을 때, 독자는 제국의 왕과 관료들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게 되었다. 이로써 결국 제국의 민족 우월주의 이념이 거짓된 주장인 것이 증명된 셈이다.

제 4 장 신(新)탈식민주의 해석과 제사장 나라의 실천신학: 화해로서의 저항

4.1 탈식민주의 해석의 새 방향: 제사장 나라의 가치

제 4 장에서 연구자는 제국주의자들과 피제국주의자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양자 간의 상생(相生)과 공존(共存) 및 화해(和解)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종래의 학계에서 추구해 온 탈식민주의 해석 방법의 한계를 먼저 지적해야 한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다루어진 탈식민주의 해석은 제국의 억압과 통제 아래 자기 목소리들을 내지 못했던 피제국주의자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탈식민주의 해석방법은 제국이 표방해 왔던 거짓된 민족 우월주의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데 공헌해 왔다.

탈식민주의 해석은 약소민족에 대한 제국의 공성전의 전략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해석방법론은 고대 제국이 추구하는 피지배 민족을 노예화 과정, 즉 인간의 존엄성 파괴와 같은 비인간화를 추구하는 제국주의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탈식민주의 전략은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받은 고통을 제국주의자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²⁹⁸ 왜냐하면 종래의 탈식민주의 전략은 민족 우월주의를 앞세우는 제국에 반대하고 전복시키는데 관심이 가져왔기 때문이다.²⁹⁹

²⁹⁸ David W. Augsburger, *Helping People Forgive* (Louisville: Westminster, 1996), 141.

²⁹⁹ Fernando F. Segovia, "Mapping the Postcolonial Optic in Biblical Criticism: Meaning and Scope," in *Postcolonial Biblical Criticism: Interdisciplinary Intersections*, ed. Stephen D. Moore and Fernando F. Segovia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5), 23-78; Jeremy Punt, "Paul and Postcolonial Hermeneutics: Marginality and/in Early Biblical Interpretation," in

기존의 탈식민주의 해석방법은 억압받은 피제국주의자들을 해방할 목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일에 집중해 왔다.

이렇게 탈식민주의 해석이 반대와 전복으로서의 저항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대립과 반복으로 점철(點綴)된 이전의 상황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본 논문의 제 4 장은 다니엘 1-6 장을 통(通)과 탈식민주의 전략으로 읽고 신(新)탈식민주의 해석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탈식민주의 해석을 반대와 전복으로서의 저항이 아니라 화해(和解)로서의 저항으로 이해할 때, 제국주의자와 피제국주의자 사이에 상호협력과 공존(共存)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 1-6 장을 반대와 전복의 저항이 아닌 화해(和解)로서의 저항에 기반한 새로운 탈식민주의 전략으로 읽을 때 통(通) 방법론과 조화(調和)를 이룰 수 있다. 통(通) 방법론의 권위자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타문화, 타인과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인식 방법이자 총체적인 삶의 방식으로서의 통(通)은 궁극적으로는 타자화된 모든 대상과의 조화를 위한 것, 또한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서 이해와 배려를 기반으로 한 평화를 위한 것이다.³⁰⁰

조병호는 양자 간의 조화(調和)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통(通) 방법론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국 안에서 조화(調和)와 균형을 이루며 삶의 공간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려면, 제사장 나라의

As It Is Written: Studying Paul's Use of Scripture, ed. Stanley E. Porter and Christopher D. Stanley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8), 261-290; Fernando F. Segovia and Mary Ann Tolbert, eds., *Reading from the Place: Social Location and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United States*, vol. 1-2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Fernando F. Segovia and Rasiah S. Sugirtharajah, *A Postcoloni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Writings* (New York: T & T Clark, 2009); Rasiah S. Sugirtharajah, *Asian Biblical Hermeneutics and Postcolonialism: Contesting the Interpretations* (Maryknoll: Orbis Books, 1998).

³⁰⁰ 조병호, 『통이다: Let's 通』, 86.

가치를 실천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즉 그 가치들이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요약될 수 있다: (1) 나눔과 섬김 (2) 용서와 평화 (3) 구원과 선교이다.

조병호가 주장한 것처럼 바벨론 70 년의 징계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 으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재교육의 성격이 강하다.³⁰¹ 70 년의 징계와 재교육을 달게 받고 이를 잘 감당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가 베푸시는 은혜의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³⁰²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쌍방 간의 합을 통한 계약” 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³⁰³

제사장 나라 재교육의 목적은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있다. 조병호는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유월절 어린양으로 시작된 나라 및 나눔과 평화와 용서와 성전과 장자의 초점을 두었다.³⁰⁴ 하지만 본 연구는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나눔과 섬김, 용서와 평화 그리고 제국의 구원과 열방의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의 왕들과 그들이 다스리는 민족과 나라에 제사장 나라와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다니엘 1-6 장의 각 장의 결미에서 제국의 왕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 1-6 장에서 나눔과 섬김, 평화와 용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열방의 구원과 선교를

³⁰¹ 조병호, 『와우! 예레미야 70 년: 징계 70, 교육 70, 안식 70, 제국 수명 70, 새 언약 예고』, 114.

³⁰²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300.

³⁰³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45.

³⁰⁴ Ibid., 47-48.

이루어 가는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물론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논의는 화해(和解)로서의 저항의 사례들이다. 화해는 용서와 평화를 추구한다.³⁰⁵ 또한 화해는 나눔과 섬김을 가능하게 만든다. 역으로 나눔과 섬김은 화해로 가는 길이다. 용서는 화해와 평화의 전제이다. 화해로서의 저항을 실천에 옮길 때 제사장 나라의 구원과 선교는 완성될 수 있다.³⁰⁶

다니엘 1-6 장 전체로 “하나의 이야기”로 통(通)과 신(新)탈식민주의 전략으로 읽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국과 그 제국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가치인 나눔과 섬김, 용서와 평화 그리고 구원과 선교를 실천하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개인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조화(調和)와 균형과 공존과 상생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추구한다.

4.2 나눔과 섬김

조병호는 제사장 나라의 경영방식은 나눔에 기반한다고 보았다.³⁰⁷ 김중기는 성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윤리 가치로서 다음과 같이 나눔과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첫째, 그는 “은혜나 기쁨 같은 것은 여러 사람과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지만, 고통이나 슬픔 같은 것은 서로 나눌수록 작아지는

³⁰⁵ Daniel Philpott, *Just and Unjust Peace: An Ethic of Political Reconcili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2012), 261.

³⁰⁶ Cf. John W. de Gruchy, *Reconciliation: Restoring Justic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49.

³⁰⁷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47.

것”이라고 강조한다.³⁰⁸ 둘째, 김중기는 섬김의 가치를 이렇게 지적한다: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을 마다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는 것처럼 남을 섬기는 사람, 남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 결국은 으뜸가는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³⁰⁹

제사장 나라에 추구하는 섬김과 나눔의 가치는 공성전을 통해 약소민족을 약탈하고 파괴하고 노예화라는 비인간화의 작업과 민족 말살정책을 추구하는 제국의 통치방식에서 찾아보기 힘든 가치이다. 본 연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눔과 섬김의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제국과의 관계에서 제국주의자들과 어떻게 조화(調和)와 균형을 이루어 가며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 다니엘은 1 장은 제사장 나라의 법에 기초한 다니엘의 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사장 나라의 법과 지혜를 제국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섬기고 있다.³¹⁰ 십일 동안 제사장 나라의 음식법에 따라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제국의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보다 더 건강한 모습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³¹¹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사장 나라의 지식과 지혜를 원수의 나라 바벨론 제국에게 제공해 주었다. 제사장 나라의 섬김과 나눔의 실천은 제국의 소년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이로써 제국은 제사장 나라의 음식법을 채택하게

³⁰⁸ 김중기, 『참가치의 발견: 성서윤리의 틀』 (서울: 참가치, 1995), 158; 김중기, “구조론적 분석과 가치체계론,” 『신학논단』 제 17 집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7), 209.

³⁰⁹ 김중기, 『참가치의 발견: 성서윤리의 틀』, 161.

³¹⁰ Pace, *Daniel: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36-44.

³¹¹ 단 1:14-15.

되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³¹² 이와 관련하여 김영래는 그의 논문에서 “음식은 나눔과 교제를 동반한다”고 주장한다.³¹³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사장 나라의 음식법을 제국의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바벨론 제국을 섬긴 셈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 즉 그들의 지혜의 원천은 제사장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에 따라 그들은 제국에서 일어나는 환상과 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³¹⁴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식민지 교육과정을 마치고 바벨론 제국의 왕 앞에 그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³¹⁵

그들의 지혜는 너무나 뛰어나서 모든 제국의 지혜자 중에 으뜸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지혜를 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노라.”³¹⁶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의 조국을 침략하고 파괴했던 제국 바벨론에 제사장 나라의 지혜와 지식을 함께 나누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지식은 제국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간이 된다.

둘째, 다니엘 2장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신비스러운 꿈과 그 해석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제사장 나라의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³¹² 단 1:16.

³¹³ 김영래,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 402. 김영래에 따르면, “식탁은 ‘나눔의 자리’이다. 나눔은 공동체의 존재이유이다. 나눔이 없는 공동체는 존재이유를 잃은 것이다” (405).

³¹⁴ 단 1:17.

³¹⁵ 단 1:18.

³¹⁶ 단 1:20.

지혜로 왕의 꿈을 해결했다.³¹⁷ 이는 제사장 나라가 추구하는 섬김과 나눔의 가치이다.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으로 인하여 번민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때 왕은 제국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 꿈과 그 해석을 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³¹⁸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부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제국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에게 크게 진노했다. 그는 그들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했다.³¹⁹ 이 사건은 무자비한 제국의 경영방식을 노출한다. 더불어 제국 통치방식의 어리석음을 고발한다.

이때 다니엘이 왕의 명령에 따라 모든 지혜자를 죽이려 했던 근위대장 아리옥을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진정시킨다. 이후에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와 함께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간다.³²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다니엘은 왕의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왕에게 설명한다. 바벨론은 다니엘의 조국, 남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이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의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왕과 함께 나누고 왕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 주려 하심입니다.”³²¹ 놀랍게도 다니엘은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왕을 섬기고 있다.

³¹⁷ Miller, *Daniel: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90-102.

³¹⁸ 단 2:10.

³¹⁹ 단 2:12-13.

³²⁰ 단 2:14-23.

³²¹ 단 2:30.

이 급박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왕의 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는 다 죽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 나라의 다니엘이 원수의 나라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을 살려낸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나눔과 섬김의 모습이다. 이 일로 인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높인다.³²²

이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의 재위 시절에 제사장 나라의 증인 다니엘이 그와 그의 제국을 진실하게 섬겼다는 것을 증명한다.³²³ 이로써 다니엘은 나눔과 섬김의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실천한 것이다. 즉 그는 제국 안에서 살고 하는 피제국주의자와 제국주의자들의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추구했다.

셋째, 다니엘 3장에서 제사장 나라의 일꾼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제국의 왕이 만든 금 신상을 절하지 않았다.³²⁴ 모세의 율법, 즉 제사장 나라의 법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제국의 최고 통치자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대가로 인하여 풀무불에 떨어진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난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제사장 나라의 왕 하나님 여호와와 도움으로 풀무불에서 타죽지 않는다. 그들은 다시금 왕의 명령으로 바벨론 제국에서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섬기게 된다.³²⁵ 제사장 나라의 법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보상하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제국에서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이 제국의 사람들과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을 하도록 배후에서 일하신 것이다.

³²² Hartman and Dilella, *The Book of Dani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151.

³²³ 단 2:48-49.

³²⁴ 단 3:12-18.

³²⁵ Baldwin, *Daniel: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117-118.

사건의 전말(顛末)은 다음과 같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통치 하에 있는 백성들과 나라들에 그가 만든 금 신상에 절하도록 명령한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³²⁶ 바벨론 왕의 명령은 제국의 통치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제국의 식민지 전략이었다. 그러나 왕의 이러한 조치는 어리석은 행위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굳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도록 강요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왕에게 이전에도 충성을 다해왔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또한 그들은 제국의 왕이 제사장 나라의 법에 반하는 일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제국의 왕을 잘 섬길 것이라는 사실을 어리석게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금 신상에 절할 수 없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모세의 율법을 포기할 수 없었다. 물론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았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즉 여호와와 그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은 죽지 않았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³²⁷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한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만 아니었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았을 것이다. 풀무불 속에서 구원받은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더욱 높은 명성을 얻게 되었고 여전히 왕을

³²⁶ 단 3:5.

³²⁷ 단 3:25.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된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³²⁸

위 구절에서 암시해 주듯이 그들의 섬김과 나눔의 사역은 바벨론 제국 안에서 계속된다. 이 말은 피제국주의자와 제국주의자 사이에서, 즉 그들 가운데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이 가능했다는 증거이다.

넷째, 다니엘 4 장은 다니엘 2 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번민하게 만들었던 꿈과 관련된 또 다른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³²⁹ 다니엘은 왕을 번민하게 하고 두렵게 만든 꿈을 해석했다.³³⁰ 이것은 다니엘이 제사장 나라의 지혜를 제국의 왕에게 나누고 이를 통하여 제국의 왕을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 먼저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소집한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³³¹ 그러나 그들이 해석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왕은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을 소환한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³³²

제국의 지혜자들은 왕의 꿈을 해석해 낼 수 없었다. 이때 제사장 나라의 다니엘이 보여준 섬김과 나눔은 바벨론 왕의 꿈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니엘이 제사장 나라의 지혜를 제국의 왕과 함께 나눌 때, 그 난해한 꿈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왕이 예상한 대로,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³²⁸ 단 3:30.

³²⁹ 단 4:4-5.

³³⁰ Longman III, *Daniel: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120-122.

³³¹ 단 4:6.

³³² 단 4:9.

해석하는 일에 어려운 것이 없었다.³³³ 제국은 제사장 나라의 지혜가 필요하다.

제국의 경영은 제사장 나라의 나눔과 섬김이 없이 불가능하다.

다니엘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벨론 제국의 왕이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나눔과 섬김의 자세를 보여준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³³⁴

왕이 꾸는 꿈은 다니엘에 의해 해석되었다. 이에 따라 다니엘 4 장에서 제국의 왕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³³⁵

이로써 다니엘 4 장을 통(通)과 신(新)탈식민주의 독법으로 접근할 때 나눔과 섬김은 제사장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니엘은 제사장 나라의 가치인 나눔과 섬김을 통해 원수의 나라 바벨론 제국의 왕이 꾸었던 꿈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제국 안의 모든 사람의 평화적인 공존과 상생을 계속해 나가도록 도왔다.

다섯째, 다니엘 5 장에서 벨사살 왕은 귀족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와중에 그는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고 놀라서 번민하게 되었다.³³⁶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³³³ 단 4:8, 18.

³³⁴ Newsom, *Daniel: A Commentary*, 143-144; 단 4:19.

³³⁵ 단 4:37.

³³⁶ Walvoord, *Daniel: The John Walvoord Prophecy Commentaries*, 147-150.

다니엘만이 이 글자의 뜻을 해석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 주지 못하는지라....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³³⁷ 흥미롭게도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약속한 상을 받을 목적으로 그 글자를 해석하지 않았다.

다니엘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의 지혜를 벨사살 왕에게 나누고 있다. 이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왕을 섬긴 것이다. 벨사살 왕이 번민하고 두려워했던 그 글자의 뜻을 다니엘이 해석을 했다는 것은 벨사살 왕을 이렇게 섬겼다는 뜻이다. 또한 글자의 뜻을 해석했다는 것은 다니엘의 지혜를 벨사살 왕에게 나누었다는 말이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약속대로 제국의 세 번째 서열이 되어 제국을 다스리게 된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³³⁸ 통(通)과 탈식민주의 전략으로 이해할 때, 이 사건은 다니엘의 섬김과 나눔의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반영한다. 또한 어떻게 그가 제국 안에서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의 관계를 실천해 내었는지를 증명했다.

여섯째, 다니엘 6장에서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의 통치 시절에 다니엘은 페르시아 전국을 다스리는 세 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제국의 왕을 섬기고 있었다.³³⁹ 그의 나눔과 섬김의 사역은 어떤 관료들이나 지혜자들을 능가했기 때문에

³³⁷ 단 5:17.

³³⁸ 단 5:29.

³³⁹ Miller, *Daniel: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177-178.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³⁴⁰ 이처럼 다니엘은 제사장 나라의 지혜를 제국과 함께 나누었다. 이는 그가 제국의 왕 다리오를 보좌했다는 뜻이고 다니엘은 제국의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섬겼다는 의미이다.

왕의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은 제국의 관료들로부터 시기의 대상이 된다. 그들은 다니엘을 제국에서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 그들은 왕에게 다니엘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에 반하는 제국의 법령을 제정하도록 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³⁴¹

그들의 예상은 적중했다. 다니엘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포기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³⁴²

다니엘은 제국이 정한 금령을 어겼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하루에 세 번씩 늘 하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니엘은 제사장 나라의 여호와

³⁴⁰ 단 6:4.

³⁴¹ 단 6:7.

³⁴² 단 6:10.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지혜롭게 제국을 섬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의 두려움 때문에 그가 제사장 나라의 법을 포기하는 순간, 다니엘은 이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왕과 제국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 또한 그는 만약 그가 추구했던 제사장 나라의 가치와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한다면, 제국 안에서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다리오 왕은 제사장 나라의 다니엘이 제국과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았다. 그래서 왕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³⁴³ 다리오 왕 자신도 메대와 바사의 규례에 따라 금령과 법도를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³⁴⁴

다리오는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다음과 같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³⁴⁵ 페르시아 제국의 경영과 통치에 있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필요로 했는지 다음에서 알 수 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³⁴⁶ 이러한 상황에서 다리오 왕이 어느 신에게 다니엘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는지 본문에서 명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가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³⁴³ 단 6:14.

³⁴⁴ Gangel, *Daniel: Holman Old Testament Commentary*, 169-170.

³⁴⁵ 단 6:16.

³⁴⁶ 단 6:18.

밤새도록 왕은 잠을 자지 않았고 기도한 이후에 새벽에 다니엘을 던져 넣은 사자 굴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³⁴⁷ 다리오 왕이 사자 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그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³⁴⁸

다리오는 제국의 왕으로서 다니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로 한다. 다니엘의 나눔과 섬김이 왕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다니엘이 제국 내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왕이 친히 금식하면서, 그것도 왕 자신이 밤잠을 설쳐가며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니엘은 사자 굴 안에서 제국의 왕 다리오에게 답한다.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사자의 입을 봉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왕에게 무죄한 자란 사실을 토로한다. 왕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가 왕에게 해를 입힌 적이 없다고 말한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³⁴⁹ 다니엘은 그가 제국의 왕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덕분이었음을 알았다.

하나님 여호와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었다. 그 덕분에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제국의 경영을 손해 없이 도울 수 있었다.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던

³⁴⁷ 단 6:20.

³⁴⁸ John Philips, *Exploring the Book of Daniel: An Expository Commentary* (Grand Rapids: Kregel, 2004), 104-105.

³⁴⁹ 단 6:22.

무죄한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제국의 참소자들, 그들은 오히려 다리오 왕의 제국경영에 해를 끼친 자들이다. 이에 따라 그들은 형벌을 받게 된다.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사자 굴에 떨어져 처참하게 죽게 된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³⁵⁰ 다리오는 조서를 내려 제사장 나라의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찬양한다.³⁵¹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자 굴에서 살아남았다. 그 이후 그는 다리오 왕 시대는 물론이고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형통하게 되었다.³⁵² 제사장 나라의 사람 다니엘을 시기했던 참소자들의 위협은 있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제사장 나라의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제국 안에서 감당할 수 있었다. 제국 안에서 다니엘이 추구했던 나눔과 섬김의 제사장 나라의 가치는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의 결과를 가져왔다.

4.3 용서와 평화

다니엘 1-6 장을 통(通)과 신(新)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읽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 가운데 용서와 평화라는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추구했다. 이것이 ‘반대와 전복을 위한 저항’이 아닌 ‘화해를 위한 평화적인 저항’을 추구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탈식민주의 전략의 모습이다.

³⁵⁰ 단 6:24.

³⁵¹ 단 6:25-27.

³⁵² 단 6:28.

용서가 선행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도래하지 않는다. 김중기가 제안하는 구조론적 분석과 가치 체계론에서 건강, 돈, 권력, 명예와 같은 인간의 욕망에 기초한 가치와는 다르게 ‘평화’는 자유, 사랑, 정의와 같이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의 하나이다.³⁵³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양자 사이의 평화는 용서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니엘 1-6 장은 평화와 용서라는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통(通)으로 읽을 수 있다.

조병호는 성경 통독과 통(通)신학에서 인간과 인간 사회의 조화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³⁵⁴ 구약성경에서 평화로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 샬롬(shalom)은 박준서가 언급한 것과 같이 온전함(wholeness)과 완전함(completeness)이다: “단순한 의미로서의 완전함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 완전함(harmonious wholeness, completeness)을 뜻하는 것이다.”³⁵⁵ 박준서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샬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샬롬은 인간관계를 말할 때도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7 장 4 절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샬롬으로 말하지 않았다’ 는 것을 번역한 말이다. 사람 사이에서 샬롬이라는 말은 곧 사랑과 우의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샬롬의 관계란 ‘조화를 이룬 온전한 인간관계’ 즉 사랑과 우의, 화평의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두 사람, 또는 두 집단이 서로 마주쳤을 때 상대가 친구인가 또는 적인가를 확인할 때도 샬롬이라는 말을 썼던 것이다.³⁵⁶

요셉이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 시도했고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아 버렸던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와 형제들 사이의 관계는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내지

³⁵³ 김중기, 『참가치의 발견: 성서윤리의 틀』, 223.

³⁵⁴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通)신학』 (서울: 통독원, 2016), 58.

³⁵⁵ 박준서, 『구약세계의 이해』 (서울: 한들출판사, 2001), 383.

³⁵⁶ 박준서, 『구약세계의 이해』, 385.

못한다. 그러므로 용서는 지정한 양자 사이에 화해를 이루기 위한 제사장 나라의 가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치이다.³⁵⁷

본 연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킨 제국과의 관계에서 용서와 평화를 추구하지 않았다면 제사장 나라의 지혜와 지식을 제국의 왕과 관료들에게 나누고 섬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용서와 평화의 제사장 나라의 가치는 제국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평화로운 상호 공존과 상생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통(通) 성경 방법론의 궁극적인 가치이며, 본 연구자가 본 논문에서 추구하는 새로운 탈식민주의 해석방법이다.

첫째,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 안에서 어떤 위협 속에서도 제사장 나라의 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앙적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그들은 제국 안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건들에 대해 평화적인 해법을 추구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식민주의 정책에 따라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들이 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용서와 평화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유다식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³⁵⁸ 하지만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제국과의 평화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식민주의 정책의 일부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본질적인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주저 없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택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³⁵⁷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47.

³⁵⁸ Goldingay, *Daniel: Word Biblical Commentary*, 17-18.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³⁵⁹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의 왕이 먹으라고 했던 바벨론의 음식법이 제사장 나라의 법과 상충하였을 때 평화적인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추구하는 음식법의 우수성을 제국에 증명해 내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 법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열흘의 시험 과정을 달라고 바벨론의 감독자에게 부탁하여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³⁶⁰

이 시험의 기간 동안 제국의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보다 제사장 나라의 법에 따른 음식을 섭취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건강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³⁶¹ 이러한 결과로 제사장 나라의 음식법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된다.³⁶² 이를 통해 평화적으로 제사장 나라의 음식법이 제국의 음식법을 대신하게 된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³⁶³ 평화적인 해법은 제국 가운데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제사장 나라의 왕 여호와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모든 제국의 지혜자들보다 십 배나 나은 지혜를 주신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³⁶⁴ 이 구절은

³⁵⁹ 단 1:8.

³⁶⁰ 단 1:12.

³⁶¹ 단 1:15.

³⁶² Tanner, *Daniel: Evangelical Exegetical Commentary*, 147-148.

³⁶³ 단 1:16.

³⁶⁴ 단 1:20.

제사장 나라의 법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제국을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들이 원수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다면 제국의 안녕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협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준 지혜와 지식은 제국의 발전과 유지에 이바지함으로써 제국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을 가능하게 했다.

둘째, 다니엘 2 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을 번민하게 만든 꿈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바벨론 지혜자들이 느부갓네살의 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³⁶⁵ 이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제국의 지혜자들에게 평화를 선물한 셈이다.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두려움과 번민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렸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이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³⁶⁶ 그들은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왕은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³⁶⁷

다니엘과 세 친구는 꿈의 내용과 꿈을 해석해 낸다.³⁶⁸ 그들에게 남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의 왕을 용서하는 마음에 없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평화를 회복시켜 주었다. 동시에

³⁶⁵ Walvoord, *Daniel: The John Walvoord Prophecy Commentaries*, 66-67.

³⁶⁶ 단 2:1-3.

³⁶⁷ 단 2:12.

³⁶⁸ Longman III, *Daniel: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79-83.

그들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도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평화를 제공한 셈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국 안에서 펼쳐갔던 용서와 평화라는 제사장 나라의 실천신학은 제국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존과 상생을 만들었다.

셋째, 다니엘 3장에서 제국의 왕은 제사장 나라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즉 느부갓네살은 제사장 나라에서 수용할 수 없는 금 신상을 만들었다.³⁶⁹ 제국의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강요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³⁷⁰ 이 명령은 너무나 가혹해서 이를 어길 때 그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³⁷¹ 이것은 제국의 평화를 깨뜨리는 문제를 양산했다. 이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용서 없는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때까지 바벨론 제국의 평화를 위해 힘쓰고 있던 인물들이다. 갈대아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왕에게 참소한다. 이 고발 사건으로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이에 있었던 평화는 깨지고 만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아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³⁷²

그들이 왕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느부갓네살은 분개하고 만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³⁷³ 이 일로 인하여 왕과

³⁶⁹ Strauss, *The Prophecies of Daniel*, 87-91.

³⁷⁰ 단 3:5.

³⁷¹ 단 3:6.

³⁷² 단 3:8.

³⁷³ 단 3:13.

다니엘의 세 친구 사이는 더 이상 평화가 유지될 수 없었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할 수 없었다. 왕은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용서하지 않았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제국의 왕과 자신들 사이에 평화가 깨지는 것보다 그들과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 사이에서 평화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제국의 왕에게 불순종하여 용서받지 못한 결과로 풀무불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³⁷⁴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 사이의 평화를 선택한 결과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진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³⁷⁵ 이에 따라 제국의 왕과 다니엘의 친구들 사이의 평화는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반전이 일어났다. 풀무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태워서 죽이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하고....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³⁷⁶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한다.³⁷⁷ 그들은 제국과의 평화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평화를

³⁷⁴ Leiter, *Neglected Voices: Peace in the Old Testament*, 45.

³⁷⁵ 단 3:23.

³⁷⁶ 단 3:25-27.

³⁷⁷ 단 3:28.

우선하여 지켰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의 왕과 깨어졌던 평화도 회복된다.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³⁷⁸

이 사건을 다시 정리해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풀무불에 떨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살아남았다. 그들과 제국의 왕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이것은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들 사이에 용서와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제국의 평화를 위해 지속해 공직의 역할을 감당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풀무불에 던져 죽이려 했던 제국의 왕을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다니엘 4장에서 이미 다니엘 2장에서 있었던 사건과 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금 꿈으로 인한 번민의 문제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다. 왕은 자신의 꿈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³⁷⁹ 왕은 자신의 문제를 제국의 박수와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통해 해결을 받고자 했으나 그들의 노력은 수포가 된다.³⁸⁰

이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로 불리는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등장한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꿈의 내용을 들었을 때 원수의 나라 바벨론 제국의 왕에 대해서 적대감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을 그가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니엘 4장 19절이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³⁷⁸ 단 3:30.

³⁷⁹ 단 4:5.

³⁸⁰ James B. Jordan, *The Handwriting on the Wal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Powder Springs: American Vision Press, 2010), 243.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³⁸¹ 왕의 꿈은 왕과 제국의 흥망성쇠(興亡盛衰)에 관한 내용이다.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고 왕의 꿈을 바로 해석해 낸다.³⁸²

다니엘은 왕의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³⁸³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제국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고 충언한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³⁸⁴

이 구절은 왕이 공의를 행하는 것은 제국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니엘은 죄를 사하는 용서를 느부갓네살이 실천해야 제국은 평화를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용서와 평화는 제사장 나라의 가치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 그것이 왕이 심판받았던 이유였다. 즉 그는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라를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 이에 따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 해석대로 왕 위에서 쫓겨난다.³⁸⁵

심판의 고난 가운데 느부갓네살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의 권세와 능력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그는 겸손해졌고 다시 제국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³⁸¹ 단 4:19.

³⁸² Miller, *Daniel: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136.

³⁸³ 단 4:25.

³⁸⁴ 단 4:27.

³⁸⁵ 단 4:30-31.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³⁸⁶ 제국의 왕은 고백한다: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네게 더하였느니라.”³⁸⁷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제사장 나라가 추구하는 용서와 평화의 가치를 선포했다. 그는 교만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느부갓네살 왕과 제국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니엘은 왕에게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사하면 왕의 제국에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³⁸⁸ 그러므로 용서와 평화는 제사장 나라의 가치로서 제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공존과 상생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다섯째, 다니엘은 5 장은 벨사살이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없게 되어 제국이 멸망하고 자신도 죽은 사건을 다룬다. 벨사살은 제국과 제사장 나라 사이에 평화를 깨뜨린 장본인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벨사살은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 성전 그릇들을 우상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사용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³⁸⁶ 단 4:34.

³⁸⁷ 단 4:36.

³⁸⁸ Gowan, *Daniel: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ies*, 79-80.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³⁸⁹

이에 따라 귀족 천명과 함께 즐기고 있었던 잔치 자리는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로 순식간에 변해 버렸다. 왕궁 축대 맞은편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난다. 손가락들이 신비스러운 글자를 쓴 것이다.³⁹⁰ 이로써 벨사살 왕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떠났다. 그의 심령은 두려움으로 사로잡힌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친지라.”³⁹¹ 왕과 그 잔치에 있었던 귀족 모두에게 평화는 사라지고 두려움과 공포만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 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³⁹²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벨사살 왕은 자신을 두렵게 만든 석회벽에 나타난 글자의 뜻을 해석하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고 나라의 큰 벼슬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다니엘이 왕 앞에 불리기 전까지 어떤 제국의 지혜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선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불린 다니엘만이 글자의 뜻을 해석해 낸다.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그의 선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건을 그에게 상기시켰다.³⁹³ 그러나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다니엘 4장 27절의 말씀은 다니엘 5장에서 반복되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³⁸⁹ 단 5:3-4.

³⁹⁰ 단 5:5.

³⁹¹ 단 5:6.

³⁹² 단 5:9.

³⁹³ 단 5:18-21.

벨사살 왕은 선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교만으로 어떤 일을 이전에 경험했는지 그것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지 않았다.³⁹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그의 선친이 자기 자신을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보다 높이는 교만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다니엘 5 장은 벨사살 왕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과의 평화를 깬 어리석은 사람이며 용서받지 못한 왕이다. 그는 제사장 나라의 왕 여호와를 위한 성전 그릇을, 이방 우상을 섬기는 술자리에서 사용했다.³⁹⁵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 번의 용서도 받지 못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과의 평화적 관계를 깨버리고 자신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평화를 깨뜨렸던 벨사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제국 안에 평화가 다시 회복된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벨사살 왕에 이르기까지 용서와 평화라는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선포했다. 그는 제국의 포상과 함께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섬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평화와 용서의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통한 제국의 평화와 공존과 상생의 중요성을 제국 가운데 드러냈다.

여섯째, 다니엘 6 장에서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다리오를 완벽하게 섬겼던 총리의 한 사람으로 등장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자 한지라.”³⁹⁶ 왕의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은 세력을 모아서 제국의 왕과 다니엘 사이의 평화를 깨는 모략을 세우게 된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³⁹⁴ Jordan, *The Handwriting on the Wal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298-299.

³⁹⁵ Sprinkle, *Daniel: Evangelical Biblical Theology Commentary*, 136-138.

³⁹⁶ 단 6:3.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³⁹⁷

제국의 관료들은 총리 다니엘이 왕과 제국의 어떤 법령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의 법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³⁹⁸ 그렇기 때문에 제국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이 왕과 다니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왕에게 삼십 일 동안에 어떤 신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든 무엇을 구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세우도록 했다.³⁹⁹

다니엘은 자신과 제국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평화를 깨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제사장 나라의 법을 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 했다. 또한 다니엘은 제국의 법을 어기게 되면 사자 굴에 떨어져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삼십 일 동안이라도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⁴⁰⁰

다니엘은 제국의 금령을 어기고 기도했다.⁴⁰¹ 이는 왕과 자신과의 평화를 깨뜨렸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켜냈다. 이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어 평화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말이다. 이 일로 인하여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사자 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죽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³⁹⁷ 단 6:4.

³⁹⁸ Tremper Longman III, *Daniel: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159-160.

³⁹⁹ 단 6:7.

⁴⁰⁰ 단 6:10.

⁴⁰¹ Goldingay, *Daniel: Word Biblical Commentary*, 131.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었으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⁴⁰²

다리오 왕과 다니엘 사이의 평화를 깬 참소자들은 오히려 사자 굴에 던져지는 처벌을 받아 결국 죽게 된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니라.”⁴⁰³ 그들은 왕과 다니엘 간의 평화를 깨뜨렸다. 평화를 깨뜨린 대가로 그들은 용서함이 없이 사자 굴에 던져지고 말았다.

이 사건 이후에 다리오 왕은 자신의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조서를 반포하기에 이른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⁴⁰⁴ 제국의 왕 다리오는 제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기원하고 있다.⁴⁰⁵

이처럼 평화는 제사장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이다. 법령에 따라 용서받지 못했던 다니엘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켜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즉 무죄를 인정받아 사자 굴에서 살아 나왔다. 다리오 왕의 조서는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구원하신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경외하는 것과 제국의 평화를 반영하고 있다.⁴⁰⁶

다니엘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무죄를 인정받았고 그와 제국의 왕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화해의 의미로서 서로 용서하고 받은 셈이다. 이 때문에

⁴⁰² 단 6:22.

⁴⁰³ 단 6:24.

⁴⁰⁴ 단 6:25.

⁴⁰⁵ Howe, *Daniel in the Preterists' Den*, 188-191.

⁴⁰⁶ 단 6:26-27.

그들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하나님과의 자신 간의 평화를 지켜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과 제국의 왕 사이에 평화를 깬 참소자들을 심판하고 제국의 평화를 회복시킨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도와서 제국을 계속해서 다스린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⁴⁰⁷

여기서 다니엘이 제국 안에서 형통했다는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다리오 왕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제국의 왕들과 다니엘 간의 평화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通)과 신(新)탈식민주의 전략으로 볼 때, 평화와 용서는 제사장 나라의 가치로서 인간 세상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4.4 구원과 선교

통(通)과 신(新)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과 선교라는 제사장 나라의 가치는 다니엘 1-6 장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본 장에서 다루게 될 구원이란 개념은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혹은 고통으로부터 구조되는 것”을 가리킨다.⁴⁰⁸ 또한 다니엘 1-6 장을 통(通)으로 읽을 때, 선교는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가 온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일이다.

⁴⁰⁷ 단 6:28.

⁴⁰⁸ Frederick W. Danker, ed.,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982.

또한 선교는 고대 제국과 모든 열방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다. 고대 제국은 일련의 제국의 식민지 교육과정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만들거자 했다.⁴⁰⁹

본 연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국의 식민주의 정책에 대해 뱀과 같이 지혜롭게 대처해야 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들은 제국 안에서 선교와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먼저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뜻이다.⁴¹⁰

이처럼 전도와 선교를 위해 타 문화권에 대한 전통과 언어를 배우는 것은 효율적인 선교전략 관점에서 볼 때 필수적인 과정이다. 성공적인 구원사역과 선교전략의 일환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사장 나라의 법의 우수성을 먼저 증명해 보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제국의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했다.

첫째, 다니엘 1장에서 제사장 나라의 음식법은 제국의 음식법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⁴¹¹ 이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의 음식법은 제국의

⁴⁰⁹ 단 1:3-7.

⁴¹⁰ David J. Hesselgrave, “The Role of Culture in Communication,” in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Reader*, ed. Ralph D. Winter and Steven C. Hawthorne, 3rd ed. (Carlisle: Paternoster Press, 1999), 392-396; Don Richardson, “Do Missionaries Destroy Cultures?,” in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Reader*, ed. Ralph D. Winter and Steven C. Hawthorne, 3rd ed. (Carlisle: Paternoster Press, 1999), 460-468.

⁴¹¹ 단 1:13-15.

음식법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⁴¹² 따라서 제국의 음식법은 제사장 나라의 음식법으로 대체되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⁴¹³

김영래는 음식이 항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에 있다고 이해한다.⁴¹⁴ 이 관점에서 볼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사장 나라의 음식법을 바벨론 제국의 음식법이 되도록 구원과 선교적 차원에서 이바지한 것이다.

다니엘 1 장은 제사장 나라가 추구하는 제국에 대한 선교와 구원을 위해 먼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위대함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하여 하나님의 전 그릇을 바벨론 제국의 신전에 옮겨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제국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⁴¹⁵ 다른 예로서,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었고 제국의 모든 지혜자보다 십 배나 더 나은 능력을 보여주었다.⁴¹⁶

다니엘 1 장은 다니엘 1-6 장 전체로 본다면 서론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다니엘 2-6 장은 다니엘 1 장에 기록된 제국주의 식민주의 정책에 저항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 2-6 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 아래 꿈과 환상과 사자 굴 위험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는지를 묘사해 준다. 더불어 다니엘 3 장과 6 장은 제사장 나라의 일꾼들이 풀무불과 사자의 굴의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증명해 주었다.

⁴¹² Strauss, *The Prophecies of Daniel*, 44-45.

⁴¹³ 단 1:16.

⁴¹⁴ 김영래,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 403.

⁴¹⁵ 단 1:2.

⁴¹⁶ 단 1:17-20.

다니엘 1-6 장을 통(通)으로 읽을 때, 제사장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은 제국의 왕을 포함하여 제국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를 구원하시는 실질적인 제국과 열방의 왕이요 또한 모든 신들의 최고의 신으로서 찬양받아야 할 분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 안에서 살고 있는 왕과 지혜자들과 민족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한다. 즉 그들은 제사장 나라를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둘째, 다니엘 2 장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구원한다.⁴¹⁷ 또한 그들은 제국의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등 제사장 나라 선교사로서의 다니엘과 세 친구의 활약상을 묘사하고 있다. 제국의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도움으로 자신의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해 주신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한다.⁴¹⁸ 제국의 왕과 그의 영토는 구원과 선교의 대상이다. 더 나아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사장 나라와 여호와 하나님을 제국의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구원과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 때문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⁴¹⁹ 왕은 그의 지혜자들에게 자신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동시에 말해 주어야 꿈의 해석을 믿겠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제국의 왕의 요청에 대답을 못 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모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제국의 지혜자들과 함께 모두 죽게 되는 같은 처지에 있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⁴¹⁷ Philips, *Exploring the Book of Daniel: An Expository Commentary*, 44-57.

⁴¹⁸ Gangel, *Daniel: Holman Old Testament Commentaries*, 63-64.

⁴¹⁹ 단 2:1.

명령이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⁴²⁰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 문제를 해결한다. 제사장 나라의 증인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⁴²¹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왕에게 그의 꿈과 해석을 동시에 전달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다니엘이 증언하는 하나님 여호와와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다.⁴²² 다니엘은 제사장 나라의 선교사로서 구원과 선교를 위한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호와와는 하늘의 하나님이요 제사장 나라의 여호와와는 제국의 왕들을 폐하고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⁴²³

다니엘의 해석으로 문제를 해결 받았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절하고 큰 상을 내렸고 그는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⁴²⁴

⁴²⁰ 단 2:12-13.

⁴²¹ 단 2:20-23.

⁴²² Miller, *Daniel: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90.

⁴²³ 단 2:21.

⁴²⁴ 단 2:47.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덕분에 제국의 왕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와 신들의 신이라고 고백한다. 그들은 왕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구원과 선교를 펼쳐 간 것이다. 그는 제사장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왕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한다. 이것은 다니엘 때문에 가능했다.

그는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제국 가운데 이방 왕과 백성들에게 증언하는 구원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제사장 나라의 왕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니엘과 제국의 왕이 선포하는 일은 제사장 나라의 선교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이 일은 모든 제국의 백성들과 평화스럽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길이란 사실을 보여준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은 물론이고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내지 못한 결과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해있던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냈다.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일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 덕분에 자기 번민의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⁴²⁵ 통(通)과 신(新)탈식민주의 전략으로 다니엘 1장 전체를 읽을 때, 구원과 선교는 제사장 나라의 변함없는 가치이며 제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의 공존과 상생의 길을 여는 전제조건이다.

셋째,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일로 제국의 수호자들에게 고발당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제사장 나라의 법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 앞에 절할 수

⁴²⁵ Steinmann, *Daniel: A Theological Exposition of Sacred Scripture*, 134-143.

없었다.⁴²⁶ 그들은 결국 풀무불에서 던져진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을 보호하시고 풀무불에서 건져내신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자신의 꿈 문제를
해결 받았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들의 신으로서 인정하고 최고신이라고
고백했었다. 그러나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위하여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과 다니엘의 친구들까지 그 앞에 절하도록 강요한다.

느부갓네살은 어리석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했던 이전의 사건을
다 잊어버렸다. 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⁴²⁷

그런데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담대하게 제사장 나라의 왕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선포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⁴²⁸ 그들은 왕과 제국을 구원과
선교의 영역으로 이해한 셈이다.

왕의 설득과 회유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제사장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⁴²⁹ 이것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를 제국

⁴²⁶ Ibid., 182-184.

⁴²⁷ 단 3:15.

⁴²⁸ 단 3:17-18.

⁴²⁹ Steinmann, *Daniel: A Theological Exposition of Sacred Scripture*, 184-187.

가운데 세우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여호와가 모든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풀무불 사건을 통해 구원의 능력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니엘 3장은 여호와가 구원과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죄목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진다.⁴³⁰ 그러나 불에 타서 곧 죽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이 보낸 사자의 도움으로 불에 타지 않고 풀무불에서 살아 나온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⁴³¹

풀무불 속에서 살아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는 구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왕 여호와의 능력을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했다.⁴³² 이 사건으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를 크게 높일 수밖에 없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⁴³³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제국의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 셈이다.

⁴³⁰ 단 3:23.

⁴³¹ 단 3:27.

⁴³² Steinmann, *Daniel*, 192-196.

⁴³³ 단 3:28.

다니엘 3 장을 통(通)과 탈식민주의 전략으로 읽을 때, 독자는 제사장 나라의 궁극적 가치는 구원과 선교에 있음을 발견한다.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솔히 여기는 자들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다.⁴³⁴

이 사건을 신(新)탈식민주의 독법에 제공하는 구원과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제사장 나라는 제국 안에서 왕실을 뛰어넘어 열방으로 확장되어 나아간다.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아 나왔을 때 제사장 나라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도 동시에 드러났다. 바벨론 왕이 제국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조서를 내림으로써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선교는 제국 안에서 더 견고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제국 가운데 존중과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느부갓네살 왕은 개인적으로 다니엘 2 장의 꿈 해석과 3 장의 풀무불 사건을 통해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를 더욱 크게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다니엘 5 장을 통(通)과 신(新)탈식민주의 전략으로 이해할 때, 그는 풀무불 사건을 통해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 더불어 그는 그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을 제국 가운데 조서를 통해 알리는 구원과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다.

넷째, 다니엘 4 장은 2 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자신이 꾸는 꿈으로 인하여 번민했던 사건을 기록한다. 느부갓네살의 꿈 관련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다니엘 4 장의 서론에 해당되는 1-3 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⁴³⁴ Steinmann, *Daniel: A Theological Exposition of Sacred Scripture*, 198-200.

다스리는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린다. 그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제사장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흥미롭게도 느부갓네살은 이 부분에서 제국의 왕으로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 왕이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국 가운데 선포한다는 것은 그가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바벨론 왕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난 경험을 모든 제국의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있다.

이는 선교적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⁴³⁵

그의 증언에 따르면 제사장 나라와는 달리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과는 달리 제사장 나라의 왕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신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꿈을 꾸기 전까지만 해도 평안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다.⁴³⁶ 그는 꿈을 꾸었고 번민하고 괴로워했다.⁴³⁷ 그는 제국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⁴³⁸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은 분명히 자신의 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제사장 나라의 일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⁴³⁵ 단 4:2-3.

⁴³⁶ 단 4:4.

⁴³⁷ Miller, *Daniel: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130.

⁴³⁸ 단 4:6-7.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⁴³⁹

다니엘 4 장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고 놀라서 한동안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했다고 기록한다.⁴⁴⁰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교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이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⁴⁴¹

다니엘이 해석한 꿈의 내용에 따르면,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왕이란 말이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누구에게든지 제국의 왕위를 자기 뜻대로 줄 수 있기 때문이다.⁴⁴²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부갓네살이 정확히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그의 잃어버린 제국의 왕의 위치도 회복될 수 있다.⁴⁴³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는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했던 교만이었다. 그 대가로 왕은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왕위가 회복되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누구이든지 제국의

⁴³⁹ 단 4:9. Cf. 단 4:18.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⁴⁴⁰ 단 4:19.

⁴⁴¹ 단 4:30-31.

⁴⁴² 단 4:17, 25, 32, 35.

⁴⁴³ 단 4:26.

왕위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겸손의 시간이 필요했다.⁴⁴⁴

다니엘 4장 34-37 절을 보면, 왕위에 쫓겨났던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진 후에야 다시 왕위가 회복된 사건을 기록한다. 그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다시 그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덕분에 구원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⁴⁴⁵

다니엘의 꿈 해석 뒤에 따라오는 느부갓네살의 여호와 하나님 찬양은 선교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느부갓네살은 이전의 교만을 회개하고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이 깊이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⁴⁴⁶

제국의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께 은혜와 공물을 간절히 구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⁴⁴⁷

이처럼 느부갓네살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다.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제국의 모든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간주하신다.⁴⁴⁸ 제사장 나라의 군대, 즉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 즉 제국의 사람들

⁴⁴⁴ 단 4:33.

⁴⁴⁵ Miller, *Daniel: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142-143.

⁴⁴⁶ 단 4:34.

⁴⁴⁷ 단 4:37.

⁴⁴⁸ Longman III, *Daniel: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122-130; 단 4:35.

그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시다.⁴⁴⁹

결과적으로 다니엘 4 장을 통(通)과 신(新)탈식민주의 전략으로 읽을 때, 구원과 선교는 제사장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라는 점이 드러난다. 또한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제국의 모든 사람은 상호 공존과 상생의 길이란 사실을 암시해 준다.

다섯째, 다니엘 5 장에서 바벨론 제국과 벨사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선교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국의 왕은 그의 죄의 대가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제국과 함께 몰락한 인물의 전형이다. 다니엘 4 장에서 느부갓네살을 통해 알 수 있었듯이 제사장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은 땅에 속한 제국의 왕위를 자기 뜻대로 그 누구에게든지 넘겨주는 분이였다.

다니엘 5 장 21 절에 따르면 바벨론 제국의 왕 벨사살은 선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왕위에서 쫓겨났던 사건을 알고 있었다.⁴⁵⁰ 그는 선친 느부갓네살로 경험했듯이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이 제국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란 사실을 깨닫고 잊지 말았어야 했다. 또한 벨사살은 그분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제국의 왕위 자리에 줄 수 있는 분이란 것을 기억해야 했다.⁴⁵¹

그런데도 벨사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독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던라.”⁴⁵²

⁴⁴⁹ 단 4:37.

⁴⁵⁰ 단 5:20.

⁴⁵¹ Longman III, *Daniel: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140-143; 단 5:21-22.

⁴⁵² 단 5:2; 5:21-23.

이에 따라 벨사살 왕과 그의 제국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징조가 나타났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⁴⁵³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능히 그 글자의 뜻을 풀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은 왕 앞에 불려갔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⁴⁵⁴

다니엘 5장 17 절부터 23 절에서 다니엘은 석회벽에 나타난 글자 환상을 해석하면서 예언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⁴⁵⁵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된 사건을 상기시킨다: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⁴⁵⁶

벨사살 왕은 자신의 선친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를 누구신지를 진실로 깨달아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행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했다. 불행히도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전

⁴⁵³ 단 5:5.

⁴⁵⁴ 단 5:15.

⁴⁵⁵ Gowan, *Daniel: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ies*, 88-94.

⁴⁵⁶ 단 5:22-23.

그릇을 술을 마시는 도구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했다.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성전 그릇에 술을 마시고 우상들을 높였다.

구원과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벨사살은 끝까지 악을 버리지 못하고 교만하여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으로 묘사된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구원 받지 못한 왕이다.

벨사살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구원의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되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손가락 쓴 글자의 뜻에 담긴 심판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죽음과 바벨론 제국의 멸망 이전과 이후에도 변함없이 제사장 나라의 구원과 선교의 가치를 추구했다. 그는 바벨론 제국 이후에 등장한 메대-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과 공존하고 상생(相生)했던 인물이다..

여섯째, 다니엘 6 장에서 다니엘은 사자 굴의 위협 속에서도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과 여호와의 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제사장 나라의 왕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하고 사자 굴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보상의 대가로 사자 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 사자들의 입을 봉해 버렸고 그를 구원해 내셨다.

여호와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다니엘은 제사장 나라와 그 왕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 제사장 나라의 구원과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다리오는 그의 제국 안에서 거주하는 민족들과 나라들과 백성들에게 여호와 구원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증언하였다.

다니엘은 제국에서 세 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성공적인 직무 수행의 능력을 검증받아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던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⁴⁵⁷ 제사장 나라의 다니엘은 제국의 왕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되어 제국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⁴⁵⁸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⁴⁵⁹

어리석은 다리오 왕은 제국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의 충신 다니엘을 죽이고자 자신에게 다시 고칠 수 없는 법령을 제정하도록 공모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은 주도면밀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사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⁴⁶⁰

다니엘은 이 금령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나라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 늘 이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기도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⁴⁶¹

⁴⁵⁷ 단 6:2-3.

⁴⁵⁸ Longman III, *Daniel: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159-162.

⁴⁵⁹ 단 6:5-7.

⁴⁶⁰ 단 6:9.

⁴⁶¹ 단 6:10.

다니엘이 기도 하는 것을 발견한 무리가 왕에게 이 사실을 고발했다. 이 일로 인하여 다리오 왕은 심히 근심하게 되었다. 그가 있어야 제국경영이 손해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를 구원하려는 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메대와 바사의 규례에 따라 다니엘은 금령을 어겼다는 피할 수 없는 이유로 사자 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다.⁴⁶²

자기 충신을 잃어버리게 될 상황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를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소망했다. 이로써 제국의 왕 다리오를 만나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의 역할이 조명된다: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⁴⁶³ 신(新)탈식민주의가 제공하는 구원과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제국의 왕 다리우스는 다니엘의 구원을 위해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며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⁴⁶⁴

왕 다리오는 새벽에 일어나 사자 굴에 이르러 다니엘이 죽었는지 살아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⁴⁶⁵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면 그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다리오 왕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구절 속에 자기 충신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자기 곁에 있어 주시길 바라는 왕의 간절한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⁴⁶⁶

⁴⁶² Gowan, *Daniel: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ies*, 98-99.

⁴⁶³ 단 6:16.

⁴⁶⁴ 단 6:18.

⁴⁶⁵ 단 6:20.

⁴⁶⁶ Miller, *Daniel: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186-187.

흥미롭게도 다니엘은 6장에서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리오 왕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분명히 사자에게 찢겨 죽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⁴⁶⁷

다니엘은 제국의 금령보다 제사장 나라의 법을 더 중시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자 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 그들의 입을 막아서 구원하셨다. 다리오 왕은 자신을 속여 금령을 만들어서 죄 없는 다니엘을 의도적으로 죽이려 했던 참소자들을 불러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버렸다.⁴⁶⁸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국의 왕 다리오는 구원과 선교의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통치영역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 즉 제사장 나라의 왕 여호와를 높이고 그의 이름을 위대함을 드러냈다. 통(通) 방법론과 탈식민주의 전략으로 다니엘 6장을 읽을 때, 제사장 나라의 가치는 구원과 선교이다.

다리오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⁴⁶⁹ 구원과 선교적 관점으로 이해할

⁴⁶⁷ 단 6:22.

⁴⁶⁸ 단 6:24.

⁴⁶⁹ 단 6:27.

때, 제국 내의 모든 사람은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게 된다.

이로써 다니엘 6 장은 구원과 선교라는 제사장 나라의 궁극적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 6 장은 제사장 나라의 왕,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공존하게 하고 함께 살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다.

4.5 요약

본 연구는 신(新)탈식민주의와 통(通)의 방법론을 가지고, 다니엘 1-6 장을 한 이야기로 간주하고 해석함으로써 피제국주의자들과 제국주의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극복하고 화해의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였다. 본 연구는 탈식민주의가 추구하는 데 종래의 반대와 전복으로서의 저항보다 화해로서의 저항에 관심을 두고,⁴⁷⁰ 통(通) 방법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양자 사이의 공존과 상생의 관계를 목표로 한다.

신(新)탈식민주의 관점에서 화해로서의 저항이란 다니엘 1-6 장을 통(通)의 방법론으로 읽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제사장 나라가 추구하는 실천신학의 주제는 다니엘 1-6 장을 통(通)으로 읽을 때 발견된다.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추구하는 제사장 나라의 가치들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주의자들과 화해하기 위해 저항한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가치와 주제인 나눔과 섬김, 평화와 용서, 구원과

⁴⁷⁰ David Jefferess, *Postcolonial Resistance: Culture, Liberation, and Transformati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8), 136-178.

선교를 제국 내에서 실천해 나아간다. 제사장 나라의 가치는 모든 이들의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을 위한 전제가 된다.

첫째, 다니엘 1 장은 제국에서 나눔과 섬김의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실천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묘사한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지혜와 지식을 원수의 나라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과 기꺼이 나눈다. 다니엘은 열흘 간의 시험 과정을 통해 제사장 나라의 음식법이 제국의 음식법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였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십 배나 나은” 사람들이었다.⁴⁷¹ 그러므로 그들이 바벨론 제국을 그 누구보다 잘 섬길 수 있었을 것이다. 나눔과 섬김이라는 제사장 나라의 가치는 제국 가운데 모든 사람이 평화로운 조화와 공존을 가능하게 하도록 만든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또한 용서와 평화에 기초한 제사장 나라의 원칙을 준수했다. 그들이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지혜와 지식을 제국과 나누지 않고 섬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일꾼으로서 제국을 지혜롭게 잘 섬겼기 때문에 제국의 평화에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용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찾아온다. 용서와 평화가 있는 곳에 공존과 상생이 따라온다.

바벨론 제국의 식민주의 전략은 피제국주의자들에게 제국의 언어와 문화 및 학문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제국에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한 식민지화 과정의 일환이다.⁴⁷² 그러나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이 살고 있는 제국에서 제사장 나라를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하려면 제국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를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

⁴⁷¹ 단 1:2

⁴⁷² 단 1:3-7.

통(通)과 신(新)탈식민주의 전략으로 다니엘 1 장을 읽을 때, 분명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제국에 대한 선교와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제국주의 식민지화 과정에 폭력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제사장 나라의 나눔과 섬김 그리고 평화와 용서 및 구원과 선교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사람들보다 지혜와 지식이 훨씬 뛰어났다. 이것은 그들은 제사장 나라와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하는 선교적 삶을 잘 실천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또한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구원하는 선한 도구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선교이며,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둘째, 다니엘 2 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당면한 꿈과 그 해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일꾼으로 제국의 왕을 섬겼다. 그들이 왕에게 그들의 지혜를 나누지 않았다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다 죽었을 것이다. 나눔과 섬김은 제사장 나라의 가치이다. 나눔과 섬김이 없는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은 가능하지 않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의 왕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왕과 나누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했다. 이에 따라 왕의 번민이 사라졌고 왕은 평화를 되찾았다. 용서와 평화라는 제사장 나라 가치는 함께 공존하고 평화로운 상생의 전제조건이다.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었고 그들에게 평화를 되찾아 주었다. 제사장 나라의 일꾼들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및 번민으로부터 왕과

제국의 지혜자들을 구원한 것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선교이다.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 해석해 낸 다니엘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 여호와와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들의 신으로 모든 왕의 주재이심을 고백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벨론의 신을 더 이상 모든 신들의 최고의 신으로 믿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고백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회심의 가능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⁴⁷³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선교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통(通)과 신(新)탈식민주의 전략으로 다니엘 2 장을 읽을 때, 나눔과 섬김, 평화와 용서 및 구원과 선교는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제사장 나라의 가치가 된다.

셋째, 다니엘은 3 장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숭배 명령을 거부하고 제사장 나라의 법에 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풀무불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죽지 않고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왕을 지혜를 가지고 섬겼다.⁴⁷⁴ 다니엘 3 장에서 선교는 풀무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나눔과 섬김, 용서와 평화 및 구원과 선교의 제사장 나라의 가치는 인간 사이의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의 조건이 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지방을 다스렸다. 이것은 그들이 왕을 섬겼다는 뜻이다. 그들이 왕을 섬기고 제국에서 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제국의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말이다. 통(通)과 신(新)탈식민주의 전략으로 이해할

⁴⁷³ 단 2:47.

⁴⁷⁴ 단 3:12.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제사장 나라의 지혜를 제국의 사람들과 나눔으로 섬기는 것은 그들 사이의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의 필수적 요소이다.

그들은 또한 바벨론 제국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 신상 앞에 절하라는 제국의 법과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떨어지는 처형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제국의 힘을 상징하는 풀무불의 형벌에서 구원하셨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신들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박하여 풀무불에 던졌던 느부갓네살 왕을 그들이 용서할 수 없었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제국의 높은 관직을 거부했을 것이다.⁴⁷⁵ 풀무불 구원의 사건 이후, 다니엘의 세 친구와 제국의 왕 사이에 잠시 잃어버렸던 평화가 다시 회복되었다.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⁴⁷⁶

통(通)과 탈식민주의 전략으로 다니엘 3장을 이해할 때, 나눔과 섬김, 용서와 평화, 구원과 선교의 제사장 나라의 가치는 제국 내의 상생과 공존을 가능하게 만든다. 제국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종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더 나아가 온 땅에 조서를 내리고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온 나라들과 백성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신(新)탈식민주의 해석이 제공하는 구원과 선교학적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 3장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⁴⁷⁵ 단 3:30.

⁴⁷⁶ 단 3:28-29.

여호와로 증거하고 있으며, 제국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책임지고 변화시켜야 하는 선교 영역이다.

넷째,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다. 하지만 다니엘은 제사장 나라의 지혜를 왕에게 나누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는 섬김의 본을 보인다. 그는 다니엘의 지혜로운 섬김과 나눔을 통해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다시금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게 된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자기 뜻대로 그 누구에게나 왕위를 주실 수 있는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다. 제사장 나라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게 되면 왕과 그의 제국이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충언한다.

다니엘이 왕에게 조언하면서 그에게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라는 뜻이다. 선교적 관점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은 그가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다. 왕이 깨달은 여호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어 구원하시는 최고의 신이기에 그는 제사장 나라의 왕을 높이고 찬양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통(通)과 신(新)탈식민주의 해석방법으로 다니엘 4장을 읽을 때, 나눔과 섬김, 평화와 용서 및 전도와 선교의 제사장 나라의 가치는 제국 가운데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전제조건이 된다.

다섯째, 다니엘 5장에서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은 선친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악한 왕으로 묘사된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그릇을 여호와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술잔으로 사용했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는 행위였다. 이로써 벨사살 왕은 회개할

시간도 얻지 못하고 용서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용서와 평화 없이 제국 내에서 공존과 상생은 불가능하다.

다니엘은 벨사살의 요청에 따라 제국의 지혜자들이 해석해 내지 못한 석회벽에 나타난 글자를 해석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왕을 섬겼다. 통(通)과 신(新)탈식민주의 방법론으로 다니엘 5 장을 읽을 때, 나눔과 섬김, 용서와 평화의 제사장 나라의 가치는 제국의 상생과 공존을 가능하게 만든다. 다니엘의 도움으로 글자의 뜻을 알게 되었던 벨사살은 그의 약속대로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임명했다. 벨사살은 문제를 해결받고 제국의 평화를 누리다가 했더니 이 일이 있었던 그날 밤에 살해당하게 된다.

구원과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재위 시절부터 지속해 제사장 나라와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해 왔다. 그런데도 벨사살 왕은 그의 선친이 경험했던 일을 교훈 삼아 교만한 마음을 낮춰 회개했어야 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구원받을 기회를 살리지 못한 어리석고 악한 왕의 모습을 보여준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선교이다. 통(通)과 신(新)탈식민주의 전략으로 다니엘 5 장을 읽을 때,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제국의 모든 사람은 상호공존과 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

여섯째, 다니엘 6 장은 흠이 없고 완벽했던 제국의 한 총리였던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제국의 고관들과 총리들의 모략 사건으로 시작된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만 해도 페르시아 제국은 평화로웠다. 평화와 용서의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깨뜨린 그들로 인하여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의 관계가 무너졌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져 죽이려 했던 모사꾼들을 오히려 사자 굴에 던져지게 하여 죽게 하셨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그의 지혜와 능력을 왕과 나누고 왕과 제국을 잘 섬겼다. 다니엘의 섬김과 나눔은 제사장 나라의 가치이다. 이와 같은 제사장 나라의 가치 없다면 더불어 사는 상호 공존과 상생과 조화는 있을 수 없다. 왕이 모든 일에 뛰어난 다니엘에게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려고 했을 때, 제국의 다른 총리들과 관료들은 그를 시기하여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다리오 왕도 다르게 고칠 수 없는 금령을 제정하도록 왕을 속였다. 이 법령에 따르면 삼십 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제사장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금령을 어긴 죄로 다니엘은 제국의 형벌 규정에 따라 사자 굴에 던져진다.

다니엘을 총애했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이 제국의 왕이 제사장 나라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그는 제사장 나라의 다니엘을 구원하도록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응답된 다리오 왕의 기도는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니엘을 구원해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살려내셨다.⁴⁷⁷ 다니엘 6장에서 이방 왕 다리오는 다니엘을 살리려고 제사장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한 셈이다. 또한 다리오 왕은 구원과 선교의 하나님 여호와를 깊이 체험하고 그로부터 응답받은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다.

또한 다니엘을 죽이고자 평화를 깨어버렸던 참소자들은 사자 굴에 떨어져 용서와 평화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례를 보여준다. 다리오 왕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를 증언한다. 그는 다니엘과 함께하는

⁴⁷⁷ 단 6:23.

선교 동역자의 모습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제국의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찬양하였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어리석음과 무지로 자기 충신 다니엘을 사자 굴에 떨어지게 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왕의 잘못과 무능을 용서할 수 있었기에,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지속해 제국의 왕을 섬길 수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는 것이 선교이다. 다니엘 6 장을 통(通)과 신(新)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나눔과 섬김, 용서와 평화, 그리고 구원과 선교의 제사장 나라의 가치들은 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상생과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되었다.

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다니엘 1-6 장 전체를 탈식민주의 및 신(新)탈식민주의 성서해석과 제사장 나라의 관점에서 통(通)으로 읽어내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였다. 어떻게 두 방법론을 가지고 다니엘 1-6 장을 해석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적절한 답으로 본 논문의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탈식민주의 전략으로 다니엘서를 읽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첫째, 종래의 연구에서 흔히 탈식민화 전략은 제국의 민족 우월주의 이념을 전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 방법은 피지배 민족이 지배 민족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제국의 힘과 능력을 무력화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탈식민주의 전략을 전복으로서의 저항과 불순종과 같은 반대로서의 저항을 종합적으로 고찰했다.

둘째, 본 연구는 종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했다. 즉 탈식민주의 성서해석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래서 논문 4 장은 기존 탈식민주의 연구 사이의 구별을 위해 신(新)탈식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것은 전복이나 단순히 반대로서의 저항의 성격이 아니라 화해로서의 저항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본 연구는 또한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다니엘 1-6 장 전체를 통(通)으로 읽는 것을 시도했다. 통(通) 방법론은 개인, 나라, 가정, 민족 등 양자간의 조화와 공존과 상생을 이루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탈식민주의의 새로운 방향과 통(通)으로 다니엘 1-6 장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을 때, 본 연구는 제국주의자와 피제국주의자, 즉 양자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복과 반대로서의 적대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예레미야 25 장 7 절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화해로의 저항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근거가 되었다. 화해로의 저항은 나눔과 섬김, 용서와 평화, 구원과 선교라는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예레미야 예언을 인지하고 있었다. 징계와 제사장 나라의 재교육 기간의 70 년 동안, 바벨론 제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⁴⁷⁸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수명은 70 년이라는 선지가 예레미야 말씀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억했기에, 굳이 제국에 대해 폭력적 저항방식을 취할 이유가 없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칠십 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⁴⁷⁹ 이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논자가 제안한 화해로서의 저항방식을 따르는 신(新)탈식민주의 해석방법과 양자 간의 조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통(通) 방법론은 그 추구하는 방향성과 궁극적 목표 자체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제 2 장은 다니엘 1-6 장 전체에서 드러나는 제국의 식민지화 정책을 드러냈다. 이것은 약소민족에 대한 비인간화 작업이며 노예화 과정이다. 다니엘 1 장 3-7 절은 특히 제국의 식민지화 과정과 전략을 보여 주었다. 제국은 공성전으로 시작된 침략 이후 제국을 강화하기 위해 포로민들을 선택하여 격리하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다. 제국은 민족 우월주의 이념을 앞세워 침략 행위와 노예화를 정당화 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주의 전략의 목적으로

⁴⁷⁸ 렘 29:7.

⁴⁷⁹ 렘 25:12.

포로민들을 노예화해서 제국에 효율적으로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해 제국의 문화와 종교와 언어를 가르친 것이다.

다니엘 1장에서 제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유다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한다. 그들은 제국의 왕이 내린 제사장 나라의 음식법에 상충하는 술과 음식을 먹도록 강요받았다. 제사장 나라의 법이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한다. 다니엘 2장에서 제국의 지혜자들조차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제국은 더 이상 자신들에게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잔인성을 드러낸다.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 앞에 절하게 강요한다. 제사장 나라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제사장 나라의 법에 따라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풀무불 형을 받게 된다. 제국은 포로민들을 제국에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해 종교적 위협과 박해를 가한다. 다니엘 4장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충언했다. 이를 통해 제국의 왕이 불의를 행하고 제국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제국의 법에 따라 얼마나 잔인하게 다루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다니엘 5장에서 벨사살은 그의 선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게 했고 우상들을 찬양하는 자리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그릇들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데 사용하던 성물이다.

이를 통하여 벨사살이 피제국주의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유 신앙 전통을 얼마나 훼손하려 했는지 알 수 있다.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한 제국의 관료들에 의해 제국의 금령을 어기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자 굴에 떨어지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본 논문의 제 2 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약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을 미개인들을 위한 문명화의 사도들로 포장한다. 그들의 식민지화 전략은 제국의 민족 우월주의 이념에 기초한다. 제국의 식민지화 과정은 포로민들을 노예화하는 비인간화 작업이며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종교와 언어와 문화를 말살시키는 정책이다.

논문의 제 3 장은 종래의 탈식민주의 전략을 가지고 다니엘 1-6 장을 통(通)으로 읽었다. 본 연구는 제국의 힘과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제사장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과 다니엘과 세 친구의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증명했다. 이는 탈식민주의 해석방법론이 추구하는 반대와 전복으로서의 저항방식이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우스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도움이 없이는 난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다니엘 1-6 장은 “하나의 이야기”로 읽을 때, 제국의 왕과 그의 지혜자들과 관료들의 어리석음과 무능력이 나타난다. 이로써 제국이 내세우는 약소민족의 침략과 노예화의 근거가 되는 민족 우월주의는 검증할 수 없지 않은 거짓된 이념적 가치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뿐만 아니라, 포로민 유다인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능력은 다니엘 1-6 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놀랍게도 제국의 신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본문은 이방 신들을 무력화시키고 철저히 배제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다니엘 1-6 장은 제국의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다니엘과 세 친구의 도움 없이는 나라의 경영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탈식민주의 전략과 다니엘 1-6 장 전체를 통(通)으로 읽는다는 것은 제국의 힘과 권세와 지식과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다.

또한 다니엘 1-6 장에 숨겨진 탈식민주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다니엘은 1 장은 제국의 식민지 전략을 무력화시킨다. 예를 들어 유다 민족의

정체성과 유다 민족의 고유 전통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뛰어난 지혜와 제사장 나라의 법의 우수성을 증명해 낸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일하는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역할이 중대한 위치를 조명한다. 특히 탈식민주의 전략의 이론가로 저명한 호미 바바의 양가성(Ambivalence), 잡종성(hybridity), 흉내 내기(mimicry) 이론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제국주의자들은 피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지배 욕망과 더불어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공존한다고 보았다. 이것이 양가성이다. 말하자면 제국주의자들에게 그들이 지배하는 피지배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대화하는 것이 탈식민주의 전략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탈식민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잡종성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국의 언어와 문화 일부를 따라가면서도 제사장 나라와 제국이 충돌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언제나 구별 짓기를 하게 된다. 잡종의 특성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 바바에 따르면 제국 안에서 잡종이 있다는 것은 제국의 안정에 위협의 요소를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제국을 흉내 내는 모방의 개념이다. 바바는 제국의 것을 흉내내어 제국에 유익할 수도 있지만 제국의 것을 모방하여 결국 제국을 전복시키는 탈식민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이해한다.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 교육 과정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국의 언어와 문화를 모방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것은 제국을 전복시킬 수 있는 탈식민주의 전략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국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식민지교육 과정이 제국에게 효율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탈식민주의 교육과정일 수 있다. 바벨론의 언어를 습득하여 그 언어로 바벨론에 저항할 수 있다.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공성전으로 침략해서 성전의 그릇을 제국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과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느부갓네살의

힘과 능력에 기반하지 않는다. 탈식민주의 독법에 따르면, 이 모든 전개되는 상황도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호와와는 패배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히려 승리자의 하나님이시다.

뿐만이 아니다.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압도해 버린다. 한 예로서, 다니엘 1 장은 제사장 나라의 음식법이 제국의 음식법보다 월등하다는 사실을 십 일의 시험 기간을 통해 증명해 보였다. 이에 따라 제국의 음식법은 제사장 나라의 음식법으로 대체된다. 이로써 제국의 힘과 능력은 무력화된다.

다니엘 2 장에서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과 다니엘과 세 친구의 능력과 지혜는 확연히 증명된다. 제국의 왕은 자신의 꿈 내용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번민했다. 이는 강한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약한 제국의 왕의 모습이다. 제국의 지혜자들은 또한 왕의 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들이다. 어리석고 무지한 제국의 지혜자들에 대해 분노한 왕이 모든 제국의 지혜자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극적으로 살려낸 것은 포로민 출신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 제국의 신들은 꿈 해석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제국의 신들에게 꿈 해석을 묻는 지혜자들과 왕의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제국의 신들은 그들의 역할에 있어 철저히 외면당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꿈의 비밀을 알려 주었다.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가 높임을 받는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 문제를 해결해 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탈식민주의 독법에 따라 제국의 힘과 능력은 무력화된다.

다니엘 3 장에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자신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었지만, 제사장 나라의 법과 충돌하는 우상숭배의 문제가 그들 앞에 찾아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한다. 제국의 힘을 상징하는 풀무불로 그들을 죽이려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 제국은 힘을 제사장 나라의 힘을 능가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제사장 나라의 세 친구는 더욱 높임을 받게 된다. 제국의 민족 우월주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력화된다.

다니엘 4 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꿈 문제로 다시 번민한다. 제국의 왕과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다니엘 2 장과 같이 무능하고 유약한 존재들로 전락하고 만다. 다니엘이 왕 앞에 불리고 제사장 나라의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 낸다. 다니엘은 왕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조언했지만, 어리석은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교만하여 왕위에서 쫓겨난다.

왕이 고난받은 이후 다니엘의 조언대로 겸손해졌을 때 왕위가 회복되어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인다. 제국의 왕과 지혜자들은 무능하고 어리석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 권세를 주시는 전능한 신으로 묘사된다. 제국은 신들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다. 제국의 지혜자들은 제사장 나라의 지혜자들과 비교될 수 없다. 탈식민주의 전략으로 다니엘 4 장을 통(通)으로 읽을 때 제국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제사장 나라의 권위는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니엘 5 장에서 벨사살 왕은 그의 선친 느부갓네살 왕을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교만하여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심판을 받았다. 제국도 멸망하게 된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릇을 가지고 술잔치를 열고 제국의

우상들을 찬양했기 때문이다. 그가 베푼 잔치 자리에 손가락이 나타나 왕국의 멸망과 제국 왕의 죽음이 예견된다.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다.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제국의 이방신들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킨다. 여호와와는 패배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다니엘은 벨사살의 부탁으로 손가락의 글자를 해독했다. 그는 그 대가로 제국의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된다. 벨사살은 하나님을 모독한 결과로 죽음에 이른다. 이로써 제국의 지혜와 힘은 무력화된다.

다니엘 6장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은 제사장 나라의 다니엘을 총애했다. 다른 제국의 관료들은 다니엘의 능력을 따라오지 못한다. 이를 시기한 관료들은 다니엘과 왕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왕에게 삼십 일 동안 누구에게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를 누구든 어길 때 사자 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다. 제국의 법과 제사장 나라의 법 사이에서 다니엘은 제사장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다.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제국의 힘을 상징하는 사자 굴에 던져졌다.

그러나 제국의 힘이 제사장 나라의 다니엘을 이기지 못한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써 다니엘을 지키신 것이다.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 모사를 꾸민 제국의 관료들은 사자 굴에 던져져 심판받게 된다. 이로써 다니엘과 다니엘의 하나님은 크게 찬양과 칭송을 받게 된다. 이렇듯 통(通)과 탈식민주의 전략으로 다니엘 1-6 장을 읽을 때, 제국의 힘과 능력은 무력화되고 제사장 나라의 힘과 능력이 상대적으로 주목받는다.

본 논문의 4 장은 탈식민주의 성경해석의 새 방향성을 제시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탈식민주의 관점이 추구해 왔던 종래의 전복과 반대로서의 저항 아니라 화해로서의 저항의 중요성을 새롭게 제안했다. 신(新)탈식민주의

전략과 통(通)으로 다니엘 1-6 장을 ‘한 이야기로’ 읽는다는 것은 공성진과 약소민족의 노예화를 통한 제국의 비인간화에 저항한다는 뜻이다. 또한 이 독법은 양자 사이의 상호공존과 상생을 추구하는 제사장 나라의 (1) 나눔과 섬김 (2) 용서와 평화 (3) 구원과 선교를 가치들을 가지고 다니엘 1-6 장 전체를 해석하는 전략이다.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에게 제사장 나라의 지혜와 지식을 나누고 제국에 섬겼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원수의 나라 바벨론 제국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제사장 나라의 지혜를 나누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과 평화의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면 제국을 섬기지 않았을 것이다. 제사장 나라의 궁극적인 가치는 제국 안에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즉 구원과 선교를 이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었다. 신(新)탈식민주의 독법과 통(通)의 방법론은 제국의 모든 사람과 열방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양자 간 조화와 균형 및 상호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 적절하다.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려움 가운데 처한 느부갓네살과 제국의 지혜자들을 도왔다. 꿈으로 번민했던 제국의 왕의 두려움을 해결했다. 그들은 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제국 지혜자들을 죽임을 면하게 해주었다. 제사장 나라의 섬김과 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제국의 왕이 자신의 지혜자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죽이려 했을 때 다니엘은 제국의 왕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꿈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니엘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모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왕궁 안에서 제사장 나라의 가치 평화를 실천했다. 흥미롭게도 제국의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섬김과 나눔에 보답하여 제국 안에서 높은 자리를 보상해

주었고 그들은 더불어 상생하며 제국을 통치한다. 흥미롭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제사장 나라의 다니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제국의 왕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온 제국의 민족과 나라에 구원과 선교에 이바지했다. 제국의 왕이 제사장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사처럼 행동한다.

다니엘 3 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서 던져 넣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제국의 왕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섬기며 높은 자리에서 더불어 다스렸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가치인 나눔과 섬김, 용서와 평화 그리고 구원과 선교를 실천했다. 풀무불에서 세 친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제국 안에서 큰 영광을 받게 된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화롭게 공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다니엘 4 장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 그는 왕에게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가르쳤다: 제사장 나라의 가치는 나눔과 섬김, 용서와 평화, 구원과 선교이다. 왕의 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제국의 지혜자들을 대신하여 제사장 나라의 지혜를 왕과 그들과 함께 나누고 왕과 제국을 섬겼다. 특히 다니엘은 4 장에서 왕을 이렇게 권면한다: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악을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⁴⁸⁰

제국은 공성전과 민족 말살정책으로 인하여 피제국주의자들의 노예화를 시도했다. 이런 제국의 비인간화 작업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시키는 일이다.

⁴⁸⁰ 단 4:27.

제국은 공의의 나라가 아니었다. 제국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은 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제사장 나라의 가치는 용서와 평화이다. 다니엘은 왕에게 충언하기를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죄를 사하라고 간청했다. 그의 의도는 그렇게 하면 제국의 왕이 평화롭게 장구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이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고 교만하여 왕 위에서 쫓겨났다. 느부갓네살이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그분의 뜻대로 권세를 주시는 분인 것을 겸손하게 깨달은 후에, 그는 구원의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시 왕위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는 하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이로써 다니엘 4 장은 제국 안에 거주하는 나라와 백성에게 조서를 반포하고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그는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의 증언자가 된다. 이로써 다니엘과 제국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상생할 수 있었다.

다니엘 5 장은 벨사살 왕이 그의 선친 느부갓네살 왕을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교만하여 용서받지 못하고 공의 아닌 불의를 행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던 사건을 묘사한다. 벨사살은 제사장 나라와 제국 사이의 평화를 깨뜨린 인물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성전 그릇은 제국의 우상들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술 그릇이 되었다.

술 잔치 중에서 나타난 손가락이 만든 글씨 때문에 두려움이 임했던 벨사살 왕을 위해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글자의 의미를 해석해 주었다. 이는 섬김과 나눔의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실천했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다니엘은 5 장은 용서받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는 벨사살 같은 사람은 결국 용서받지 못한다는 제사장 나라의 가치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벨사살 왕을 구원하기 위해 다니엘을 제국에 보냈지만, 그는 끝내 제사장 나라의 가치, 나눔과 섬김, 용서와 평화의 삶을 실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벨사살 왕은 구원에서 배제되었다. 반면에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순종했던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며 상생할 수 있었다.

다니엘 6장은 페르시아 다리오 왕 시절에 그의 충애를 받았던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들은 왕국 내에서 평화를 깨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다. 그들은 또한 왕을 속여 다니엘이 지킬 수 없었던 금령을 제정하게 했다. 그 모사꾼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자굴에 떨어져 심판을 받았다. 다니엘은 금령에서 제사장 나라에 어긋나는 법을 정했을 때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과 자신과의 평화를 깨어지지 않도록 늘 하던 대로 제사장 나라의 법에 따라 기도했다. 그는 제국과의 평화가 우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선이었다.

다니엘은 다리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고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를 왕과 나누고 제국을 다스렸다. 나눔과 섬김의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았던 다니엘은 그가 제국의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아남았다.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이 자신과의 평화를 제국의 법보다 우선했던 다니엘을 살리신 것이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선교의 영역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니엘을 죽여서 왕과 그 사이의 평화를 깬 제국의 관료들은 그 죄의 대가로 사자 굴에 떨어진다. 용서와 평화의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거부하는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심판 곧 죽음이다. 다리오 왕이 사자 굴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다니엘과 왕 사이에도 또한 왕이 다스리는 제국 가운데 평화가 다시금 찾아왔다. 다니엘은 자신을 사자 굴에 던지도록 최종적으로 허락한

제국의 왕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제국 안에서 계속 제국의 사람들과 조화하며 공존하고 상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구원과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다리오는 사자의 입을 봉해 다니엘을 구원한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였다. 그는 제국의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선포했다. 놀랍게도 제국의 왕 다리오가 제사장 나라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했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이는 그가 제국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선교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다니엘 1-6 장을 통(通)과 신(新)탈식민주의 전략으로 읽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의 민족 우월주의에 기반한 비인간화와 민족 말살정책에 무폭력적으로, 즉 그들은 제국 안에서 화해로서의 저항정신을 실천해 였다. 그들은 나눔과 섬김, 용서와 평화를 통해 제사장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인 구원과 선교의 가치를 제국이 다스리는 민족과 나라 가운데 실천했다.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사장 나라의 수호자들로 평가될 수 있다.

화해로서의 저항이라는 신(新)탈식민주의 독법과 상생(相生)과 조화(調和)를 추구하는 통(通)의 방법론으로 다니엘 1-6 장을 읽을 때,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갈등과 대립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상호협력과 공존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일깨워 준다. 또한 뉴욕에서 한인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인 본 논문의 연구자에게 스윗(Leonard I. Sweet)은 그의 저서 『Giving Blood: A Fresh Paradigm for Preaching』에서 몇 가지 질문들을 그의 독자들에게 던짐으로써 나의 심장을 고동치게 한다.

“당신은 설교할 때마다 피를 뽑아내고 있는가? 당신은 모든 설교를 통하여 혈액을 나누고 있는가? 설교는 피를 나누는 기술이자 훈련이다. 설교자들의 모든 설교는 결과적으로 세상을 도약하게 만드는 힘이다. 설교자들은 세상의

죄들을 씻기는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보내는 혈관이 되어야 하는 엄청난 소명을 가지고 있다.”⁴⁸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평화와 용서의 하나님 나라 복음 가운데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과 나누고 전하는 것이 선교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나는 설교자요 목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사랑을 설교에 담아 회중에게 흘려보내는 혈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그것이 나를 설교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⁴⁸¹ Leonard I. Sweet, *Giving Blood: A Fresh Paradigm for Preaching*, Kindle (Grand Rapids: Zondervan, 2014), 330.

참고문헌

1. 국내 서적

김영래. “가족식탁에서의 신앙교육.” 『신앙과 세계』. 제 88 집(2016.12), 395-426.

_____.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교육의 연구.” 『신앙과 세계』. 제 91 집(2017.9), 159-186.

김용규. 『데칼로그』. 서울: 포이에마, 2015.

김중기. “구조론적 분석과 가치체계론.” 『신학논단』. 제 17 집.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7.

_____. 『참가치의 발견: 성서윤리의 틀』. 서울: 참가치, 1995.

구종서. 『민족과 세계: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주의의 항정』. 서울: 나남신서, 1988.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파주: 살림, 2008.

박준서. 『구약세계의 이해』. 서울: 한들, 2001.

성주진. “다니엘의 대응 전략: 다니엘 1장 주해와 적용.” 『다니엘: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153-154. 목회와 신학 편집부 편, 제 28 권.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이희갑. 『언더우드』.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0.

조병호. 『통이다: Let' s 通』. 서울: 통독원, 2009.

_____.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20.

_____. 『성경과 고대정치: 고대 제국 왕들의 통치 조서와 명령들』. 서울: 통독원, 2021.

_____. 『와우! 예레미야 70년: 징계 70, 교육 70, 안식 70, 제국 수명 70, 새 언약

예고』 . 서울: 통독원, 2018.

_____.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 서울: 통독원, 2020.

_____. 『통성경 길라잡이』 . 서울: 통독원, 2021.

_____. 『성경통독과 통(通)신학』 . 서울: 통독원, 2016.

_____. 『성경과 5 대 제국: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 서울: 통독원, 2011.

2. 서양 서적

Ali, Murtaza. “Antiochus IV. Epiphanes Policy towards the Jews and the Maccabean Revolt (175-163 BC).” *Gaziantep University Journal of Social Science* 21.4 (2022): 2469-2478.

Augsburger, David W. *Helping People Forgive*. Louisville: Westminster, 1996.

Baldwin, Joyce G. *Daniel: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9.

Bhabha, Homi K.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 나병철 역. 서울: 소명출판, 2002.

Blenkinsopp, Joseph. *The Pentateuch: An Introduction to the First Five Books of the Bible*. New York: Doubleday, 1992.

Byoungcho, Zoh. *The Rise and Fall of the Five Empires in the Bible*. Seoul: Tongdokwon, 2017.

_____. *Tong Bible: To see the Bible Using the Tong Method*. Seoul: Tongdokwon, 2017.

Chapell, Bryan. *The Gospel According to Daniel: A Christ-Centered Approach*. Grand Rapids: Baker Books, 2014.

- Chia, Philip. "On Naming The Subject: Postcolonial Reading of Daniel
1. In *The Postcolonial Biblical Reader*, 171–185. Edited by R. S.
Sugirtharajah.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6.
- Collins, John J. *Danie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Cook, Stephen L. *The Apocalyptic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 Crüsemann, Frank. *The Torah: Theology and Social History of Old Testament Law*.
Translated by Allan W. Mahnk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 Danker, Frederick W., ed.,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Davies, Philip R. and John Rogerson. *The Old Testament World*. 2nd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 De Gruchy, John W. *Reconciliation: Restoring Justic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 Fewell, Danna N. *Circle of Sovereignty: Plotting Politics in the Book of
Daniel*.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 Gangel, Kenneth O. *Daniel: Holman Old Testament Commentary*. Edited by Max
Anders. Nashville: B & H Publishing Group, 2001.
- Goldingay, John. *Daniel: Word Biblical Commentary*. Edited by Bruce M. Metzger.
Vol. 30. Nashville: Thomas Nelson, 1996.
- Gowan, Donald E. *Daniel: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 Greidanus, Sidney. *Preaching Christ from Daniel: Foundations for Expository Sermons*. Grand Rapids: Eerdmans, 2012.
- Hartman, Louis F. and Alexander A. Dilella, *The Book of Dani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5.
- Hebbard, Aaron B. *Reading Daniel as a Text in Theologica Hermeneutics*. Eugene: Pickwick, 2009.
- Henze, Matthias. *The Madness of King Nebuchadnezzar: The Ancient Near Eastern Origin and Early History of Interpretation of Daniel 4*. Leiden: Brill, 1999.
- Hesselgrave, David J. "The Role of Culture in Communication." In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Reader*, 392-396. Edited by Ralph D. Winter and Steven C. Hawthorne. 3rd ed. Carlisle: Paternoster Press, 1999.
- Hobsbawn, Eric. *On Empire: America, War, and Global Supremacy*. New York: Pantheon, 2008.
- Holladay, William L. *Jeremiah 1: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Chapters 1-25*. Edited by Paul D. Hans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 Howe, Thomas A. *Daniel in the Preterists' Den: A Critical Look at Preterist Interpretations of Daniel*. Eugene: Wipe & Stock, 2008.
- Huddart, David. *Homi K. Bhabha*. Abingdon: Routledge, 2006.
- Jefferess, David. *Postcolonial Resistance: Culture, Liberation, and*

- Transformati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8.
- Johnson, C. *Dismantling the Empire: America's Last Best Hope*. New York: Metropolitan, 2010.
- Jordan, James B. *The Handwriting on the Wal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Powder Springs: American Vision Press, 2010.
- Komori, Y. 『포스트콜로니얼: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 송태욱 역. 서울: 삼인, 2007.
- Leiter, David A. *Neglected Voices: Peace in the Old Testament*. Scottsdale: Herald Press, 1989.
- Longman III, Tremper. *Daniel: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9.
- Lopez, David C. "Visualizing Significant Otherness." In *the Colonized Apostle: Paul Through Postcolonial Eyes*, 74-94. Edited by Christopher D. Stanle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1.
- Lucas, Ernest C. *Daniel: Apollos Old Testament Commentary*. Edited by David W. Baker and Gordon J. Wenham. Vol. 20.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2.
- McLeod, John. 『탈식민주의 길잡이』. 박종성 외 편역.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3.
- Merrill, Eugene H. *Kingdom of Priests: A History of Old Testament Israel*. 2nd e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88.
- Miller, Stephen R. *Daniel: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4.
- Newsom, Carol A. *Daniel: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 Press, 2014.
- Nogueira, Simone G. "Ideology of White Racial Supremacy: Colonization and Decolonization Process." *Psicologia & Societate* 25 (2013): 23-32.
- Pace, Sharon. *Daniel: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Smyth & Helwys, 2008.
- Philips, John. *Exploring The Book of Daniel: An Expository Commentary*. Grand Rapids: Kregel, 2004.
- Philpott, Daniel. *Just and Unjust Peace: An Ethic of Political Reconcili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2012.
- Portier-Young, Anthea E. *Apocalypse Against Empire: Theologies of Resistance in Early Judaism* Grand Rapids: Eerdmans, 2011.
- Punt, Jeremy. "Paul and Postcolonial Hermeneutics: Marginality and/in Early Biblical Interpretation." In *As It Is Written: Studying Paul's Use of Scripture*, 261-290. Edited by Stanley E. Porter and Christopher D. Stanley.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8.
- Raboteau, Albert J. *Slave Religion: The Invisible Institution in the Antebellum Sou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Richard, Don. "Do Missionaries Destroy Cultures?" In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Reader*, 460-468. Edited by Ralph D. Winter and Steven C. Hawthorne, 3rd ed. Carlisle: Paternoster Press, 1999.
- Segovia, Fernando F. "Mapping the Postcolonial Optic in Biblical Criticism: Meaning and Scope." In *Postcolonial Biblical Criticism: Interdisciplinary Intersections*, 23-78. Edited by Stephen D. Moore and

- Fernando F. Segovia.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5.
- Segovia, Fernando F. and Mary Ann Tolbert, eds. *Reading from the Place: Social Location and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United States*. Vol. 1-2.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Segovia, Fernando F. and Sugirtharajah, Rasiah S. *A Postcoloni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Writings*. New York: T & T Clark, 2009.
- Smith-Christopher, Daniel L. "The Book of Daniel: Introduction, Commentary, and Reflections." In *Esther, Additions to Esther, Tobit, Judith, 1 & 2 Maccabees, Book of Wisdom, Sirach, Introduction to Apocalyptic Literature, Daniel, Additions to Daniel: The New Interpreter's Bible Commentary*, 751-752. Edited by Leander E. Keck. Vol. 6. Nashville: Abingdon Press, 2015.
- Sprinkle, Joe M. *Daniel: Evangelical Biblical Theology Commentary*. Bellingham: Lexham Press, 2020.
- Steinmann, Andrew E. *Daniel: Concordia Commentary*.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08.
- Strauss, Lehman. *The Prophecies of Daniel*. Winona Lake: BMH Books, 1969.
- Sugirtharajah, Rasiah S. *Asian Biblical Hermeneutics and Postcolonialism: Contesting the Interpretations*. Maryknoll: Orbis Books, 1998.
- Sweeney, Marvin A. *TANAK: A Theological and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Jewish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 Sweet, Leonard I. *Giving Blood: A Fresh Paradigm for Preaching*. Kindle. Grand Rapids: Zondervan, 2014.

Tanner, J. Paul. *Daniel: Evangelical Exegetical Commentary*. Edited by William

D. Barrick. Bellingham: Lexham Academic, 2020.

Towner, W. Sibley. *Daniel: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12.

Walvoord, John F. *Daniel: The John Walvoord Prophecy Commentaries*. Chicago:

Moody Publishers, 2012.

Walton, J. "The Decree of Darius the Mede in Daniel 6."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1 (1986): 279-286.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Kwangsong Jeon

Place and Date of Birth: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July 12, 1972

Parent`s Names: Dalho Jeon /Jeomshun Im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Seongnam High School 61 Simin-ro, Jungwon-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0, 1991
Collegiate: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B.A	Aug 29, 1997
Gradu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Republic of Korea	M.A	Aug 30, 2002
Graduate: Vanderbilt University 2201 West End Ave, Nashville, TN 37235, U.S.A	M.T.S	May 13, 2005
Graduate: Harvard University 86 Brattle Street, Cambridge, MA 02138, U.S.A	Th.M	June 8, 2006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Kwangsong Jeon

Name typed

March 15, 2023

Date